



sbs

매거진 11

SBS Magazine • 1992

「지구촌 퀴즈」
MC 이영현

sbs 서울방송 Ch6 AM792

총체적이란 말이 유행이다. 이 말을 좀 다른 의미에서 써먹어본다면,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재능을 갖춘 사람이 많다. 말도 잘 하고, 외모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공부도 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다.

한국의 신세대는 대부분 밝고 명랑하다. 그들에게는 어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자란 그들은 거리낌이 없다. 자기 의사 표현이 분명

「지구촌 퀴즈」MC 이영현

밝고 영리한 신세대 미인의 표상

한 그들에게선 기성 세대가 지닌 어딘가 좀 쭈뼛거리는 듯한, 부끄러움 같기도 하고 의구심에 젖어있는 듯하기도 한 태도를 발견하기가 힘들다. 그것이 긍정적이라거나 부정적이라고 쉽게 재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기성세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신세대의 특징임에는 분명하다.

이영현도 그렇다. 그는 경원대학 2학년이던 지난 91년에 미스코리아 진에 올랐다. 그리고 지금은 일요일 오후 5시 10분에 시작하는 SBS의 인기 퀴즈 프로그램 「지구촌 퀴즈」의 진행자이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평범한 대학생 치고는 꽤 거창한 자리에 올랐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한국 최고의 미녀라는 칭호에 걸맞게 노래와 춤에도 재주가 있는 모양이다. 가히 재능을 총체적으로 지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그가 한국 신세대의 한 표상임을 알 수 있다.

이영현이 처음 「지구촌 퀴즈」의 MC를 맡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저 그랬다.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가 미인을 갖다 앉히는군. 그냥





그럼일 뿐이고 공동 진행자인 정재환이 다 하겠지, 이런 식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심드렁하기만 한 그런 예상은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나자 여지없이 깨졌다.

우선 이영현은 말을 너무나도 잘 하는 사람이다. 발음도 분명했을 뿐더러 너무도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이끌어 갔다. 보면 알겠지만 퀴즈프로그램 진행이란 게 미리 만든 대본만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패널이 어떤 대답을 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 순발력이 없다면 상황을 끌고 나갈 수가 없다. 소위 애드립이 없으면 예기치 않은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영현은 숨쉴 있게 패널들의 예기치 않은 대답을 척척 받아 넘겼고 오히려 엉뚱한 질문을 던져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만들어 나갔다.

그는 원래 그렇게 말을 잘 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한다. 어렸을 때부터 기죽는 걸 싫어했고 서론 활동을 해도 회장 노릇을 했으며 집안에서도 말을 못하면 독세할 수 없었다. 막 내인 탓에 언니나 오빠들을 이겨 보려는 심리를 안가질 수가 없는데 그 언니, 오빠들, 심지어 부모님까지 워낙 말을 잘해서 대화에 끼어들려면 말을 잘 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아마도 그런 성장과정이 그에게 MC 역할이 맡겨졌을 때 선뜻 용하게 만들었고 마케킹 노릇을 거부하고 제 몫을 찾는 유능한 진행자가 되게 한 것 같다. 그리고 「지구촌 퀴즈」의 첫 녹화분이 방송되지 않고 사장된 것도 그에겐 더없이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패널들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잘 몰라서 돌발 상황이 벌어진 탓에 방송을 내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 그는 그런 생각을 했다. 자료만 갖고 하는 건 안되겠다고, 다음 주에 나갈 문제를 미리 보고 어떤 예비 상황을 설정해 혼자서 궁리를 해야겠다고.

이제 이영현은 어떤 프로그램을 맡겨도 잘 해낼 인물이라는 평을 방송가에 심었다. 그래서 개편때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섭외가 오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그걸 모두 거절해 왔다. MC라는 역할이 적성에도 맞고, 평생 직업으로 가져볼만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학교 공부와 여러 방송 일을 병행할 자신이 없어 서이다. 그의 원초적(?) 신분이 아직은 학생임을 생각할 때 썩 바람직한 생각이다. 그의 인생 설계가 아무지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창사2주년 특집 프로그램인 「태평양 종단 퀴즈」 녹화 때문에 18박 19일 동안 동남아 출장을 다녀온 걸 빼면 그는 학교와 방송사를 오가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스스로도 전혀 성격이 까다롭지 않고 먹성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자신만만하게 평범하다. 그러나 그는 이제 유명인이다. 학교나 거리에서 사람들은 그





를 보고 “이영현이다”, 하지 않고 “얼마예요”라고 수근댄다. 그럴 때 그는 기분이 좋아진다. 자신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 유명해진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상하기도 하다. 스스로는 생활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묘한 이율배반이다. 그러나 이 또한 유명세 탄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그는 MC라는 역할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 방송에서 MC는 주인의 역할이다. 패널은 손님이다. 손님이 오면 주인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MC의 개성이 너무 강해서 어떤 패널이 나와도 그 MC의 개성에 묻혀버리는 건 그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 반대가 되고 싶은 것이다.

이제 방송 진행자로 데뷔한지 1년이 넘어서는 그의 고민은 이런 것이다. 처음엔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니까 저 정도면 괜찮다고 봐주던

사람들이 이젠 좀 더 잘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그를 전문 MC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즐거운 고민이다.

다리가 길고, 그래서 키는 당연히 크고, 잘생기고 말 잘하는 한국의 신세대. TV를 켜면 그들이 방송을 점령한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로 신세대들은 각종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밀어 그 재능을 뽐낸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이영현이다. 장르를 불문하고 섭렵하는 그 재능들의 앞날은 어찌 될까. 적어도 이영현만은 쉬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가 「지구촌 퀴즈」에서 클로징 멘트를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라. 그는 곧잘 문수 같은 소리를 해서 시청자를 웃긴다. 그럴 때 그는 얼마나 영리해 보이는가. **S**

글/정만재 시인

사진/서창식

4 커바스토리 / 「지구촌 퀴즈」 MC 이영현

밝고 영리한 신세대 미인의 표상 · 정인재

서울방송 창사 2주년 특집 프로그램

12 드라마 / 30부작 「관촌수필」

고스란히 맛보게 될 그 시절 그곳의 정서 · 김은영

18 드라마 / 3부작 「아디로 가나」

다시 볼 지극히 할 마스한 가족애 · 김병록

22 다큐멘터리 / 6부작 「동구르포, 다뉴브의 새물결」

전환시대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개혁의 얼굴 · 양철훈

28 다큐멘터리 / 4부작 해외기획 「술위는 국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미래향을 위하여 · 박홍로

32 다큐멘터리 / 2부작 「서울 영상리포트」

그래도 서울은 살만한 곳 아니던가 · 윤동혁

36 다큐멘터리 / 2부작 「수난시대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위험만은 삶, 멀고 먼 조국

39 라디오 / 「소리의 고향을 찾아서」

빛바랜 사진같은 고향의 향기 · 박전삼

42 행사 / 「태평양 종단퀴즈」

땀과 오기로 건너온 태평양 퀴즈탐험 · 이상훈

46 특별 생방송 / 「기쁨주고 사랑받고」

47 오락 · 행사 · 공연

52 방송지구촌 / 「만류불멸리 빛깔은 개살구」 김성호

55 11월의 화제 여섯 · 윤종영

62 92년을 달린다 / 「관촌수필」의 달린트 권소정

즐거운 이슬배반에 빠진 스물다섯 '용접이' · 김종혁

64 나도 SBS맨 / 「쇼! 서울서울」 MC 정재환

화려한 춤꾼으로 변신한 개그계의 신사 · 김일중



여기는 1992, SBS 라디오입니다

- 68 지금 생방송 중 / 「노래한마당」
타지는 웃음과 함께 하는 즐거운 점심시간 · 박성례
- 72 1992초대석 / 「이미자의 가요앨범」 DJ 이미자
살아있는 애정으로 가득 찬 진지한 목소리 · 박경희
- 74 방송의 현장 / 「기쁜 우리 젊은 날」-「오거나 말거나」
오는 발길 막지 않는 라디오 사랑채 · 신은영
- 77 PD일기 / 「수도권은 지금」 92년 하반기 취업 특별방송을 마치고
라디오국을 묶어버린 전화벨소리 · 이정은
- 80 해거진 수신탑 / 유리벽 없애기 · 유용환
- 82 새 드라마 / 수목드라마 「사랑하는 당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 유미혜
- 88 새 드라마 / SBS 소설극장 제7화 「모닥불에 바친다」
어둔 땅에서 핀 그 사랑의 불씨 · 이성아
- 94 해거진 컬럼 / 소주 한 잔의 행복 · 황효선
- 100 SBS광장 / 서울방송 창사 2주년 기념세미나
성공 출발, 전국방송의 그날도 멀지 않았다 · 서정우 · 이덕주
- 108 지상녹화 / 「시사전단 핵심」- 위싱턴 동정
“공산주의 붕괴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시작일 뿐입니다.”
- 113 TV 난택선 /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시 본다
기적인가, 사술(邪術)인가? · 김기우

- 발행 · 편집인 / 윤세영
- 주간 / 김우광
- 부주간 / 손규환
- 기획 / 남지혜 · 신선화
- 사진 / 서형식 · 고도영



SBS 문화살롱

- 118 영화 / 90년대 영화의 이단아, 코엔형제의 「바톤 핑크」 · 정성일
- 120 가요 / 땅위로 올라온 언더그라운드 가수들 · 김상일
- 122 연극 / 서울연극제, WUV, 그리고 미스터 맘마 · 이영미
- 124 공연 / 체코 아나체코 필하모닉과 국립 오페라단 공연 · 이창직



특집 프로그램

서울방송이 건강한 두살이 되었습니다

방송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2년 전 오늘 새로운 민방 서울방송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을때, 이토록 빨리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라는 방송이념 아래 한국 방송사에 커다란 획을 긋고 싶은 마음으로 뚝친 서울방송 가족의 일념과 정성은 겨우 두살밖에 안된 SBS를 어느새 일등방송으로 키워놓았습니다. 거기에 시청자여러분의 사랑과 지지가 커다란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서울방송은 더욱 기상을 펴고 어른의 발걸음으로 두박두박 방송의 내일을 향해갈 것입니다.



- ① 드라마/30부작 「관촌수필」
- ② 드라마/3부작 「어디로 가나」
- ③ 다큐멘터리/6부작 「동구르포, 다뉴브의 새물결」
- ④ 다큐멘터리/해외기획 4부작 「숨쉬는 국토」
- ⑤ 다큐멘터리/2부작 「서울 영상 리포트」
- ⑥ 다큐멘터리/2부작 「수난시대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 ⑦ 라디오/「소리의 고향을 찾아서」



- 8 행사/「태평양 종단퀴즈」
- 9 특별 생방송/「기쁨주고 사랑받고」
- 10 오락·행사·공연/「SBS 시청자대행진」
「해머 서울공연」「SBS 총집합」
「연기바둑 최강전」등





30부작 「관촌수필」 고스란히 맛보게 될 그 시절 그 곳의 정서

- 원작/이문구
- 극본/남홍식
- 연출/이종한
- 방송/11월 9일부터 매주 월, 화요일
밤 9시 50분~10시 50분



충남 보령군 웅천면으로 가는 길은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고도 지루한 여정이었다. 중간에 휴게소 등에서 여유를 부린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족히 다섯 시간 가까이는 달린 듯했다. 우리의 농촌 풍경이 다소 지겹고, 길국은 졸음조차 달아나 버려 약간의 치매 증상 비슷하게 되어 시선이 풀려갈 때쯤 해서 대천 해수욕장으로 가는 표지판이 눈길을 스친다. 웅천은 그 표지판에서부터 30분 거리에 있다.

세상은 너무도 많이 변해버렸다. 어디로 가야 예전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만날 수 있을까. 시골의 풍경과 살림살이들을 보노라면 참지 모르게 안전한 정취를 느낀다.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았든간에.

토속성은 아마 우리 정신의 유전인자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문구 원작의 드라마 「관촌수필」은 도시생활에 지쳐버린 우리를 가슴속 그곳으로 데려다주게 될 것이다.



웅천의 중심지를 지나 목을 여관을 찾고, 짐을 정리하고, 한번쯤 등을 방바닥에 대보고 싶은 유혹 속에 망설인다 다시 신발을 꿰차고 로케장을 찾아 나서면서 “도대체 이곳의 어떤 매력이 이종한 감독을 이렇게 멀리까지 데려 오게 한 것일까”란 의문이 들었다.

로케 장소까지 가는 길은 늦가을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다. 추수 뒤끝이라서인지 쓸쓸한 느낌이 들만 사이의 작은 길을 지나 한 소음에 도착했을 때는 표현 그대로 해가 뉘엿 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지나가는 꼬마를 붙들고 “영화 찍는 데가 어디니?”라고 물으니 대꾸도 없이 손가락질만 한다. 꼬마의 손끝을 따라 동네 골목의 어귀를 지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낮익은 소음들이 들렸다. 방송인들이 하는 일은 모습을 감추어도 그 소리의 부산스러움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나게 마련이다.

연출자인 이종한 프로듀서가 굳이 이곳까지 오려고 한 이유는 촬영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집을 본 순간 금세 이해가 됐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작품의 로케 장소 물색은 원작자인 소설가 이문구 씨와 함께 이 감독이 직접 했다고 한다. 작품 배경에 딱 들어맞는 농가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웅천의 그곳 농가는 서울 근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대화된, 그래서 무언가 정취를 잃어버린 농가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이종한 프로듀서가 오랜 방송 활동동안 일관되게 추구해 온 것은 한마디로 '촌스러움의 온전한 회복'이다. 일종의 환경주의자들의 주장같은, 또는 일종의 신보수주의 선언처럼 들리는 이 말은 그러나 보다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신속한 산업화, 현대화의 과정을 겪은 현재의 40~5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신세대들이 그동안 정신적으로 잃어버린 그 무언가를 되찾자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왕릉일가」란 작품을 통해



서, 또 올해 초 시청자들로부터 최대의 관심을 모았던 「분례기」에서도 그런 자신의 작품 의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아마도 이번 작품인 「관촌수필」이 그중에서도 백미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전통적 정서와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밝힌다.”

이 구태의연한 내용의 기획의도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처음 이 「관촌수필」의 기획안을 봤을 때 조금은 불만스러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의도가 지금까지 드라마화 되는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작위적이면서도 계몽과 계도의 분위기로 일관





연, 두 아역 스타와 신인 연기자 권소정, 그리고 연극배우 출신의 조용태 등만이 남아 저녁 식사 전 마쳐야 할 오후 마지막 장면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날씨는 비가 올듯 자꾸만 잔뜩 흐려지고 있었고 촬영장을 에워싸고 있는 스태프 모두가 조바심이 나는 모양



하기 일쑤였다. 그것도 70년대 드라마인 「팔도강산」식으로.

그러나 드라마는, 그중에서 진실로 평가받는 작품은 그렇게 ‘숨막히는’ 내용의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살았던, 또 살고 있는 삶 그대로를 솔직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다. 이종한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감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논리로 이해시키기 보다 먼저 느끼게 한다” 등이 그가 늘 생각하는 말이다.

촬영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박근형, 윤여정 등 소위 이름 난 연기자들은 철수한지 오래였고 양동근, 박상

이었다. 야외에서 제작되는 이 작품이 그것도 동시녹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장면 장면마다 모두들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겠는가.

단언하건대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에서 꼬마 탤런트들의 연기가 가장 일품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흥복이 역을 맡은 다섯 살 짜리 연기자 박상연은 우는 표정, 웃는 표정, 눈치 보는 표정 등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성 연기자 못지않았다.

흥복의 형으로 민구 역을 맡은 양동근은 사실상이 드라마의 주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 KBS-TV의 「형」에 출연, 그야말로 눈물나는 연기를 선보인 바 있다. 여기서도 그의

‘흔스러움의 온전한 회복.’ 한 방송PD가 자신의 작업이념으로 설정하고 일관되게 추구하는 명제이다. 그렇다면 그는 그저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 사람, 연출자 이종한의 의도는 ‘옛날의 그 좋았던 정신을 잃지 말자’는 것에 있다.



드라마 「관촌수필」의 주인공은 신인이며 나이도 어린 권소정, 양동근, 박상연 등이다. 이들은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은 커녕 살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토속적 연기는 그야말로 일품이다. 물론 노련한 연기력을 가진 선배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테지만 말이다.



투박하고 시골스런 이미지가 심분 활용되고 있다.

소설 「관촌수필」이 드라마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일부의 몇몇 사

람들은 “그 얘기를 어떻게 TV극으로 만드냐”고 의문스러워 했다. TV 드라마의 무한한 가능성을 잘 모르면 당연히 그러한 의문이 나올 법 하다. 그러나 그러한 의문 속에는 「관촌수필」이 그만큼 영상화 하기에는 어려운 작품이라는 점이 내포돼 있다.

작가 이문구라면 소설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조차 그 이름 석자는 들어봤을만한 사람이다. 소설을 통해 보는 그의 '입담'은 걸기로 소문이 나 있으며 그 만연체적 이야기 전개와 연결 고리 하나하나를 사각형의 브라운관 안으로 정제시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작업에 속한다. 실제로 드라마 대본 집필 과정에서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씩을 개별화 시켜 각 1인의 에피소드를 한 장씩으로 만든, 일

종의 연작 형태의 원작을 몽땅 해체시켜 이를 사건별로 또 연대순으로 재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됐다는 것이다. 이종한 PD의 말을 빌리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소설을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그리고 원작을 TV로 옮기는 과정에서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까지 변질시키지 않으려고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한다. 따라서 드라마 「관촌수필」은 100퍼센트 원작에 충실한 작품이라고 강조한다.

영상을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극적 리얼리티를 살리는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장면구성이다. 예를 들어 60년대의 시골 학교 교실을 영상에 담아내는 데 엉뚱하게 전자벽시계가 걸려 있거나 하면 그 작품은 그야말로 리얼리티 부재의 드라마가 되고 만다. 그만큼 소품 처리에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 드라마 「관촌수필」은 하나 하나의 장면 구성을 완벽하게 만들어 내기 위해 소품 구성 및 그 배치, 또 연기자들의 위치는 어디가 가장 적합할까 등에도 일일이 잔심경을 썼다.

그 결과 「관촌수필」은 40년대 후반의 한 시골 집안을 완벽하게 재현해 내고 있다. 대청 마루에 걸린 ‘자주독립’이란 현판 역시 그 시대에 맞도록 낡고 유치한 이미지로 제작진이 만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드라마를 보면 새로운 맛이 느껴지게 될 것이다.

다음 날의 촬영, 제작진은 벌써 그곳에서 16짜 17일째이다. 권소정이 감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 감을 따는



장면구성에서 극적 리얼리티를 갖지 못한다면 연기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드라마의 맛이 나지 않는다. 그 리얼리티는 화면 뒤의 숨은 공로자인 스태프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관촌수필」의 촬영현장에는 연출자를 비롯, 완벽을 지향하는 SBS의 제작스태프가 대거 모여있다.

장면을 영상에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조금 빈약해 보이는 감나무를 촬영 전 스태프 서너명이 달려 들어 그야말로 ‘풍성한’ 감나무로 만들었다. 그 옆에 있는 나무에는 시장에서 긴급 조달한 배를 실로 묶어 이에 배나무로 만들었다.

극적 구성이 탄탄한 드라마일 수록 제작 스태프진의 협力が 중요하다. 이종한 프로듀서가 그림의 완성도를 위해 연기자들의 위치 하나 하나를 교정해 주는 모습이라든지 촬영감독 이성희가 연기자들에게 직접 특정한 표정 연기를 요구하고, 동시에 녹음을 담당하고 있는 유창국이 바람소리 등 효과음의 만족도를 좀더 얻어 내기 위해 “다시 한번”을 외치는 모습 등은 충실한 작품성을 갖춘 드라마일 수록 그 뒤에는 숨은 공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S**

글/김은영 자유기고가
사진/서형식



3부작 「어디로 가나」 다시 불지펴야 할 따뜻한 가족애

- 극본/김수현
- 연출/곽영범
- 방송/11월 13일 밤 8시 50분~11시 50분

우리말 중에 '가정', 또는 '가족'이라는 말 만큼 친근한 단어가 또 있을까. 아무리 세상살이가 고되고 힘들어도 일단 돌아오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해결될 수 있는 곳. 가정은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평화스러운 안식처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시대와 나라가 있겠는가만 우리도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속담인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삶의 좌표로 삼을 만큼 가정을 중요시해 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정은 사랑과 믿음보다는 갈등과 불신이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작은 집단이 되어 버렸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주된 요인은 물질만능주의에서



야기된 이기주의의 팽배라는 지적이다. 특히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하게 엮어주는 '효'의 사라짐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작게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른들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부터 늙은 부모님을 양로원에 버리고 도망가는 현대판 고려장까지 만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효'가 가정을 결집시켜주는 커녕 현대인을 움아내는 구속의 끈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선진 개발도상국으로서 우리가 선진국들에게 유일한 자랑거리로 내세운 효의 사상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바로 이 문제를 정면에서 대응하여 만든 드라마가 김수현 극본, 권영범 연출의 서울방송 창사 2주년 특집극 「어디로 가나」이다.

서울방송의 창사특집극 「어디로 가나」는 변해버린 효사상과 스러져가는 가부장적 위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의 잣대를 주자는 의미로 기획된 드라마이다.



“한마디로 주제는 효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식들의 효와 부모님의 참다운 사랑을 되새겨 보자는 것이 기획의도입니다.”

이 드라마를 기획하고 연출까지 맡은 권영범 부국장의 말이다. 그는 '효'라는 다소 진부한 소재를 가지고 창사특집극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서울방송의 창사이념이 바로 건강한 방송입니다. 오늘날 잊혀져 가는 효를 통하여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서울방송의 창사이념과 딱맞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드라마를 만드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시간이 촉박하다. 방송날짜인 11월 13일에 맞추려면 며칠 밤을 새워야겠다는 것이 스태프들의 말이다. 다음은 무려 세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시청자들을 텔레비전 앞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구성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말이세시간 3부작이지 웬만큼 시청자들의 눈에 들



지 않으면 다른 채널로 돌려버리는 것은 시간문제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결한 문체,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자연스러운 대사, 핵심을 찌르는 언어의 사용으로 가히 국내 최고의 방송작가라는 호칭을 듣는 김수현의 극본이라면 세시간 동안 시청자들을 잡아두는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 극이 작가의 상상의 세계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현실적 이야기인 '효'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리고 주인공인 셋째 아들과 아내 역으로 요즘 한창 사회자로 연기자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송승환과 서울방송의 간판 여자 탤런트인 원미경이 등장하고 그 외 남성훈, 송기운, 오미희, 김자옥 등 시청자들에게 친



오늘날 어느 집에서도 벌어질수 있을법한 이야기인지라 공감과 분노를 느끼는 시청자들도 꽤 많을 듯싶다. 물질만능주의 풍조가 '본의 아닌 불효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김수현의 현실감 넘치는 대사와 구성을 통해 날카롭게 포집어진다.

근한 탤런트들이 캐스팅되어 있다는 점이 스태프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야기는 중풍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운구가 나가는 날, 셋째 며느리의 서러운 울음과 과거의 회상으로부터 시작된다.

교단을 은퇴한 아버지는 젊은날 상처를 하고 홀로 키워낸 아들이 셋 씩이나 있지만 막내 딸 은비와 함께 산다. 하지만 사위가 지방으로 발령

을 받아 더이상 모시지 못하게 된다. 이때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이 모여 병원에 누워계신 아버지의 퇴원 후 문제를 의논하지만 모두 다 모시기를 꺼려하고, 나름대로 이유를 댈다. 결국 서로 안모시겠다는 통에 급기야 서울 번두리에 집을 얻어 간병인을 따로 붙이자는 말까지 나온다. 이 말에 발끈한 셋째 영하는 자신이 모시겠다고 나선다.

그러나 시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한 탓에 지금껏 며느리 대접은 물론 가족으로서의 대우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온 막내 며느리 미숙은 죽으면 죽었지 못모시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시아버지에게 당한 서러움을 토로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영하의 참마음을 깨닫고 시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문제는 무수히 발생한다. 시아버지가 사지를 못쓰니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아버님의 수발을 드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셋째 며느리를 안좋게 생각해온 시아버지의 태도에 불협화음은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하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가장 원수갓 있던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다른 어떤 가족보다도 사랑과 믿음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신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늙고 병든 아버지를 둘러싼 가족들간의 갈등과 그 해결책을 다룬 평범한 드라마지만 작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오늘날 점



서로 고개를 돌린채 살아가던 막내며느리와 시아버지. 결국엔 다른 어떤 가족보다 사랑과 믿음이 있는 관계로 변하지만 그 따뜻함을 제대로 누리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다. "살아생전 효도를 다하라"는 말은 이래서 생겨난 것이다.

차 스러져 가는 나약한 가부장의 모습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체성이 없이 단지 돈이라는 물질만능주의에 휩싸여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남편, 이에 반해서 점차 그 권위가 높아만 가는 아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소외되어 가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리고 있다.

분명히 현대의 가부장은 과거처럼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권위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러나 장보는 남편, 요리하는 남편, 자녀를 보는 남편 등 새로운 가장의 모습도 효도사상의 밑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모습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어디로 가나」라는 드라마의 제목 그대로 우리의 효사상과 가부장의 모습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 모두 지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S**

글/김병욱·자유기고가

사진/서형식

6부작 「동구르포, 다뉴브의 새물결」 전환시대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개혁의 얼굴

- 취재/김웅명 · 양철훈
- 촬영/최남일 · 태양식
- 방송/11월 9일~12월 14일 매주 월요일
밤10시 55분~11시 50분



지난 89년 동유럽 국가들을 휩쓸고 지나간 개혁과 개방의 바람이 불고 지나간 이후, 이들 나라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이념은 이들에게 무엇을 남겨놓았는가. 우리는 지난 8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혁과 개방의 와중에서 표류하고 있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 등 동유럽 여섯개 나라를 집중 취재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아직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그 나라들의 풍물도 함께 담아왔다.

“루마니아에 대해서 묻는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도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체코의 요정 코마네치를



디에서 끝나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지도까지 그려놓고 갖가지 자료를 다 모아서 도상 연습까지 하고 드디어 8월 15일 루마니아를 향해서 80일 간의 취재길에 올랐다.

처음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의 오토펜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공항이 이렇 수도 있는가 하고 눈을 비빌 수밖에 없었다. 우리 나라 시골의 60년대 기차역의 모습과 어찌면 그렇게 흡사한지, 동행한 카메라기자 최남일은 아프리카에도 이런 공항은 없다며 다소 불안한 심정을 감추고 넌지시 말을 꺼냈다. 거기에 총을 든 군인의 모습은 차우 세스쿠 시절 악명이 높던 '세쿠리타테'(비밀경찰)를 연상시켰다

들 것이다. 그리고 시사적인 사건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89년 크리스마스에 처형된 독재자 차우세스쿠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차우세스쿠는 하필이면 크리스마스에 처형돼 독재자에게 걸맞은 비참한 말로로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코마네치와 차우세스쿠 이외에 생가나는 것은?... 우리는 루마니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

처음 동유럽 여섯개 나라를 취재한다는 다소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 취재팀이 부딪친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자료부족이었다. 더구나 다뉴브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차례차례 이들 나라를 취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다뉴브 강이 어디에서 발원해 어



동유럽 여러나라에는 89년 개혁과 개방 이후 자본주의 상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동유럽 거리의 명물인 트롤리버스에 미국담배 광고가 붙어있는 모습도 이전 어색한 풍경이 아니다.

개혁 이후 분명히 많이 달라졌을 텐데 싶은 마음으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부쿠레슈티 시내로 향하자니 이번엔 마차가 부모도 당당히 시내를 오가는 것이 아닌가. 취재팀은 이 장면에서부터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떠올리며 다소 기가 죽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유럽 여러 나라는 들던 대로 많이 변하고 있었다. 개혁과 개방의 바람은 2차대전 이후 이념의 장벽에 꽂꽂혀있던 이들 나라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다. 부쿠레시티 시내에는 코카콜라와 말보로 담배의 간판이 왜 그리도 많은지 시내가 온통 양담배와 콜라의 간판으로 뒤덮여 있었다. 수십년 동안 외부 세계와는 거의 단절된 채 살아온 이들에게 자본주의 상품은 터진 물고치처럼 무차별로 이들 나라에 파고 들었다. 이처럼 동유럽 여러 나라의 경제는 가뜰이나 어려운 마당에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상품으로 아예 휘청대고 있었다.

경제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안고 있는 경제 현실은 참으로 어려워 보였다. 루마니아 1인당 월 평균소득 50달러, 불가리아 1인당 월 평균소득 100달러, 네명 가운데 한명은 실업자. 유고슬라비아의 1인당 월 평균소득 역시 50달러, UN의 경제제재 조치로 휘발유 20리터를 배급 받으려고 3~4 일씩 주유소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유고공화국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있는 주유소 앞에도 차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세르비아에 대한 UN의 경제 제재 조치 때문에 일반 시민들까지 휘발유 20리터를 배급받기 위해 사나흘씩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충 동유럽 여러 나라의 경제 현실은 이러했다. 대규모 중공업 공장들도 폐업 상태와 다름없었다. 과거 이들 동유럽 여러 나라와 옛 소련을 묶어주던 코메콘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들 공장은 판로도 막히고 주문량도 끊어져버렸다. 엄청난 공장 기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녹슬고 있는 현실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개혁과 개방 이후 동유럽의 경제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기에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민족주의가 부활되기 시작했고, 알려진대로 유고슬라비아는 나라 전체가 난장판이 되어있다.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는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니 더 비참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난민만 250만명. 세르비아에도, 크로아티아에도 어딜 가나 난민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 가고 있었다.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인구가 2천5백만명이니까 현재 이 나라의 국민 열명 가운데 한명은 난민인 셈이다. 말로만 들던 난민캠프를 취재하면서 취재팀은 많은 생각을 했다. 종교란 것이 무엇인가? 민족이 무엇이고,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답이 없는 질문들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

세르비아인들에게 남편과 아들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쫓겨난 60대 모슬렘(회교도) 난민 할머니와 인터뷰하면서, 그리고 주름진 할머니의 눈가에서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면서, 취재팀은 전쟁이란 이처럼 비참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간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덜컥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문득 지역 감정이 온 나라에 스며 있는



종교와 민족, 지역감정까지 얽힌 내전에 온나라가 휩싸여버린 유고슬라비아 전역은 폐허가 된 채 난민캠프와 부모 잃은 어린이들로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해 유고 연방에서 떨어져 나갔고 지금은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공화국에서 참혹한 인종 학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옷마을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끼리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은 가까이에서 보



동유럽의 경제는 개혁 이후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코메콘 시장이 붕괴되자 대부분의 중공업 공장들은 폐업상태가 되어버렸다. 아파르트 공사도 중단된채 골조를 드러내고 서있다. 실업과 인플레이, 외채는 요즘 동유럽의 폭풍 짓누르는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동유럽 여러 나라들은 확실히 격변의 흐름 속에 놓여있었다. 한 시대를 청산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간다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가 보다.

예를 들어 지난 45년 이들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정부가 몰수했던 농토와 건물과 공장들은 시장 경제로 돌아선 지금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이 문제 하나만 해도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질 만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이태음로기의 가장 큰 희생자이고, 통일이 되면 비슷한 문제에 부딪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현재 몰수했던 농토와 공장과 집들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았다.

50년 동안 국가가 소유했던 땅이 예전에는 자기땅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하고 정부가 이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또 협동농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농기계는 어떻게 분배할 것이며, 정부가 몰수했던 공장 건물은 되돌려준다 하더라도 공장 안에 있는 기계는 국가 소유인가 개인 소유인가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취재팀은 이들 나라를 취재하면서

과연 이념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 조명해보고자 했다. 도대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통제 경제와 시장 경제 원리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리고 이념의 틈바구니에서 개인은 어떻게 변해가고, 이념은 이들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다.

「동구르포, 다뉴브의 새물결」에서는 이런 여러 현상들을 동유럽 특유의 풍물과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독일에서 발원해 동유럽 여러 나라를 거친 뒤 흑해로 흘러들어가는 다뉴브 강의 풍경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으리라 생각한다. S

글/양철훈 · 보도국 편집제작부

사진/태양식 · 보도국 영상취재부

제1편/‘해체된 왕조 루마니아’(11월 9일)

25년동안 혹독한 독재정치를 펴온 차우세스쿠가 처형된 지 3년. 그후 루마니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본다. 또한 당시 혁명 자료를 통해 차우세스쿠가 처형되는 장면과 함께 차우세스쿠가 남겨놓은 인민 궁전, 그리고 현 일리에스쿠 대통령과의 인터뷰도 소개된다.

제3편/‘민족분규의 전장, 구 유고슬라비아’(11월 23일)

민족주의의 부활과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의 내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특히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사이의 내전으로 폐허가 된 마을과 난민 캠프의 참상을 생생히 소개할 예정이다.

제5편/‘프라하의 봄 그 후 25년, 체코슬로바키아’(12월 7일)

지난 68년 프라하의 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가 밟아온 민주화 과정과 최근 들어 일고 있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리 독립 문제를 알아본다.

제2편/‘홀로서기의 고인, 불가리아’(11월 16일)

코메콘 시장과 옛 소련의 붕괴에 따라 불가리아 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집중 조명해 본다. 이와 함께 불가리아 농촌의 풍경과 해체되고 있는 집단농장, 그리고 젤류 젤레프 대통령과의 대담도 소개된다.

제4편/‘서구화의 선두주자, 헝가리’(11월 30일)

동유럽 여러 나라 가운데 비교적 모범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걷고 있는 헝가리의 현모습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뒤 동유럽국가에 불고 있는 서구식 퇴폐의 현상도 소개된다.

제6편/‘그다니스크의 함성, 폴란드’(12월 14일)

바웬사의 자유노조와 폴란드의 민주화과정, 그리고 사회주의 시절부터 계속돼 온 폴란드의 공해문제 등을 소개한다.



특집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 취재/신동욱·박홍로
- 촬영/김영창
- 방송/11월2일~5일
밤10시55분~
11시50분



4부작 해외기획 「숨쉬는 국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미래향을 위하여

현재 지구상의 삼림지대는 1초에 600명씩 파괴되고 있다. 1957년에는 지구의 4분의1이 울창한 삼림지대였지만 서기 2000년에 가면 17퍼센트만이 삼림지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한다. 자연, 특히 삼림은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손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삼림뿐만 아니다. 인간이 일궈낸 물질 문명의 부산물인 각종 공해가 생명이 붙은 모든 것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생물학자들은 앞으로 20년 안에 유럽에서만 식



물 2만5000종, 동물 10퍼센트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 오존층의 파괴도 예삿일이 아니다. 남극 고도 13~17킬로미터 상공에서는 이미 오존층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1주일마다 한반도보다 큰 23만 평방킬로미터의 오존층에 큰 구멍이 나고 있다. 지구에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한다는 미명 아래 저질러진 무분별한 개발이 인간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길은 없는가. 유일한 대안은 개발과 성장 위주

의 정책을 수정하는 길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이미 궤도수정을 한 지 오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게 주어진 고민은 또 다른 데 있다.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한정된 국토에서 마냥 방치할 수만도 없는 고민을 우리 나라는 떠맡고 있다.

개발이나, 보존이나. 그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당위성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양자의 합의점인 '보존적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인간과 자연을 갈등 구조가 아닌 공생관계로 맺게 할 방법은 우리에게 없는가.

국토의 보존적 개발을 주제로 하여 마련된 이번 창사특집 해외 기획 「숨쉬는 국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취재 대상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내개 나라와 일본이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우리 나라와 비슷한 자연조건에 개발의 진통을 이미 겪었고 보존에 눈을 돌리고 있어 우리 나라가 모델로 삼을 만한 가치를 지녔다는 판단에서였다.

취재 대상은 방대했다. 삼림과 강,

자연이 숨을 못쉬면 인간 역시 숨을 쉴수 없게 된다. 인류는 이제 개발이나 보존이나의 갈림길에 섰다. 인간과 자연의 부조화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바다 등 인간과 자연이 맞물리고 있는 모든 것과 인간이 살고 있는 도시와 특히 골치 아픈 교통문제를 취재 대상으로 한정했다. 국토 이용의 실용적 모델을 찾기 위한 취재팀의 작업은 이렇게 시작됐다.

영국의 에브베일, 웨일즈 주의 한 모퉁이에 자리잡은 이 마을은 지난 19세기의 화려했던 대영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제철단지이다. 빅토리아 여왕까지 이 마을을 찾아와 대영제국의 견인차라고 치하할 정도였다. 그러나 개발의 대가는 무서웠다. 제철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공해로 인해 에브베일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자연파괴 지역으로 변해갔다.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다. 에브베일의 주민들은 자연의 고귀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푸르름을 찾기 위한 노력은 100년 동안 이어졌다.

지금 현재 에브베일엔 꽃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인간의 개발이 오히려 인간을 살 수 없게 만든 역사의 아이러니를 후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연의 훼손은 곧 인간 삶의 파괴로 이

정지대모보다
환경대모가
시민들에게 더 큰
반응을 얻고 있는 데가
유럽이다. 대통령에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라고 요구할 만큼
유럽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강경하고
높다. 그런 단체의
존재조차 미미한
우리의 현실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 아닐수
없다.



어진다는 준엄한 경고를 함께 보여주 고 있다. 영국의 에브베일은 많은 제철단지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환경보존이 병행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굴뚝과 차량에서 뿜어내는 매연으로 인간의 호흡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목소리는 유럽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스위스의 취리히 시, 일요일 오후 취리히 호수 주변은 돌맹이와 쇠루탄이 난무하는 격렬한 데모가 휴일의 낭만을 삼켜 버렸다. 유럽 환경단체의 공해 추방 데모가 벌어진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도시 안의 각종 차량을 없애라는 것, 매연을 배출하는 자동차는 도시로 운행할 수 없게 하라는 것이다. 정지대모보다 환경대모가 더 큰 시민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오늘날 유럽의 현실이다. 대통





령이 자전거를 타고 집무실로 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환경단체들이 궁극적으로 그리는 모습이다.

스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자연보존 노력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해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흑림지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뿔뿔히 들어선 나무들로 낮에도 앞이 안보인다는 흑림지대는 산성비와 매연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었다. 현재 흑림지대의 삼림 60퍼센트가 유럽 각국의 매연으로 파괴되고 있다.

삼림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강과 바다에도 유럽의 보존 노력은 기울여지고 있다. 대부분의 강들이 유럽 각국을 거쳐 흐르고 있고 해상도 몇개국에 걸쳐 있어 이들의 환경보존 노력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토개발의 한계에 다다랐음을 깨닫고 있다.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개발이라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이 이미 겪은 몸살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된다. 우리에게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 개발이 안된 - 국토가 널려 있다. 선진국이 개발 후 파괴된 자연을 되살리는데 개발보다 더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렀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하다. 국토의 효율적 개발, 그러나 개발은 인간과 자연을 모두 살게 하는 조화로운 개발이어야 한다.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은 결국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

1주일마다 한반도보다 더 큰 크기의 오피존층 구멍이 뚫리고 있다. 선진국들이 개발 후 파괴된 자연을 되살리는데 더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렀음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에게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국토가 많이 남아있다.



J. 당신이 터 잡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는 벌써 서리가 내리고 발정난 솟아슴의 울음소리가 산 골짜기를 찌렁찌렁 울리고 있겠군요. 뱀이 잠들기 전까지는 들국화 흐드러진 뒷동산에도 못올라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어스름 저녁 산책을 즐길 수 있겠군요.

어떻습니까, 모두가 반대한 산골행 신점살림이. K형의 의지가 워낙 견고하여 말들을 꺼내지 않았을 뿐, 누구 하나 당신들의 서울 탈출에 맞장구 친 사람은 없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은행잎이 물들 무렵 떠나셨으니 1년 덕을 넘어가는군요. 우리가 당신들을 곁에 붙잡지 못한 것은 K형이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결연히

2부작 「서울 영상리포트」 그래도 서울은 살만한 곳아니던가

- 구성/윤석미
 - 연출/윤동혁
 - 촬영/장상일
 - 방송/11월 10일~11일
- 밤 10시 55분~11시 50분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말을 J, 당신은 표정없이 받아 들였지요.

우리가 자연으로 떠나는 것은 우리 의지일 뿐 태어날 아이들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그런 말을 했대지요. 그렇다면 그런 절대 고통을 겪어 지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당신들의 등을 떠다빈 서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들을 끌어들이는 자연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J, 언젠가 비오는 날 인사동 찾집에서 작설차를 우려주며 당신은 이런 질문을 했지요.

“하루에 서울사람들이 먹어 치우는 돼지가 몇마리쯤 될 것 같아요?”

저는 경복궁 쪽을 향한 창가에 들

서울에 살면서도 서울을 굽지 않은 눈으로 보고 살기 힘든 곳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혹시 우리는 서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건 아닐까.



국화가 한아름 늦추진자에 꽃혀있고 「아르페지오네」의 선율이 환상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런 질문을 당하여 좀 김냈지만 “글쎄... 한 500마리?” 하고 당신을 쳐다보았더니 너무 동떨어진다는 표정을 짓기에 “그렇담 한 2,000마리쯤 되나?” 하



고 얼마무렸지요. 당신은 그 말에 답하지 않고 질문 하나를 더 던졌습니다.

“서울이 건달만 하세요?”

“.....”

J, K형과 당신이 떠나고 난 서울은 너무 황량해서 한동안 저는 낙오자처럼 지냈습니다. 서울 탈출에 성공한 두분이 부러워 소주잔을 기울이면 당신들의 낭랑한 웃음소리가 술잔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들국화, 사슴, 저녁연기... 그러나 무엇보다도 밤하늘의 별. 그놈의 별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당신들의 눈동자가 물 머금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을 생각을 하면 저는 북받쳐오르는 질투를 가누지 못하고 마구 소주잔을 털어 넣었습니다.

서울의 교통지옥과 무질서, 그리고 쓰레기는 가히 세계 최상급이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해보자. 과연 서울의 구석구석엔 그렇게 나쁜 것들만 있는걸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한강과 그 강을 보듬어안고 사는 사람들, 남산에 올라 내려다보는 서울은 아름답다.

J. 단 한번 당신의 편지를 받은 게 지난 여름의 끝무렵이었죠. “자연을 누리는 대가가 참으로 비싸다”고 당신은 썼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여파가 우르릉 쾅쾅 사슴목장을 덮쳐 급년의 녹용과 녹혈 농사가 지난해만 못하고 사료값은 더 뛰었다는 이야기 - 그러나 소 키우다 자빠져서 돼지 키우고, 그나마 쓰러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손넌 영세농민들의 사슴목장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 농민들은 이제 어찌해야 되나요? 당신들이 걸어갔던 길을 거꾸로 되짚어 서울로 서울로 향하겠지요.

J. 당신이 ‘인사동 퀴즈’의 정답을 말해주지 않고 떠났으므로 저는 그 해답을 스스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교보문고에 들러 「통계로 풀어보는 서울시 행정」이란 책을 5,800원 주고 사왔습니다. 거기엔 많은 퀴즈와 답이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돼지는 8080마리이고, 소는 887마리이더군요. 매일 227쌍이 결혼식을 올리고 26쌍이 또 남남이 된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

록 지겨워한 쓰레기는 8톤 트럭으로 3737대나 쏟아져나오고... 참 농촌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군 청소차가 그곳까지 수거차를 보내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J. K형과 당신의 의지는 여태 건고한가요?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생각에도 변화가 없습니까? 혹시 때때로 번잡한 서울의 밤거리가 그림지는 않나요?

이런 부질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저 역시 서울에 남아서 몽기적거리며 살고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일 것이고 여전히 당신들의 서울 탈출을 질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J, 서울에도 미덕은 있기에 마련 아니겠습니까? 박찬봉이라는, 열네살짜리 소년은 목수 일을 하는 농아 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청각장애자 복지회관에서 수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중림시장 모퉁이에서 야채 행상을 하는 진금순 여인은 27만원 하는 식달치 학원비를 한번에 낼 수 없어 혼자 공부하는 재수생 아들 생각으로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지 않다지만 “곧 마련해야죠”라며 웃습니다.

20년을 외골로 옥돌에 상형문자를 새기고 있는 현암 최규일 선생은 미아리의 낡은 한옥집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내 터다.”

J, 조만간 철거되리라는 중림시장에서 진금순 여인과 함께 쭈그리고 앉아 천원짜리 옛날 국수를 맛있게 먹고 서울역쪽 육교를 올라서는데,



아... 모든 빌딩과 빌딩에 윤곽을 만들어주며 마구 동터오는 서울의 햇살을 온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K형과 J도 저와 함께 있다는 생



서울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로서는 서울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다. 「서울영상 리포트」의 리포터인 프랑스사람 마리즈 부르댕의 눈을 빌려 서울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보자. 그는 서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볼수 있도록 해준다.



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엔 인사동에 가서 작설차를 들며 「아르페지오네」를 들었습니다. 경복궁 쪽 창가엔 그날도 들국화가 한아름 꽃혀 있었습니 다. S

글/윤동혁·TV제작국 기획특집부 부장대우

외국인이 해몽해주는 서울의 꿈

「서울 영상리포트」에서 리포터로 등장하는 마리즈 부르댕(Maryse Bourdin)은 올해 서른 두살이다. 프랑스 남부 아노네 출신으로 파리 제1대학을 졸업하고 86년 6월 한국에 와 87년 3월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입학, 90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후 불어강사로 활동하며 한국 문화 연구 등에 몰두하고 있다.

1년에 한번쯤 고향에 갈 때는 김치와 된장을 꼭 챙겨갈 정도로 한국음식에 매료되어 있으며 새벽 4시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울의 활력에 존경을 금치 못한다. 좋은 책과 영화를 볼 수만 있다면 평생 독신으로 지내겠다는 그는 서울에서 지낸 6년동안 여섯차례나 이사를 했으며 그러는 동안에 서울의 구석구석을 흥미롭게 살펴봐왔단다. 「서울영상 리포트」는 마리즈의 시선으로 흘러가며 우리는 그와 함께 서울을 여행하게 될 것이다.

첫번째 이야기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에서 마리즈는 서울을 나름대로 색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주택·교통·공해·상수도·교육...서울은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잔뜩 쌓아놓은 창고처럼 묘사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기도 하나 마리즈의 생각은 좀 다르다. 예를 들면 교통문제만 해도 '이 세계의 매미드 수도 가운데 서울처럼 교통이 편한 나라도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시내버스를 타고 산 동네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심지어는 광릉의 수목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두번째 이야기는 「어느 곳에서 꿈을 꾸고 계신가요?」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꿈을 꾸다. 많은 서울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는 꿈을 꾸고 또 많은 지방사람들은 서울로 가는 꿈을 꾸다.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은 전 생애를 걸고 고향 꿈을 꾸다. 왜 서울로 가야 하고 서울을 떠나야 하며 서울을 미워하면서 또 서울에 집착하는가. 마리즈가 관찰하는 서울 사람들의 꿈. 과연 그는 어떤 '꿈의 해석'을 내릴까. 꿈보다 좋은 마리즈의 해몽을 들어보자.



2부작 「수난시대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위협받는 삶, 멀고 먼 조국

- 구성/송지나
- 연출/손양덕
- 촬영/장상일
- 방송/11월 17일~18일

밤 10시 55분~11시 50분

열다섯 개의 나라로 갈라진 소련에서는 지금 '타민족 배척주의'가 들끓고 있다. 그 속에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동포들의 엑소더스는 시작되었다.

내전중인 타지크스탄 공화국에선 이미 3,000여 명의 고려인이 탈출하였다. 20만명의 동포들이 살고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수많은 동포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칼발과 진팔'에서 개척했던 고려인 집단농장들은 모두 토박이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투르크메니스탄 등 다른 신생국에서도 동포들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중앙아시아 동포들.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넓디넓은 소련 땅에 갈 곳도 오라는 곳도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지



난 8월, 동포 청년 70명이 모스크비치와 라다 등 소련제 자동차를 타고, 알마아타를 출발하여 시베리아를 거쳐 조국으로 향하는 대 카라반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1937년 이후 55년 만에 그들의 부모와 조부세대들이 화물열차에 실려 떠나 왔던 그 길을 되짚어 달려갔다. 누군가는 이 길을 '핏길'이라고 했다.

이 길고 험난한 여정에 취재팀이 함께 하여 일찌감치 중앙아시아를 떠나와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을 만나고, 연해주를 여행하며 한때 동포들이 낙원을 이루었던 마을과 들녘들도 화면에 담았다. 그리고 동포 청년들의 강한 집념과 좌절의 노정을 살펴보았다.

8000킬로미터의 긴 여정 끝에 그들은 두만강에 다다랐지만 마지막 회

구 소련 곳곳에 퍼져있는 동포들 중에서도 특히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은 지금 고단하고 척박한 지경에 처해있다. 그들에게 조국은 너무나 먼곳에 있는 피안의 땅일 뿐이다.

망이었던 조국을 눈앞에 두고도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과연 그들은 우리에게 잊혀진 백성인가...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소련의 조선족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앙아시아로 옮겨져 정착해야만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려인', 또는 '조선사람'이란 세월 지난 호칭으로 부르며 숙청과 죽음으로 이어진 모진 세월들을 이겨내고 불모의 유흥지에 남부럽지 않은 생활기반을 이룩해 놓았다.





자신들의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가
좌물차에 실려
떠나왔던 그길을
되짚어 달려가며
동포청년들은 삶의
뿌리를 찾아보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두만강에서 가로막혀
버린 길을 보는 그들의
눈에서는 희망 대신
눈물만이 빛날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함께 밀어닥친 민족주의와 이슬람의 열기 속에서 애써 쌓아 올린 기독교를 박탈당하고 있다.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사막에서 옥토를 일구어냈지만 곳곳에서 민족 차별과 가혹행위들이 돌발하는 최근의 정황들은 강제이주시대의 공포를 되살리게 한다.

각 민족국가 설립에 따른 소수 민족에 대한 박해로 독일인, 그리스인, 유대인들은 모두 제 땅을 찾아 중앙

아시아를 떠나는데 조선사람들은 정작 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국가간에 수교는 됐다 하지만 아직도 조국은 그들에게서 멀고 또 멀었다.

“살 방법이 없다”, “장차 우리 어디에 살겠는가”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동포들. 희망을 찾을 길 없어 안타까워하는 동포들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재 동포들이 처한 현실을 기록하기 위해 취재팀은 모스크바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를 거쳐 극동 연해주에 이르는 소련 땅 구석구석을 돌았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소련 동포들의 현재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난시대를 맞이한 동포들의 삶을 만나면서, 조국이 그들에게 해준 것, 해줄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5

「소리의 고향을 찾아서」 빛바랜 사진같은 고향의 향기

- 연출/박건삼
- 나레이터/양지운
- 방송/11월 12일~14일
밤 9시 30분~10시



“보일듯이 보일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리, 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
메이노,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
돋는 나라” 한정동의 노랫말에 윤극
영 선생이 곡을 붙인 「따오기」란 동
요이다. 40대 이후의 사람들이라면
어린 시절 한번쯤은 불러본 기억이
있을테지만, 그러나 이젠 이 노랫말
조차 기억에서 아물거릴 게다. 이 동
요를 쓰신 한정동 선생님과 윤극영
선생님 두분은 모두 작고하셨고, 이
동요의 주제가 된 새 따오기는 79년
휴전선 비무장지대 대성동 자유의 마
을에서 그 자취를 감춤으로써 우리
나라에선 완전히 사라져버린 새가 되
었다.

「소리의 고향을 찾아서」를 제작
하는 동안 산업사회로 변천해 가는
과정에서 인간들의 삶의 소리, 일상
을 살아가는 필부들의 질박한 삶의
소리 -북청 물장수들의 물지게 소
리, 새우젓장수 엿장수의 가위질 소
리-들을 비롯해서 이젠 고향에 찾아
가도 다들이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여
름철 초가지붕 위에 핀 흰 박꽃을 구
경하기도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새
삼 확인했다.

서울 시내의 까치는 거의 대부분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평화의 상
징인 비둘기는 거지새로 전락,중금속
에 심하게 오염된 채 청소차 꿈무니
나 쫓아다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인데
하물며 따오기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
지고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지난 여름 몇몇 동료들과 열목어가 서식한다는 '내린천' (강원도 인제군 소재)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별들이 가슴으로 쏟아지는 그 비포장길에서 개구리 합창소리를 들으며 "아! 바로 이 소리들이다. 도시인들이 그리워하는 소리, 풀벌레, 여치, 여름밤 논두렁에서 붓물 터지듯 쏟아지는 개구리들의 합창소리, 이런 고향의 소리들을 엮어서 특집으로 만들 수 없을까"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고 우리의 사라져 가는 한국의 소리, 그 원형들을 추적하여 도시인에게 고향의 소리를 되찾아 주고 연초록빛 해맑은 한국인의 심성을 일깨워 주자는 뜻에서 이 특집을 기획하게 되었다.

인간에게 있어 향수란 무엇인가? 늦가을 해질 무렵 어느 시골 촌마을에서 듣는 먼 기적소리, 산사의 절종소리에 와락 눈물이 나는 건 무슨 연유일까?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듯이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한다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할 게 있겠는가.

아파트 일층에 사는 나는 이따금 우리집을 방문하는 귀뚜라미를 만난다. 아이들이 이게 무슨 벌레냐고 묻는데, 고향이 없는 아이들에게 귀뚜라미를 설명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귀뚜라미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옛날 한양의 목로주점에선 창가에다 팔도에서 잡은 귀뚜라미를 올려놓고 손님들의 향수를 달했다고 한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단장'이라고 하여 애끓는 톱소리

에 비유를 했는데 늦은 가을 밤 처마 밑에서 울어대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노라면 아무리 목석같은 남자라도 콧잔등이 시큰거리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고향을 떠난 지가 30여 년이 지난 지금, 특별히 고향에 무슨 뜨거운 연정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린 시절 내가 살던 고향집 대문을 들어서면 "우리 강새이 왔나"하며 버선발로 뛰어 나와줄 할머니가 살아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한다.

'앞번 논가에선 개구리들이 소낙비 소리처럼 울어대고 삼밭에선 오이 냄새가 풍겨오는 저녁, 마당 한 귀통이에 엉덩귀 다복쑥 이런 것들이 생짜로 제법 독기가 있는 것이나 다만 모깃불로만 쓰이는 외에 값진 여름밤의 운치를 지낸다. 달 아래 호박꽃이 화안한 저녁이면 군색스럽지 않아도 좋은 넓은 마당에 이 모깃불이 피워지고, 그 옆에 멍석이 깔려지고 여기에서 여름살이 다듬어질 이 한창 벌어진 다.'

노천명 시인의 '농가찬가' 중에 나오는 귀절이다. 바로 「소리의 고향을 찾아서」는 바로 이런 정경을 소리에 담으려고 시도했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다. 이 조출한 특집을 준비하면서 나는 문득 이런 상념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늘상 그곳에 있는 산을 오르면서 감히 정복이라는 말을 쓰는 인간들이, 자연보호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과연 알고나 있을까? 황새와 크낙새, 뜸부기, 따오기

내년이면
예순여덟이라는
천순권 할머니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열여덟살에
시집 와서 50년 동안
삼베를 짜며 살아온
그로서는 요사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산 배 때문에 전통
안동포가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도무지 예상일 같지
않은 까닭이다.



가 사라지고 메뚜기가 나타난들녘이
무궁해 쌀 생산지로 대서특필되는 세
상인데 왜 따오기는 돌아오지 않는
가?

뽕안 먼지가 이는 신작로를 따라
버스를 타고 가노라면 풀풀 날리는
먼지까지도 향기로운 곳, 그 고향의
모습이 고향의 소리들과 함께 아작은
우리들 가슴 속에 불박이 사진처럼
고정돼 있는 건 나이를 먹어가는 탓
일까?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 이웃집 얘기로 듣고 있을
때, 우리의 환경은 결코 우리 인간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다. 따오기가

사라진 사실 그 자체는 중요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새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은 언젠가 우리 인간이 살 수 없
는 환경으로 바뀔 것이고 인간이 파
괴한 환경 속에서 점차 우리들마저
사라지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고향 마을에 켜지는 등불을 바라
보는 것은 인간의 얼마 안되는 행복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는 어느 작가
의 말이 이 특집을 만드는 동안 내내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5

글과 사진/박건삼 라디오국 부국장대우 제1부장



「태평양 종단퀴즈」 땀과 오기로 건너온 태평양 퀴즈탐험

- 진행/이계진 · 이영현
- 연출/최홍철 · 이상훈
- 방송/11월 9일~11일 저녁 8시 10분~8시
11월 12일 저녁 7시~8시

1992년 8월 23일 오전 7시. 김포공항에는 수학여행 가는 학생도 아닌 60여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부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방송장비만 해도 1.7톤, 거기에 개인의 짐까지 더하면 거의 가공할만한 무게의 짐을 앞세우고 우리는 태평양 탐험의 긴 장점에 올랐다.

처음에는 일종의 오기로 시작한 엄청난 계획이긴 했지만, 점차 실행에 옮겨지면서 한국방송사상 이만한 장비와 인원의 해외출장이 최초란 사실, 그리고 민영방송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 타방송사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란 사실에 벅찬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계획이었기에 위험도 많은 것은 당연지사. 국내에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토록 많은



해외나들이란 그 팀의 숫자가 많으면 힘들어진다. 하물며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여행일 때는 더욱 그렇다. 「태평양 톤단 퀴즈」 팀이 그 엄청난 규모의 일정을 무사히 마칠수 있었던 것은 '방송을 위하여 한번 해외'는 결의가 낳은 맘과 오기가 바탕이 되었다.

인원과 장비로 인해 해외에서 직면하게 될 돌발사태들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궁리 저 걱정으로 무거운 머리를 비행기 의자에 기댔 즈음, 우리 일행을 실은 비행기 동체는 서서히 창공으로 올랐다.

“그래, 시작이 반이라고 모든 걱정은 한국에 남겨두고 일단 가서 부딪쳐 보는 거다.”

거의 해외 나들이는 처음인 참가자들의 기대와 긴장 속에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섬 보르네오의 쿠칭. 아마존과 함께 세계 산소 공급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이 보르네오섬 원주민들의 때묻지 않은 생활 모습을 어떻게 퀴즈로 연결하여 화면에 담을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였다. 참가자들의 방 배정이 끝난 후에야 시작한 스

텟회의에서 우리는 이 숙제를 놓고 새벽 2시까지 머리를 싸매야만 했다.

다음날 아침,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일정이 시작되었다. 원주민의 독침 사격과 톤나무를 이빨로 들 어올리기 등, 갖가지 게임과 퀴즈로 진행되는 동안 위낙 산골인지라 이동이 어려운 중계차를 번번이 다시 세팅해야 했다. 결국 기술 스태프들과 우리 진행자들의 몸은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어 버렸다.

말레이시아에서의 둘째날, 드디어 우리가 염려하던 복병이 찾아왔다. 방금까지 쟁쟁 내리쬐던 해를 가리면서 갑자기 그 유명한 열대의 소나기, 스콜이 쏟아진 것이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이 폭우에 카메라맨과 오디오, 전기효과 등 기술쪽을 맡고 있던 스태프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장비를 몸으로 가리는 희생정신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그만한 희생으로는 부족했는지, 30분 가량의 폭우가 지나간 뒤 하늘은 언제 그랬나는 듯 맑게 개었는데 정작 전기장치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이었다. 한시간이 지나고, 두시간이 지나고, 전기



참가자의 대부분은 대학생이었다. 그리고 무대는 문화와 생활방식이 다른 낯선 땅이었다. 일정도 딱딱했다. 예기치 않은 상황과도 자주 만났다. 그러나 퀴즈는 재미있는 것이다. 「태평양 종단 퀴즈」는 낯설고도 재미있는 체험을 시청자에게 안겨줄 것이다.



효과를 담당하는 양문규의 땀에 젖은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 해는 어느새 기울어가고, 정말 미쳐 버릴 것 같은 순간이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양문규 씨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다시 전기장치가 작동이 되었을 땐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아, 보르네오섬에서 흘린 땀맛, 그 맛은 정말 짭다.

딱딱한 일정 때문에 촬영도 강행군이었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인원통제였다. 대학생이 대부분인 참가자들 사이에 대표자가 정해지더니, 나흘째가 되던 날부터 자기들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단체 행동, 출연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이들의 행동에, 가뜰이나 바쁜 일정에 지쳐있던 스태프들로서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대립도 잠깐, 서로가 '방송을 위해서'라는 공동목표 덕분에 우린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었다. 두번째 안도의 숨을 쉬었다.

세번째 위기는 태국 고무농장 촬영 때 일어났다.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농장주의 허가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건만, 한창 학생들에게 고무액을 채취해오도록 하는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늙은 농장주가 나타나서 노발대발하는 것이었다. 당황해하는 우리에게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으르면서 농장주가 요구한 것은 학생들이 망쳐놓은 고무나무 30그루에 대한 배상금으로 우리 돈 8만원 정도. 긴장했던 우리는 그 액수에 안도의 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하루 살얼음 밟듯이 지나가는 촬영 일정 속에, 태평양 종단 여행의 최대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푸켓 섬에서 두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섬 제임스 본드에서의 기억은 지금도 소름끼치는 추억으로 떠오른다. 처음 도착해서는 강풍으로 꼼짝도 못한 채 세시간을 기다렸고 끝내 최후의 수단으로 동굴 속에서 녹화를 시작할 즈음에는 아예 카메라 한대가 완전히 고장나 버렸다. 얼굴을 때리는 모래바람에 탁자가 날아가고, 카메라 두대만으로 이루어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촬영은 겨우겨우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약과였고 이날 최악의 하이라이트는 돌아오는 길에 생겼다. 지체된 시간 때문에 썰물때가 되어 섬위에 올라앉아 버린 배위에서 밀물을 기다렸던 우리가 겨우 섬을 빠져나온 것은 이미 캄캄한 밤이었다. 게다가 배가 출발하자마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소리치는 가이드와 당황해하던 선장. 한옆에서 웅크리고 기도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말을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끔찍한 시간이 지나고 푸켓 섬에 도착했을 때 선장의 말이, 자기도 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나... 아, 정말 끔찍한 하루였다.

때로는 45미터 상공에서 뛰어내리는 점프대 위로 참가자를 밀어올리면서, 또 때로는 한밤중에 라면을 찾는 출연자를 위해 모두 문닫은 낯선 상점가를 뒤흔들면서, 우리의 여행은 어느새 호주의 시드니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많은 어려움과 피로를 건디

고 드디어 오페라하우스 앞에 이른 것이다. 어려움이 있었기에 더욱 매력 있었고 애착이 갔으며 더 많은 정열을 쏟고 싶었다.

가끔 주위 사람들이 묻곤 한다.

“태평양 종단 퀴즈, 어때요?”

질문을 던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 난 말하고 싶다. 일단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에 얘기하자고. 아무리 역경과 고비가 있었다 해도 프로그램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일 것이며 아무런 빛도 발하지 못할 테니까.

고생한 스태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연출진은 오늘도 편집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많은 고생과 땀방울들을 헛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S**

글/이상훈 · TV제작국 제작2부

1만명의 퀴즈왕
중에서 뽑힌 왕중왕,
「태평양 종단 퀴즈」의
최종 우승은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4학년에 다니고 있는
정우석 군이
차지했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우승기를 흔들며
그는 아마 최고의
졸업선물을 받은 듯한
감격에 겨웠을게다.

「기쁨주고 사랑받고」

“SBS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보여드립니다”

• 방송/11월 14일 아침 6시~밤 9시

프로로그/「영상구성 SBS - 기쁨주고 사랑받고」

• 방송/아침 6시 10분~6시 40분

1990년 11월 14일 창립에서부터 새로운 민방으로서 훌륭히 자리매김에 성공한 오늘, 그리고 방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일등 방송으로 도약하는 SBS의 미래, 그 청사진을 각계에서 보내온 축하메시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서 영상축시도 함께 담았다.

위성 생방송 「여기는 태평양」 (1~4부)

• 방송/아침 6시 40분~8시 55분

호주 본다이 해변에 설치한 임시 스튜디오에서 개그맨 주병진과 최영주 아나운서가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21세기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동남아, 호주 등 태평양 연안국들의 삶의 현장과 창사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태평양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생방송 행복찾기 - 우리가 서로잡은 손」

• 방송/아침 10시~낮 1시

창사 2주년을 기하여 93년 연중 캠페인 ‘장애인도 우리처럼’을 전개하는 SBS는 소외된 이웃인 장애인에 대한 특집을 마련한다. 장애인들을 스튜디오로 초대하여 그들의 건강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진솔한 삶의 모습을 영상구성으로 소개하고, 방송 당일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자원봉사자 접수창구도 마련한다.

「아름다운 남산」(1~3부)

• 방송/낮 1시 10분~4시 20분

서울의 상징인 남산의 재모습을 되찾기 위한 ‘남산자랑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청자들과 함께 잊혀져가는 남산의 자연과 역사적 의미를 찾아 보고자 한다. 팔각정, 식물원, 국립극장, 남산 순환 도로를 연결하며 벌어지는 ‘남산골 딸각발이’ 공연, ‘남산 주변 동대향 민속놀이 한마당’ 등 여러 행사가 펼쳐지고, ‘남산의 역사와 풍수’ 등 남산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소개된다.

창사기념 축하공연 「기쁨주고 사랑받고」

• 방송/저녁 6시 30분~8시

창사 2주년을 자축하며 SBS의 탄생, 현재, 미래, 축하공연 등 4부분으

로 구성된 초현대 대형 특집쇼로 우선 'SBS 탄생'을 세대지와 아이들의 뮤직비디오로 선보이고, 'SBS 현재'에서는 SBS 프로그램의 타이틀곡을 메들리로 편곡하여 각 프로그램의 특색을 뮤직컬로 공연한다. 이어서 화약·레이저·인공위성·신디사이저 연주를 조화한 초현대적 공연 'SBS 미래'가 이어진다. 끝으로 대형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화려하게 마무리를 장식한다.

창사특집기획 「SBS 8 뉴스」

• 방송/밤 8시~9시

편성의 차별화 정책으로 한시간 일찍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는 「SBS 8 뉴스」가 창사 2주년을 자축하며 시청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템을 선정, 집중 취재한 심층 취재물과 SBS 연중 캠페인 '장애인도 우리처럼'을 주제로 한 특집물을 마련하여 시청자를 찾아간다.



특집 프로그램/오락·행사·공연

시청자와 함께 나누는 기쁨의 대행진



「SBS 시청자 대행진」

• 연출/안용수

• 방송/11월 12일 저녁 5시 30분~7시

창사 2주년을 맞이하여 방송의 수용자이며 적극적인 참여자인 시청자와의 '만남'의 시간으로 마련된 자리 「SBS 시청자 대행진」이다. 「알뜰살림 장만 퀴즈」, 「생방송 행복찾기」, 「사랑의 중계차」 등 그동안 시청자가 주인이 되어 온 프로그램에서 '스타'가 되었던 사람들이 인기 가수, 연기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방송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나 생활하면서 겪었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나누고, 가족이 함께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이 자리에는 일반 시청자, 방송 유관인사, 학계 등에서 보내온 다양한 창사 축하 메시지 모음이 도착하고 '3대 가족 에어로빅 페스티벌' '집단 체조 시범 피날레'가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돋을 예정이다.

「해머 서울 공연」

•연출/정동현

•방송/11월 15일 오후 3시 30분~4시 40분

세계적으로 명성을 누리는 랩음악 스타 해머가 서울 공연을 갖는다. 1988년 「Let's Get It Started」로 데뷔하여 최초로 랩뮤직을 유행시키고, 1천만장 이상의 레코드 판매 실적을 다지고 있는 해머는 1991년 그라미상 3관왕, 아메리칸 어워드 5관왕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팝음악계의 역사적인 가수이기도 하다.

서울방송 창사 2주년을 맞아 'L. A. 한·흑 갈등 해소'라는 주제로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2회 공연으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이번 서울 공연은 무대를 압도하는 정열적인 춤과 해머 특유의 랩으로 관객들에게 열띤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한국 수퍼모델 콘테스트 1,2부

•방송/11월 28일 저녁 6시~8시

가슴 부푼 아가씨라면 예쁜 옷을 입고 폼나게 걷는 패션 모델의 꿈을 한번쯤 꾸게 마련 아닐까? 서울방송 창사 2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한국 수퍼모델 콘테스트'는 이런 아가씨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제13회 세계 수퍼모델 선발대회에 나간 한국 대표를 선발하는 자리

이기도 한 이번 행사에서는 포드모델사의 아이런 포드 회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SBS 임원, 국내외 패션 전문가, 학계, 유명인사 등 스물한명이 심사를 맡고, 한국수퍼모델 한명, 1, 2, 3위 각각 한명을 포함하여 각선미상, 헤어스타일상, 포토제닉상을 선발한다. 국내 최초의 고급 패션모델 선발대회인 '한국 수퍼모델 콘테스트'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이 한껏 발휘되길 기대해본다.

「SBS 총집합」(1,2부)

•연출/이남기

•방송/11월 13일 저녁 6시~8시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 보는 일반 큰 가슴 설레이는 게 또 있을까. 알곡은 추수하여 앞으로 갈 길 위에 씨앗으로 뿌리고, 흑 쪽정이가 있었다면 그 토양과 쏘았던 수고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던가 반성해 볼 일이다.

대형 특집쇼 「SBS 총집합」은 2부에 걸쳐 펼쳐진다. 1부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 문성근이 'SBS 1년을 알고 싶다'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깜짝 비디오 퀴즈쇼'와 서세원의 인기가요 기네스, 드라마 주인공 총출동, 라디오 소개, 신진 가수 쟁 콘서트에 마련되며, 2부에서는 외국 유명가수의 축하 공연, SBS가 낳은 스타 퍼레이드, 신세대 가요제 대상곡 발표, 어린이 프로그램 소개 및 어린이 노래 한마당, 모의 국회, 보도국 앵커 소개, 쇼텔런트의 코러스라인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서울방송 초청으로
내한공연을 갖는
세계적인
랩스타
해머



「깜짝 비디오 대상」

•연출/김혁

•방송/11월 15일 저녁 6시 30분~8시

‘웃음’은 여러가지다. 그냥 날아가는 웃음이 있는 반면 인간미가 느껴지는 웃음이 있다. 비일상적인 상황 설정과 그 순간 지극히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우리 이웃들의 순박한 웃음은 어떤 종류의 것일까? 「초특급 꾸러기 대행진」의 한 코너로서 사랑받고 있는 ‘깜짝 비디오’가 추구해온 웃음보따리를 한데 모아 ‘깜짝 비디오 대상’으로 엮었다.

스물다섯 편의 다시 보고 싶은 깜짝 비디오 시리즈와 세편의 대형 기획 깜짝 비디오로 알짜배기 웃음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한다. 이 가운데서 대상을 선정하는 ‘깜짝 비디오 대상’은 시청자와 진행자 사이의 벽의 존재를 거부하는 진짜 웃음을 안방에 전해줄 것이다.

「SBS 건강체조 축제」

•연출/강선모

•방송/11월 15일 오후 2시~3시 30분

‘건강’하면 떠오르는 사람. 「출발 서울의 아침」의 그사람, 장재근이 진행하는 아침체조는 도시의 아침을 물고 와서 사는 기쁨을 배달해 준다. 서울방송이 그의 에어로빅과 함께 표방해 온 ‘생활체조의 활성화와 가족간의 화합’은 어느덧 SBS 시청자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SBS 건강체조 축제」는 서울

방송 창사 2주년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3대가족 에어로빅 강연대회, 에어로빅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에어로빅 등 활기찬 행사를 개최하고 실내 체육관에서는 레이저쇼와 함께 비행선이 축하 비행을 한다. 또한 장재근과 인기 가수 김완선이 에어로빅 시범을 하고 500명의 에어로빅 애호인들이 집단 체조를 선보인다.

「연기 바둑 최강전」

•연출/홍성완

•방송/11월 14일 밤 12시 5분~01시 30분

바둑 대국이라고 하면 두 사람의 기사가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깊은 사색 속에 한 수 한 수를 신중하게 짚어 나가는 모습이 연상된다. 「연기 바둑 최강전」은 ‘연기전’이라는 독특한 한 방식으로 바둑 프로그램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바둑 동호인들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까지 바둑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마련됐다.

‘연기전’이란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대국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바둑의 복식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기풍의 두 기사가 한편이 되어 번갈아 바둑을 두기 때문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대국이 연출될 이번 대국은 한국 바둑계의 최고수인 조훈현, 서봉수 조와 유창혁, 이창호 조가 출전하여 관심을 더욱 고조시킨다. S



서울방송 창사 2주년



1992. 11. 14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신선한 충격

「일단 성공」

SBS가 이토록 빨리
생활속의 채널로 자리매김할 줄은
몰랐다고들 합니다.

시청률 수직상승

결코 자만하지 않고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공익성과 품격

SBS의 두가지 방송신념,
부족하지만 더욱 노력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건강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sbs 서울방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 시청자상담 : 369-1090~3

1만루블짜리 빛좋은 개살구

김성호 · 모스크바 특파원



김성호 · 1958년 생.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와 동대학원을 나왔다. 1984년 MBC에 입사할 때는 아나운서로 방송생활을 시작했으나 SBS 개국과 함께 기자로 분야를 바꾸고 현재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부임해 공산주의 몰락의 현장을 생생히 전해오고 있다.

“글쎄요, 웬만하면 빨리 팔아 치울까 해요.”

“내가 일하고 있는 공장의 주식으로 바꿀 겁니다. 인플레이가 하도 심해서 뭔가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하는데 주식 배당이 많지는 않겠지만 도움은 되지 않겠어요?”

“만 루블이 지금 돈입니까? 이걸 내주고 앞으로는 굶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살아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기만입니다. 속임수예요.”

사유화 증서 또는 주식 배당권, 우리네 개념으로 하자면 이 정도가 된다. 액면가 1만 루블, 전 러시아 국민에게 무상 발급, 판매와양도 자유, 유효기간은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으면 휴지가 되고 만다.

시장 경제 체제로 하루 바빠 전환하고자 하는데 필수적인 단계는 두말할 것없이 국영기업의 민영화이다. 서방 경제전문가들의 조언까지 들어가며 민영화를 위해 열친 정부가 결심한 정책은 국가자산인 국영기업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기간산업을 제외한 민영화 대상 7000여개 기업의 총자산은 1조4천억 루블 정도, 이 금액을 남녀노소 구분없이 머릿수대로 나눠 보니까 한 사람에게 1만 루블이 돌아간다는 계산이다.

지난 10월 1일부터 발급이 시작된 증서에 대해 시민들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응들을 보였다. 당초 흥미진진했던 것은 그저 공짜돈(?)을 받는다는 설레임 때문이었을까? 구역마다 있는 저축은행의 발급 창구에는 연금생활하는 노인들과 일부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간간이 들렀을 뿐.

이 증서는 현재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000내지 6,000 루블에 매매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이 증서의 매매가격이 발급 즉시 2만 루블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증서를 파는 사람들의 생각은

1만 루블이라는 금액이 현재의 물가수준으로 보자면 푼돈에 불과한 데다 앞으로도 인플레이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빨리 현금화하자는 것이다.

이곳 사람들이 주식으로 하는 검은빵 250 덩이리, 쇠고기 50근, 식사 때마다 즐겨 마시는 보드카 40병, 질나쁜 구두 한 켤레, 창동에서 여의도 정도 거리의 예닐곱번 왕복 택시비, 미국돈으로 환산하자면 30달러 정도, 이것이 지금 시세로 1만 루블의 가치이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무상으로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부가 고맙다”는 노파에서부터 생색만 내는 것이라며 냉소짓는 국민학교 여선생, 자기도 이제는 주주가 될 것이라며 씩씩한 미소를 짓는 중년 노동자 등,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당히 낭패스런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적당히 노동력을 제공

하고 대가로 먹고사는 일은 국가로부터 그럭저럭 보장받으며 살아오던 사람들이 1만 루블짜리 증서 하나를 받으면서 “이제는 알아서들 사시오”라는 통고까지 함께 받는 셈이 되니까 말이다.

옐친 대통령은 지난 8월 쿠데타 분쇄 1주년을 맞아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사유화 증서의 무상 발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모든 러시



옐친정부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무상발급한 1만루블짜리 사유화증서 한장. 거기엔 많은 의미가 담겨져있어 보는 이를 씩씩하게 한다. 공산주의와 지리바꿈한 자본주의 경제의 어려운 앞날이 눈에 보이는 듯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붕괴는 러시아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준 대신 나태와 냉소의 광배를 심어놓았다. 세계 사회주의의 메카와도 같았던 크렘린 궁전도 이제 관광객만 들끓을 뿐 대 소련 제국의 위용은 러시아 어느 곳에서도 발견하기 어렵다.

아 국민은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길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일하는 만큼 얻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1920~1930년대에 휘둘러졌던 집산화의 소용돌이 이후 사유재산과 그 증식이 죄악시됐던 사회에서 이는 분명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체제 전환에 따른 어려움이 모두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데 있다. 소련과 처음 접촉이 시작되던 때, 그러니까 3년쯤 전 어느 신문에서 이런 대목을 읽은 기억이 있다. 논설위원인가 하는 사람이 당시로서는 어렵던 모스크바 방문을 했고 크렘린에 들렀던 모양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집무실을 지키는 경비병의 정복마치에 줄이 안 잡혀 있고 구두도 말끔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그는 인상적

이었다며 '자유스런 분위기' 정도로 말했던 것 같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은 기강이 전혀 서있지 않다는 뜻이며 이런 현상은 지금 온 나라, 온 사회에 만연해 있다.

옛 소련 시절 각 일터마다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다고 한다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주 요인은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 형태에서 비롯된다. 대부분 직장의 업무는 10시, 혹은 11시나 돼야 겨우 시작된다. 오후 5시면 벌써 퇴근할 준비에 바쁘다. 그렇다고 근무시간인 한낮에 제대로 자리 지키는 경우도 많지 않다. 식료품 따위 물건을 사는 등 개인 일 보러 다니라 어느 구석에선가 잡담이나 하고 있으랴 다들 바쁘다. 감기 한번 걸리면 며칠씩 결근하기 일쑤다. 그렇게 일하면서도 직장의 상사나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만 뒤버리고 만다. 일터가 흡인력이 없기 때문이고 그 정도 일자리는 또 쉽게 구할 수 있다.

경제가 엉망이 되면서 실업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지만 근로 형태는 바뀐 게 없다. 이런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이 '나'와 직접 상관없는 일'에 머물러 있다가 늘 피부로 접해야 하는 현지 특파원의 경우는 갈수록 새롭게(?) 되씹어질 뿐이다.

러시아는 병든 사회이다. 부정부패가 당연 시되고 술수만이 판을 치는 사회, 자기 국민들을 조차 기회만 닿으면 버리고자 하는 나라, 아직은 막연한 전망이 되겠지만 앞으로 나라나 민족간의 갈등으로 지구상에 참극이 일어난다면 이는 러시아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자꾸만 갖게 하는 곳, 여기가 옛 소련의 후에 러시아이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일본이나(나름대로의 독특한 사정이 있지만) 미국, 유럽 각국이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새삼 눈여겨 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S**

11월의 화제

여섯



『쇼! 서울서울』에 중추며 등장한 MC 파워

화제 1

『출발! 서울의 아침』의 '책들 따라 서쪽으로'

화제 2

『초특급 꾸러기 대결전』의 '꾸러기 콘테스트'

화제 3

대학생과 직장인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화제 4

『알뜰살뜰 장만퀴즈』의 범람호트새 MC 김미화

화제 5

특별한 구성으로 향가 더해가는 『작가와 화제적』

화제 6



○○○
화제 1

「쇼! 서울서울」에 춤추며 등장한 'MC 파워'

• 방송/매주 토요일 저녁
6시 5분~7시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단순히 다른 세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고 표현해도 될만큼 어른들이 보기엔 ‘별종’들이다. 「쇼! 서울서울」이 ‘젊어지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부딪친 고민거리도 그것이었다. 방송의 기본적인 입무인 품위도 지키고,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에도 그리 어긋나지 않는 쇼, 어떻게 하면 ‘양손의 떡’을 쥌 수 있을 것인가? 고심 끝에 나온 대답이 바로 ‘정재환과 MC파워’이다. 그 작전은 주효해서 개그계의 신사 정재환과 신선하고 잘생기고 재주많은 두 젊은이 남경주와 박형진으로 이루어진 ‘MC파워’는 「쇼! 서울서울」의 색깔을 확실히 바꿔놓았을 뿐 아니라 ‘쇼의 집단MC제’라는 신평조를 방송가에 확산시킬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개그맨이라는 직업에 어울리지 않게 젊잖고 춤 못추기로 소문난 남자 정재환은 매주 화려한 원색의 의상을 입고 입으로는 랩을 외우며 안들이기는 허리를 열심히 돌려 춤을 추느라 얼마전엔 갈비뼈까지 한대 금이 가버렸다는데, 그가 이처럼 스타일을 구겨가면서까지(?) 이 새로운 일에 몰두하는 것은 자신의 직업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요새아이들’의 속내를 더욱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나.



○○○
화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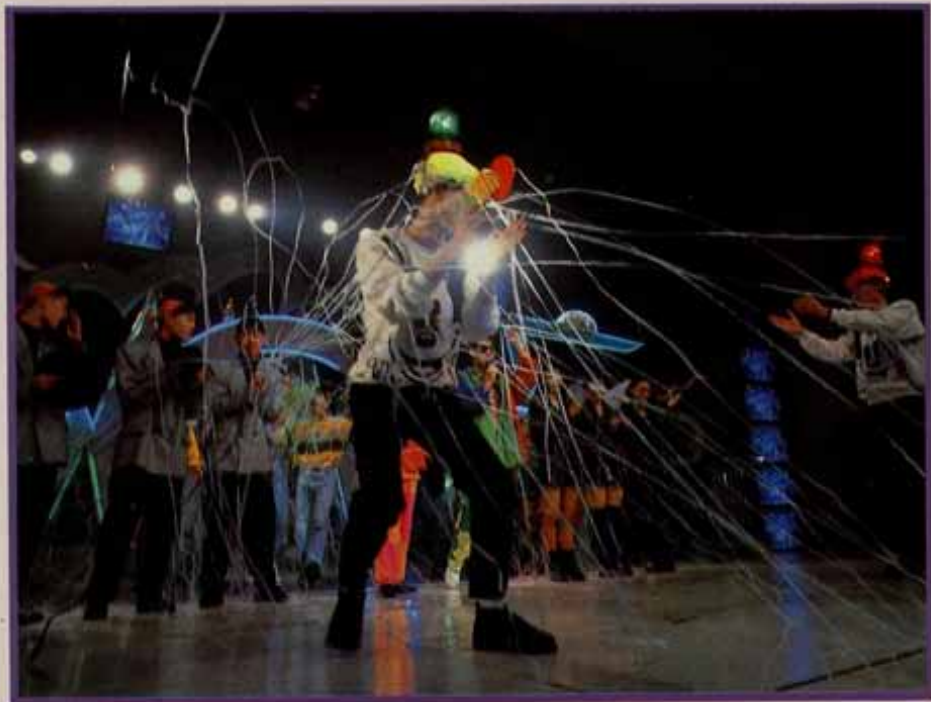
「출발! 서울의 아침」의 '해를 따라 서쪽으로'

• 방송/월~토요일 아침
6시 30분~8시 35분

솔 직히 말하자면 '노친네'에 속할 연배의 사람들이 나이생각도 잊은채 먼 여행길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그것도 1년씩이나 걸리는 배낭여행이라니 놀라서 입 벌어진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텔레비전을 통해 매주 씩씩하게 소식을 전해오는 '나이 많은 젊은이'들을 보며 그 생각을 고친 사람 역시 많을 것이다.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팔자가 좋아서”라고 한쪽 눈을 치켜뜬 사람도 개중엔 물론 있겠으나 게으른 사람들에게겐 그 팔자도 결코 좋은 팔자로 보이지는 않을 터이다. 말이 여행이지 아시아의 동쪽에서 유럽의 서쪽 끝까지를 관통하는, 길고 긴 고행이나 다름없는 일정인 까닭이다. 더욱이 편리한 비행기 따위는 애초에 제쳐놓고 육로와 바닷길 만으로 그 먼길을 갈 예정이라니 그야말로 '사서 하는 고생'이 아니고 무엇이라.

그러나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이 시간을 보지 못하는 이는 텔레비전 사냥고 본전도(?) 못뽑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즉 다시 말해 가만히 앉아서 세계 36개국 324개 도시를 건문하는 재미를 느끼는 셈이니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 화제 3

「초특급 꾸러기 대행진」의 '꾸러기 콘테스트'

• 방송/매주 일요일 저녁
6시~8시

코미디, 혹은 쇼 프로그램에까지 무슨 '뜻'이 담겨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고상한 식자일수록 웃음과 즐거움의 원리부터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가 쉽다.

오락 프로그램은 그저 재미있는 것으로 족하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주면 머리에 덧이라도 난다던가? 일요일 저녁의 TV를 팔라 뒤집어놓으며 방송편성에 또 한차례의 혁명(?)을 몰고 온 두시간짜리 초대형 오락 프로그램, 「초특급 꾸러기대행진」은 이즈음 찬사와 질타를 한꺼번에 받느라 온몸이 휘청일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의견이야 분분하겠으나 결론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초특급 꾸러기대행진」에 포진해있는 코너들 속에 칭찬을 듣건, 혹은 욕을 먹건 만드는 이들의 궤와 땀이 배어있으며 많은 시청자들은 역시 "재미있다"는 쪽에 표를 던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꾸러기 콘테스트'는 「초특급 꾸러기대행진」을 보는 시청자의 반응이 피드백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코너이다. 쓸데없이 시청자를 가르치려 들지 않는 프로그램. '꾸러기 콘테스트'에 나와보겠다고 매주 줄을 서는 이들의 마음속엔 그런 친근감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
화제 4

대학생과 직장인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 방송/매주 일요일 밤
10시 55분~11시 50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 적어도 1년에 한달만큼의 시간을 TV앞에 앉아있게 되었다고 하니 새삼 들먹일 필요조차 없이 TV의 위력이 섬뜩하게 다가온다.

그 많은 사람들이 황금같은 시간을 바쳐가며 텔레비전에 몰두하며 얻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방송종사자들로 하여금 늘상 초조하게 머리칼을 쥐어뜯게 만드는 명제는 바로 그것일 터이다. 시청자란 본시 각계각층을 망라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미스터리 다큐멘터리라는, 이전에 들도 보도 못했던 장르를 안방에 정착시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양한 수용자층을 거의 만족스럽게 TV의 세계로 빠져들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본다. 특히 방송 다음날인 월요일 아침이면 그동안 TV라는 매체를 일견 무시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던 직장남성과 대학생들, 이른바 지성인이라고 불릴만한 사람들에게 토론거리로 회자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 이유 또한 우리는 이미 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단순히 흥미와 호기심으로 사건을 추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근원을 파고드는 심층적인 탐구력을 가진, 진정한 재미를 가진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이다.



○○○
화제 5

「알뜰살림
장만퀴즈」의 입심
좋은 새 MC 김미화

• 방송/월~토요일 오전
9시 20분~9시 45분

“사 장님 이름은 몰라도 청소부 아줌마 삼순이를 모르면 서울방송 사람이 아니다”라는 우스개까지 생길 정도로 김미화는 요즘 SBS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잡았다. 서울방송의 방침 가운데 하나인 ‘스타포스트’ 전략의 주요인물이기도 한 그를 하루라도 보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이제 더욱 없게 되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총횡무진 주름잡던 그가 퀴즈 프로까지 점령해버렸기 때문이다. “어떤 자리에 갖다놓아도 능력을 백이십 퍼센트 발휘하는 전천후 요격기”라는 평에 조금도 손색없을 만큼 「알뜰살림 장만퀴즈」를 진행하는 그의 솜씨는 또 한번 시청자를 경탄하게끔 만든다. 엄마가 된 이후로 예전보다 몇배는 더 많이 바빠지는 바람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 녹화 중에도 늘상 아이 얼굴이 눈에 밟히는 점만 제외한다면 김미화의 요즘은 그야말로 ‘황금시절’이라 할만하다. “언젠가 한번 나가 상품을 전부 굶어모으리라 생각했는데 MC가 되어버렸으니 저 아까운 내 상품들을 어찌면 좋으나”고 익살을 떨다가도 “남의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이 먼저 즐거워야 한다”라고 진지하게 말하는 그 커다란 입을 보며 우리는 ‘달겨운 웃음’의 실체를 보게 된다.



○○○
화제 6

독특한 구성으로 향기 더해가는 「작가와 화제작」

• 방송/매주 일요일 밤
12시~1시

텔 레비전이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덕목은 역시
뭐니뭐니해도 오락기능이다. 그러나 놀이판이 TV의 시작과
끝을 다 차지한다면 심각한 역기능 하나를 우려하지 않을수가 없게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기를' 멈추고 '느끼는' 일에만
길들여지게 한다는 것인데, "외마디 소리 우스개소리로 4천만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좀 심한듯한 걱정 소리들 역시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온 얘기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재미와 격조를 함께 준다는 일은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서울방송이 내보내는 문학적 향기
가득한 프로그램 「작가와 화제작」은 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자칫 지루한 말잔치로 끝나버릴 위험이 다분히 내포된
장르임에도 프로그램 안에 독특한 구성을 가함으로써 시청자의
문학적 감흥을 유발시키는 촉매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성공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작가와 화제작」이 이름 그대로 화제의
프로그램으로 떠오른 건 대상 작품을 여러각도에서 객관적으로
포용, 작가의 가슴속을 열어보이는데 성공했으며, 그것이 그대로
늦은 밤 TV앞에 외로이 앉은 시청자의 마음에 향기로운 안식으로
적셔지기 때문이 아닐까? **5**



「관춘수필」의 탤런트 권소정 즐거운 이율배반에 빠진 스물다섯 ‘응점이’

드라마에 따라 특정한 상황이 설정되고 인물의 성격이 주어지면, 때때로 자신과는 동떨어진 전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려내야 한다는 점에서 연기자만큼 이율배반의 벽에 자주 부딪히게 되는 직업도 그리 흔치 않다.

그 가운데서도 요즘 어느 누구보다 이 벽의 높이를 실감하고 있는 연기자가 권소정이다.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아시이나 항공 모델로도 활약한 바 있는 권소정은 지난 9월로 1년간의 전속을 마친 SBS 1기 탤런트이다. 그는 지난 1년간 「분례기」에서 분례의 알미운 시누이 동평 역을 맡는 등 크고 작은 배역으로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

왔다. 그런 그를 이 좋은 가을 내내 또 다시 아무 생각할 수 없게 만든 주범은 바로 SBS 창사특집드라마 「관촌수필」이다.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내면에 감춰진 ‘끼’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었다는 권소정도 「관촌수필」의 여주인공 웅점이 역을 해내는 일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은 눈치다. 길지 않은 연기 경력을 생각한다면 비중 큰 떡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오히려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권소정을 힘겹게 만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이제 고작(?) 스물 다섯인 그에게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1945년에서 1970년까지의 기간은 경험은커녕 희미한 기억조차 허용치 않는 막연한 시대이다. 게다가 투박한 질그릇과 같은 성격에 육두문자가 끌고루 섞인 욕지거리를 거침없이 해대야 하는 웅점이 되기에는 권소정은 너무나 현대적인 이미지를 가졌다.

하지만 그가 설명해주는 웅점은 그저 상스럽고 무식하지만은 않다. 극중에서 웅점은 어린 민구를 친구처럼 누나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감싸고 보살펴 주는 의리있고 순박한, 정말 팬클럽은 인물이라한다. 그 인간 됨됨이를 쉬지 않고 두둔해대는 것을 보면 웅점에 대한 사랑이 이미 어지간히 깊어진 모양이다.

“연기를 하는 자신이 한발 앞서 생각하고 느껴야만 정말로 진실된 연기가 나오지 않겠나”며 권소정은 ‘웅점이 되기’에 여념이 없다. 시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은 물론이고 대본이 나오면 충분한 대사 연습과 표현 연습까지 마쳐야만 카메라 앞에 나설 엄두가 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웅점이 식’의 말투가 터져나와 당황할 때도 있다.

“저고리 고름 말아 쥐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랑 18세 ~”

감기로 열꽃이 오른 얼굴로 촬영지에 내려간다면, 극중에서 부르는 노래 몇곡을 간드러지게 뽑아내고 나서는 권소정의 뒷모습은 이미 순박하고 정감있는 웅점이었다. **5**



「쇼!서울서울」MC 정재환 화려한 춤꾼으로 변신한 개그계의 신사



이름에 ‘정’이란 글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웬지 매우 귀찮고 점잖은 느낌을 준다. 대단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 견해를 새삼 매번 확인시켜 주는 이가 정재환이다. 만약 그가 정씨가 아니라 최씨나 박씨나 김씨였다면 또 다른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이말을 조금만 덜 주관적인 방향으로 풀해보자면 지금의 정재환이 갖고 있는 모습이 글자 하나에까지 딱들어맞는 나름의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듯 보인다. 뜻도 될 수 있겠다. ‘개그계의 신사’라든가, 맘 좋은 둘째 삼촌같은 너털웃음이 바로 그 이미지의 제1장 1절이 되었다.

그런 그가 요즘은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동반한 ‘보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중이다. 원색의 모자에 전위적인 의상, 벽을 뚫고 무대로 뛰어든다 하면, 그 귀직한 목소리로 랩을 하기도 한다. 「쇼!서울서울」에서 ‘MC 파워’란 이름으로 남경주, 박형진과 함께 연출하는 이런 무대 매너를 두고 정재환식 이미지의 제2장 1절을 예측한다면 아마 이즈음의 그 많은 당혹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재환은 춤을 못춘다. 춤을 안워서 못추기도 하고, 못춰서 안추기도 한다. 몇년 전 「청춘행진곡」의 MC를 하면서 엉겁결에 유행시켰던 혈령이춤이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세련된 안무이다. 그래서 요즘 「쇼!서울서울」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의 화려한(?) 동작은 사실 엄청난 연습의 결과이기도 하다. 동료 MC들과의 정기적인 연습은 물론이고, 매일 생방송하는 SBS라디오 「기쁜 우리 젊은날」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조금만 빠른 노래가 흐르면 지팡이나 모자를 돌리는 연습에 정재환은 매우 진지하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재환은 스스로 무리한 도전을 삼가는 편이라고 한다. 모험을 건다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로 철



저히 제한하는 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춤'으로 상징되는 자기 이미지의 제2장 1절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매진하는 모습을 삼단논법식으로 따져볼 때 정재환은 이미 'MC 파워'에 회심의 승부수를 걸었다는 얘기가 되겠다.

"제가 춤을 주고 뛰고 소리 지르는 이유는 이즈음의 쇼가 그래야 하고, 이즈음의 진행이 또 그렇게 감각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되도록이면 전문 MC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전문 MC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면, 썩 잘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프로그램에 위한 것이라면, 최소한 잘하는 것처럼 보여 줄 수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지금 그가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은 세 개이다. 이영현과 함께 하는 「지구촌퀴즈」, 그리고 「기쁜 우리 젊은날」, 「쇼!서울서울」이 그의 오프닝멘트로 시작되고 있다. 사실 이 세 프로그램에서 그가 개그맨 출신 MC로서 일반 시청자들의 기대에 썩 잘 취합하는 부분은 그

리 크지 않다. 아니, 오히려 정재환 스스로 당분간은 그 점을 유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단지 말을 잘한다거나, 인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MC를 맡고, 또 그래서 단지 재미만을 위해 비속한 방송언어나 품위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도 적당히 용인받는 일련의 풍토를 그 스스로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그맨이 MC를 맡아서 위와 같은 비난을 면한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그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한 이유이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방송의 장르가 교양이나 정보보다는 오락쪽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그점에 유의하려 한다. 방송의 제도적 측면을 프로그램의 성향에 따라 조정하는 것과 이에 방치해버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주의 사항 전에는 우선 오락적이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자리하고 있다.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두가지 명제—오락과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병행시

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미'라고 생각합니다. MC와 가수, 또는 출연자, 그리고 시청취자들 사이에 잔잔히 흐르는 인간미가 있을 때, 그때가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때라고 알고 있거든요. MC란 그저 발을 일구는 역할이죠. 꽃이나 열매는 시청취자들 스스로가 해야 할 몫이니까요."

이토록 그가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그의 손님, 즉 '시청취자'들은 대부분이 10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욱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도 된다. 「쇼!서울서울」 녹화 때마다 수천명씩 몰려드는 그 10대들의 아우성을 들으며 그는 이 몇년간 부쩍 뒤바뀐 자신의 '10대관'을 생각한다. 자신의 10대 시절에 비해



생활의 많은 면에서 현격한 변화를 갖고 있는 이즈음의 10대들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나이에 갖고 있는 감성이나 고민들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요즘 10대들에 대한 기성 세대들의 우려가 다른 시대나 세대에 비해 특별히 커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오히려 반공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자기 세대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다양한 교육과 경험들을 갖고 있는 요즘의 10대들이 이토록 자신있게 자신을 표현-비록 그것이 맹목적인 아우성일지라도-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녹화날 보면 굉장합니다. 광란이죠. 하지만 그 친구들이 집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보겠습니까? 아니면 교실이나 독서실에서 그래 보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발산을 건강하게 유도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를 더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른이나 아이나 '야호'하면서 아우성을 치죠. 자연스런 기쁨의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왜 등산은 좋은 것이고 공연은 나쁘다고 봐야하는 거죠?"

이젠 완전히 10대편이 되어버린 30대의 MC 정재환이 서울방송에 대해 갖는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건강한 만큼 새롭고, 새로운 만큼 도전의 여지가 수두룩하며, 또 그만큼 그의 그런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풍토가 있다고 느낀다. 정재환이 그런 SBS의 풍토를 생각하며 그리고 있는 MC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즈음의 그의 변한 모습이다. 다소 당혹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바뀌어진 시대감각이며, 바꾸어 말하자면 또다시 언제든지 시대 감각이 바뀐다면 그 모형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탐바꿈할 그 나름의 제3장 1절을, 제2의 'MC 파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될 것이다. S

글/김일중 방송구성작가

사진/고도영



방송의 현장
「기쁜 우리 젊은날」-「오거나 말거나」

여기는 792,
SBS 라디오입니다



792 초대석
「이미자의 가요앨범」DJ 이미지

PD 일기
「수도권은 지금」92년 하반기
취업 특별방송을 마치고

지금 생방송 중
「노래 한마당」



지금 생방송 중

「노래한마당」 터지는 웃음과 함께 하는 즐거운 점심시간

- 진행/박일 · 정재운
- 연출/김광태
- 방송/매일 낮 12시~2시



예로부터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는 별명답게 우리 민족의 노래 사랑은 유별나다. 전국에서 성업중인 노래방 열풍은 집 어두더라도 몇명만 모이면 으레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게 우리네 모임의 특징이다. 이처럼 노래를 좋아하는 국민성을 겨냥하여 TV, 라디오에서도 각종 '가요부르기'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노래에 자신있는 소수의 솜씨자랑으로 끝나며 기성가수를 모방, 순수성을 잃어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SBS 라디오의 「노래 한마당」은



올바른 노래 문화를 전파하고 다 함께 즐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좀 딱딱한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나쁜 한낱을 생고무처럼 탄력있게 만드는 '배력 만점, 재미 만점'의 점수를 얻고 있다.

가히 '인간복사기'라 할 만한 정재운과 다른 설명이 필요없는 관록의 성우 박일이 진행을 맡고 있는데 나 이로 따지면 아버지와 딸뿐이지만 재치있는 정재운과 넉넉하고 안정감 있는 박일의 말솜씨는 청취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최고 인기 코너는 단연 '도전 5곡'. 가을철 프로그램 개

편 때부터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김광태 프로듀서가 개발한 '불후의 역작'으로 「노래 한마당」을 확실하게 자리매김시킨 코너이다. '도전 5곡'은 여타의 노래자랑과는 달리 사전에 아무 힌트도 없이 반주를 들려주면 전화로 참여한 청취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노래 퀴즈라고 할 만하다. 마음껏 노래부를 수 있고 또 꾸밈한 상품이 주어지는 코너인 까닭에 날이면 날마다 청취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참여폭을 넓혀달라는 항의성 내용의 전화가 하루에 20~30통을 웃돈다고 한다. 물

현대는 활발한 자기 표현의 시대이다. 스스로 앞에 나서 자기자랑을 해도 흉잡하지 않는 세상, 전국을 휩쓰는 노래방 열풍도 그런 현상의 일환일 것이다. 그러나 「노래 한마당」의 전파를 통해 노래솜씨를 천하에(?) 알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획능력 못지않게
발로 뛰는 노력 또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김광태
프로듀서는 「노래
한마당」이
성공계도에 올라선
요즘도 “뭔가
색다른게
없을까”라는 공리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론 이런 현상이 담당 프로듀서를 곤
혹스럽게 하는 반면 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기에
김광태 프로듀서는 꽤나 즐거운 눈치
이다.

“조만간 ‘도전 5곡’ 만 가지고 와
이드 특집을 한번 해볼랍니다.”

담당 프로듀서가 이렇게 그 계획
을 밝히고 있으니 청취자들은 즐거운
기대를 가져도 좋을 듯하다.

「노래 한마당」에는 여섯개의 시
사코트가 있다. 매일 시사성있는 주
제를 짚막하게 이어 박일과 정재윤의
현란한 상대묘사로 진행된다. 먼저 ‘뉴
스 디스크쇼’에선 각계각층의 목소
리를 대변, 현실문제를 풍자한다. 이
어 ‘서기 2001년’에서는 미래를 장미
빛으로 예측, 파팍한 일상생활에 회
망이라는 생명수를 선사한다. ‘박일
정재윤의 유랑극단’은 신파조로 영화
를 소개하는 코너. 예를 들어 폭주족
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든다면
영화의 한 장면을 목소리 묘사로 들
려주며 청취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쯤에서 라디오 걸을 떠나는 사

람은 또 하나의 큰 재미를 놓치게 된
다. ‘50초만 잡아주세요’ 코너가 바로
그것인데 남녀 한쌍이 출연, 스피드
퀴즈를 함께 맞춰나가다 결승에 올라
서면 파트너끼리 ‘어제의 동지가 오
늘의 적이 되어’ 치열한 공방전을 벌
이게 되는 기묘한(?) 진행방식이 들
는 이에겐 스릴 만점이다.

생방송이라 간혹 실수하면 그대로
여과없이 방송되기 때문에 진행자들
의 긴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하지
만 아무리 긴장해도 참기 어려운 것
이 웃음이라서 이 때문에 많은 해프
닝이 일어난다. 얼마전에는 ‘서울통
장님’에서 방송된 카돌문제에 대한
멘트가 너무 재미있어 웃음을 참느라
눈물에 콧물까지 흘렀단다.

이처럼 생생한 내용이 끊임없이
쏟아나오는 것은 매일 여섯개 일간지
뿐만 아니라 연합통신까지 살살이 훑
는 작가의 노력과 열성 덕분이다. 아
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방송중이더라
도 즉석에서 ‘따끈따끈한’ 원고를 제
공하는 일을 한치의 오차 없이 해내
는 이가 작가 김성은으로 그는 넉넉
한 체구만큼이나 아이디어와 순발력
을 갖춘 신예작가이다.

“작가가 잘 써주지, 진행자의 호흡
이 척척 맞지, 팀웍이야 더 바랄 게
없지요.”

제작팀의 면면을 살펴보면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식구 자랑에 열심인
김광태 프로듀서의 이 말에 수긍하게
된다.

일요일은 약간 색다르게 꾸며진
다. 가수들이 출연, ‘스타 도전5곡’과



‘폭소드라마’, ‘객관식 눈물고개’, ‘한마당 여론조사’ 등으로 풍성한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흥미로운 것은 노래가 본업인 가수치고 ‘스타 도전 5곡’을 통과한 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노래 한마당」은 한달에 한번씩 용인자연농원에서 ‘SBS 장미가요제’를 개최, 가수를 꿈꾸는 예비스타들의 뜨거운 열망과 신선한 노래를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했었는데, 내년 2월에는 SBS 라디오 개국 2주년 기념으로 70만 교민이 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교민 노래자랑 겸 위안 잔치를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라디오 단독으로 해의 공개방송을 계획하는 것은 처음이라는데 이국의 하늘 아래에서 설을 맞는 교민들의 향수도 달래줄 겸 고향 방문 비행기 티켓과 승용차를 부상으로 준비, 실속있는

푸짐한 상품과 함께 SBS를 교민들에게 알리는 야심찬 기획이다.

이 프로그램 제작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늦은 점심이다. 프로그램이 끝나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점심을 먹을 수 있고, 그나마 일에 쫓기다보면 때먹기 일쑤여서 위장병이 친구처럼 따라다닌다고 한다. 진행자인 박일과 정재윤은 배고픈 고통 외에도 천의 목소리를 내는 성대묘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변화무쌍한 목소리 연기와 재치넘치는 화술이 이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임을 알기 때문에 두사람은 오늘도 즐겁게 마이크 앞에 앉는다. **S**

프로그램 방송시간이 점심시간에 딱 걸쳐있는지라 「노래 한마당」 제작진은 점심을 거르기가 일쑤이다. 그러나 수많은 청취자들이 「노래 한마당」을 들으며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면 속쓰린 것들이야 얼마든지 참을수 있다는 것이 제작진의 진심어린 충정(?)이다.

글/박성래·스포츠서울 편집부 기자
사진/고도영

「이미자의 가요앨범」 DJ 이미자 살아있는 애정으로 가득 찬 진지한 목소리



엘레지의 여왕, 우리 가요사의 산 증인, 그를 일컫는 수식어는 참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서른 해 가까이 변함없는 목소리로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큰 별임에 틀림없다. 이런 그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SBS 라디오에서 「이미자의 가요앨범」이라는 두시간 짜리 음악 프로그램을 맡아 더욱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섰다.

“저는 DJ로서가 아니라 안방에서 오손도손 얘기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 청취자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부담없이 말이죠. 제 바람이라면 점점 잊혀지고 소멸되어가는 우리 전통 가요를 조금이나마 사람들의 귀에 오래 남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의 얘기처럼 전통 가요의 맥을 이으려는 사명감에서 그는 제작팀과 한마음이 되어 애쓰고 있다. 이 제작팀 가운데는 「가슴 아프게」 「흑산도 아가씨」 등의 노랫말을 쓴 작사가 정두수도 끼어 있어 펍 이채롭다.

「이미자의 가요앨범」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길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노래를 들을 수 있다. 1910년대에 등장한 창가에서부터 불과 몇년 전 유행했던 노래까지 그 폭이 무척 넓기 때문이다. 청취자들에게 들려줄 노래를 고르는 데는 진행자인 그의 몫이 제법 크다. 특히 ‘가요 로터리’라는 코너는 그가 추천하고 싶은 노래로 꾸며지는 시간이다.

‘가요 로터리’ 말고도 노래 한 곡이 나오기까지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엮은 ‘그때 그 노래’도 그의 연륜이 배어나오는 코너이다. 당당시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짚어나가며 그 노래에 대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그렇지만 그가 특별히 애정을 쏟고 있는 시간은 ‘가요 초대석’이 아닐까 한다. 이 시간에는 그의 인생관, 직업 의식, 가요계에 대한 깊



은 애정과 염려 등과 같은 살아있는 목소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수를 비롯해 작사가, 작곡가, 평론가에 이르기까지 가요와 큰 인연을 맺은 이들이 주로 초대되는데, 이들과 나눈 얘기에서 우리는 그의 속내를 엿보게 된다.

이른바 트로트라 불리는 우리 전통가요에 대한 올바른 대접과 그 맥을 잇고 키우는 작업은 그가 언제나 힘주어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문화부장관을 시켜준다면 자신있게 해낼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그가 씩 그럴듯해 보이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또한 후배 가수들에게 애정 못지않게 따끔한 충고도 빼놓지 않는다. 쉽고 빠르게 인기가수의 대열에 서려고 하는 요즘 젊은 가수들에게 지난날의 어려웠던 녹음 과정, 항상 라이브 무대일 수밖에 없었던 공연을 떠올리며 ‘반짝 가수’로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배어있다.

“솔직히 속이 많이 상합니다. 국적 없는 노래들이 버젓이 유행하는가 하면 멜로디나 가사가 틀린 옛노래가 누구 하나 바로 잡지 못한 채로 방송되는 걸 보면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가슴속 깊이 박히는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건 아마도 자신을 기꺼이 버림으로써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 가요계에 대해 얘기할 때면 으레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진다. 그만큼 애정과 관심이 많은 탓이라.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와 춤, 랩 뮤직에 익숙해 있는 젊은 세대에게 「이미자의 가요앨범」은 때때로 박물관같은 느낌을 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정한의 밤차」 「하동포구 아가씨」 「내사랑 줄리아」처럼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한니까. 그러나 그는 젊은이들이 낯설긴 하지만 이런 노래도 불러줬구나 하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흘러간 가요에 목말라 있는 나 이런 세대뿐 아니라 그들 젊은 세대도 「이미자의 가요앨범」의 귀한 손님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최근에 유행하는 가요에도 비중을 두고 오늘을 얘기하면서 좀더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을 만들려는 게 그의 욕심이다.

요즘 그는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예술가의 말로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한때 빛을 내고 스러져갔던 이들을 기억하며 자신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중이다. 데뷔 시절부터 지금까지 불렀던 그 엄청난 노래들을 음반으로 총정리하고 그가 즐겨부르는 가곡 모음집도 하나 낼 예정이다. 이 일은 아마도 우리 가요사에 대한 교과서를 만드는 것과도 같은 뜻깊은 작업이 될 것이다. 더불어 그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미자의 가요앨범」이 전통 가요의 흐름을 잇는 소중한 문을 꾸준히 해냈으면 하는 것이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노래에 숨겨진 우리 조상의 숨결, 부모님의 숨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숨결을 느껴봄이 어떨까. **5**

글/박경희 · 자유기고가

사진/고도영



「기쁜 우리 젊은 날」 - '오거나 말거나' 오는 발길 막지 않는 라디오 사랑채



세상이 잠들어가는 밤 11시 30분이 다가오면 SBS 10층 라디오 스튜디오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마치 오랜만에 갖게 된 동창회나 동네 반상회처럼.

'오거나 말거나'. 어찌보면, 코너 이름에서 수수방관적인 자세가 느껴져 모처럼 큰 용기를 내서 찾아온 이들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 테지만, 정작 이 코너를 신설한 윤정수 프로듀서의 생각은 이렇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송에 한번 출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방송사의 문턱이 꽤나 높은 줄 알고 겁부터 내는 편이죠. 그래





서 방송에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출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개방하자는 발상에서 '오거나 말거나'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의 참여자들은 어떤 제한이 없어요. 일반 청취자들뿐만 아니라, 기존 연예인들도 미리 섭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 11시30분까지 이곳 10층 라디오 스튜디오로 찾아오면 그대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사랑방 구실을 하는 거죠."

그동안 '오거나 말거나'에 출연한 손님은 줄잡아 60여 명... 박미선, 이성미, 이경규, 예민, 박해성, 지예,

기존의 방송이 모두 어깃잡이 '각본대로' 이루어졌다면 '되는대로' 꾸미는 것이 '기쁜 우리 젊은날'의 '오거나 말거나' 코너이다. 방송의 개방화, 개성화를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대담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지선, 신동엽, 정수라, 김혁경, 하수빈, 이윤수, 박학기, 김규민, 잭 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손님들이 하루 평균 두세명 정도 찾아오지만, 어떤 날은 다섯명이 한꺼번에 들어닥치기도 한다.

이중 일반 청취자들도 상당수 출연해서 이채를 띤다. 방송을 듣다가 정말 아무나 오기만 하면 출연이 가능한지 확인하러 왔다는 상고머리의 남학생과 평소 방송DJ가 꿈이라며 오프닝 멘트를 준비해온 남학생들, 그리고 좋아하는 이현우 오펙도 불결 특별히 월요일을 택일해서 찾아왔다는 단발머리 여고생들... 처음엔 머뭇거리고 주저하며 스튜디오에 발을 들여놓던 이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금세 편안한 스튜디오 분위기에 익숙해져 진행자인 정재환과 주거니 받거니 농담까지 나누곤 한다. 어떤 날엔 대학생 야학교사들이 찾아와 야학교사로서 느끼는 보람을 얘기하며 새로운 신입생 모집에 관해서 광고를 한 적도 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방송이 그리 멀지 않고 친구처럼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입을 모은다.

'오거나 말거나'에서 중요한 것은 택일(?)을 잘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손님이 너무 많은 날이나 너무 늦게 찾아오면 스튜디오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지라 눈물을 머금고 다음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탤런트 신혜수는 두번째이나 시간에 늦어 다음날들을 기약하다가 삼고초려(?)로 세번째 방문해서 출연에 성공하기도 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보고 싶은 사람들끼리 한데 어울려 도란도란 나누는 정다움. '오거나 말거나'는 방송의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이 사랑방의 주인인 윤정수 PD와 진행자 정재환은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인다.

그리고 가수 이주엽도 빼놓을 수 없다. 하필이면 언변에 능한 개그맨 이경규와 함께 자리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음날에 다시 찾아와 그때의 설움을 달랬다. 그리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 꼭꼭 들러 스튜디오 밖에서라도 수다를 떨다 가는 참새들도 꽤 있다. 박해성, 지예, 김민교, 김규민 등은 늦은 밤 출출한 스태프들에게 간식거리까지 제공해 은근히 기다려지는 단골손님들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한가지 걱정이 있을 법도 하다. 늦은 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혹시 손님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그러나 개편 이후 지금까지 32회 동안 손님이 없었던 경우는 단 2회, 그래도 윤정수 프로듀서는 느긋한 표정이다. 코너 이름처럼 오거나 말거나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여유로움이다. 스튜

디오가 비었을 때는 즉석에서 '재미있는 이름 공모' 또는 '환경보호에 관한 표어 짓기' 등의 주제를 내걸고 청취자들의 전화 참여를 통해 또 다른 사랑방 손님들을 맞이하니까.

'오거나 말거나'에는 특별한 구성이 따로 없다. 그냥 옛날 사랑방에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듯 꾸밈없이 서로의 근황과 사는 이야기들을 부담없이 나누는 편안함이 숨어있을 뿐이다.

시계바늘이 11시를 가리키면서 스튜디오는 조금씩 들뜨기 시작한다. 오늘은 어떤 손님이 어떤 이야기보따리를 메고서 찾아올지..., 청취자들과 제작진이 함께 기대하는 호기심, 이것이 '오거나 말거나'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 **S**

글신은영·방송구성작가
사진서창식



「수도권은 지금」92년 하반기 취업 특별방송을 마치고 라디오국을 묶어버린 전화벨 소리

SBS 라디오 「수도권은 지금」 제작진은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마련했던 '92 하반기 취업 특별방송' 기간 동안 동료들로부터 많은 꾸밈을 들어야 했다.

“취업 상담 전화 때문에 어디 방송을 할 수가 있나?”

“우린 수화기를 다 내려놓았다구, 그래서 신청전화도 못받았어.”

그러나 그들의 꾸밈 속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민망함과 가혹한 취업난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상 최악의 취업전쟁'이라는 어느 신문기사의 표현처럼 올해 취업난은 그 어느해 보다도 치열하다고 한다. 만성화된 대졸자 취업난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고졸자, 전문대졸자도 취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래서 '92년 하반기 취업 특별방송'이 나간 일주일 동안은 방송시간 외에도 밤낮 계속되는 전화에 SBS 취업센터 요원들을 비롯한 라디오국 식구 모두가 홍역을 앓아야만 했다. 그러

나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 송경철 아나운서를 비롯, 수십년간 대학에서 취업을 담당해 온 취업전문가 김봉주 교수(연세대)와 표경희 교수(이화여대)의 직접 상담과 작가 윤석연, 리포터 김연희, 최영은의 맹활약과 라디오기술부원 모두의 적극적인 후원은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지대한 공을 들이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SBS취업상담센터의 공헌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일주일 동안 여섯시간이라는 제한된 방송시간 때문에 총 일흔 두명(하루 평균 열두명)의 상담에만 용할 수 있었다. 수없이 걸려오는 상담신청 전화 중 순서대로 일흔 두명을 선별,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 일흔 두명을 우선 성별로 보면 남자 서른 세 명, 여자 서른 아홉명이었고, 학력은 중졸 한명, 고졸



스물아홉명, 전문대졸 스물 세명, 대졸자가 열 아홉명이었다.

이들이 원하는 직종은 매우 다양했다. 남자의 경우 취업이 잘되는 경영학이나, 공학계통 전공자를 제외한 비인기학과 출신자들은 전공과 관계없는 직종에 관심이 많았다. 아예 부전공이나 다른 기술을 습득한후 취업상담을 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 고졸이나 전문대졸자는 대개 경리·사무직을 원했고 대졸 여성들의 상담

은 구체적인 기업의 구인 정보보다는 공채에 대한 정보 위주로 진행되었다. 사무직을 원하는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타자, 속기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있고, 사무 자동화 처리 기능을 갖춘 여성도 많았다.

그외 메이크업, 이벤트, 광고디자인 등의 특수 전문 직종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졌다. 또한 주부 세명과 외국에서 대학원을 마친 여성 한명도 상담을 원해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일주일 동안의 상담기간 중 느낀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취업준비자가 정보에 어둡다는 사실이다. 이정도는 알아야할 텐데 하는 것도 거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취업정보는 신문 등에서 단신으로 밖에 접할 수 없고, 그외 취업 전문 잡지들의 정보도 취업 지망생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즉 체계적으로 기업과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허술하다고 할 수 있다.

각 학교의 직업상담실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심지어 어떤 상업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요청으로 한 학급 전체가 SBS 취업정보센터의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이번 특별 방송의 취지가 상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상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직업상담이라 함은 상담자의 학력, 소질, 적성 등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구체적 직종에 대한 많은 정보, 나아가 올바른 직업관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방송시간의 제한, 상담자들의 전화 폭주 등은 이러한 상담을 불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번 특별방송만의 문제는 아니다. 각급 학교에서의 상급학교 진학지도는 어떤가? 진학자들의 적성과 관계없는 성적위주의 주먹구구식 진학에서부터



취업을 원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취업준비자들은 기초적인 취업정보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커뮤니케이션에 책임이 있는 일이다. 즉 기업과 개인을 이어주는 고리가 없기 때문인데, SBS라디오의 취업 상담센터는 그 역할을 기꺼이 해낼 것이다.

문제는 비롯된다. 취업도 마찬가지다. 어떤 회사라도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심리가 취직 후 많은 이직을 낳게 한다.

SBS 라디오는 우리 나라 방송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전문 방송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투자와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질 좋은 정보 확보가 절실하다. 지금 많은 구인정보가 들어오고 있지만, 구인을 하는 업체에 대한 구체적 정보, 즉 무엇을 하는 업체인가, 발전 전망은 어떠한가, 근로 환경은 어떠한가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것은 인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기업 역시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업체에 필요한 마땅한 인력인가, 어떠한 능력을 갖추었나 하는 것에 어둡다.

이러한 정보 부족의 가장 큰 요인은 인력 부족이다. 컴퓨터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하루에도 수십통 씩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또 매시간 방송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어느정도 인력이 확보되면 앞서 언급한 진정한 의미의 직업 상담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이에는 스스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상담원들의 철저한 자기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SBS 라디오의 취업정보는 취업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큰 용기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부한다. "우리 아이가 SBS덕분에 취직되었다"며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한 청취자의 감사전화는 취업상담원들이 오늘도 기쁘게 전화기와 마이크를 대하는데 힘이 되어준다. **S**

글/이정은 라디오국 제작2부

유리벽 없애기

우리는 흔히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말을 오래 전 부터 해왔고, 또 들어왔다.

KBS, MBC, TBC의 방송 3국시대에는 강력한 전속제로 연기자들을 그 채널 안에서만 볼수 있도록 해놓아 그 얼굴이 그 얼굴일 수밖에 없었고 그후 방송통폐합 이후 전속제가 많이 풀리고, 또 SBS의 개국으로 연기자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기자들의 겹치기 출연은 더욱 가속화 되어 어느 채널을 돌려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 시청자는 식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KBS의 일요 아침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의 철부지 막내딸은 그날밤 SBS의 「두려움 없는 사람」에서는 불치병에 걸린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강인한 아내로 나온다. 일반 시청자들은 그 연기자의 인상을 혼동할 뿐만 아니라 극중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도 혼란을 일으킨다.

MBC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진행자는 바로 다음 프로그램인 주말 연속극 「아들과 딸」에서 나약한 아들 역으로, 또 이 드라마에서 아들만 편애하는 억척스런 어머니는 바로 다음 시간 SBS의 「두려움 없는 사람」에서 매우 자상하고 합리적인 어머니로 나오고 있다. 드라마를 쫓아 채널을 돌리는 시청자들은 같은 배우의 전혀 다른 성격의 배역에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겹치기 출연은 우수한 연기자의 수가 절대부족하다는 현실 외에 연출자들이 고정 관념 속에서 안일하게 연기자를 선정하고 있는 현실과, 연기자들이 자신의 연기관리나 인기관리에 상관없이 배역이 주어지면 무조건 맡고 보는 풍토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우리는 방송 연기자 특히 TV방송 드라마의 연기자를 ‘탤런트’라고 부른다. 영어사전엔 탤런트가 ‘재주, 재주있는 사람, 인재, (미) 예능

유용환·한국연극협회 사무국장



유용환·1939년 경기도 개성 태생.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극단 실험극장 기획,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방송 편성담당, 국립극장 기획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연극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SBS 시청자위원이기도 하다.



정재석 그림

인, 방송출연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미국에서 들어온 말인 듯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TV연기자인 '액터'(Actor)를 제외한 쇼 사회자, 토크쇼 진행자, 퀴즈 진행자 등을 주로 탤런트라고 부르고 있다. TV드라마 연기자는 그대로 '배우'인 것이다.

연기자를 바라보는 일반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연기자들 스스로도 그들을 TV탤런트, 영화배우, 연극배우, 성우, 개그맨 등으로 확실히 구별하고 있다. 연기자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하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 우리 나라뿐이 아닌가 싶다. 연기자는 그들의 연기력을 표출하는 매체가 다를 뿐, 육체와 음성을 재료로 하여 연기를 창출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거의 구분이 없다.

혹자는 이러한 구분이 우리의 교육에서 비롯되었고 사회의 흑백논리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와 사지선다형 문제 등 객관식 문제로 치러졌던 우리의 치열한 입시경쟁에 그 원인이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너 아니면 나'의 흑백 논리를, 사지선다형 문제는 '나 아니면 모두가 아닌' 유아독존의 논리를 정착시켰다. 이런 풍조가 사회 구성구석에 편을 가르게 만들었고, 그 편들간에 상호협력이 아니

라 극단적인 대립이 생겨나 예술계에도 이런 풍조가 물들었고 그것이 이와 같은 연기자들의 구분을 유발했다는 논리이다.

연기자들의 산실은 무대이다. TV나 영화에 비해 연극무대는 역사가 훨씬 깊다. 가까이서 보아도 50년대 말 한국영화 붐이 일어났을 때 영화전문 연기자의 절대부족으로 연극무대와 연극무대의 연기자를 대거 뽑아가는 바람에 연극은 곤욕을 치렀고 연극은 아예 뿌리가 뽑혀 이 사회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런 현상은 KBS, MBC, TBC 등 세 방송사가 차례로 생겨나면 서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현재 50대 이상의 연기자의 면면을 보면 연극 출신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TV드라마의 역량있는 연기자 절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서로의 두터운 벽을 깨고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여러 갈래의 연기자 모임도 하나로 뭉쳐야 한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성우협회, 연극배우협회, 영화인협회 연기분과 등이 과감히 발전적으로 해체를 단행하고 하나의 한국연기자협회든지 배우협회로 통합하여 그안에 매체별 분과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해 본다. **S**



수목드라마 「사랑하는 당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 극본/이 주
- 연출/김한영
- 방송/11월 18일부터 매주 수, 목요일
저녁 8시 50분~9시 45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흠드라마만큼 유구한 역사를 갖고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장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도 잔잔한 것 보다는 파격적이고 충격을 주는 쪽에 더 기울어가는지 요즘의 드라마들을 보자면 좀체로 '사람사는 냄새'를 맡기가 어렵다.

겨울이 코앞에 다가서고 있는 이 즈음, 참말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은, 가슴이 추운 사람은 더욱 손이 시려오는 계절을 앞에 두고 있는 까닭일까.

무미건조하고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찾으려만 든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삶의 향기, SBS의 드라마 한편이 그 향기를 찾아주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따뜻한 한 가정의 모습,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등 다독이는 사람들의 일상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질 새 수목드라마 「사랑하는 당

신」이 지금 한창 제작 중이다.

「전원일기」와 「몽실언니」 같은 드라마를 만들었던, 사람 사는 향기를 화면에 그대로 옮겨 놓는 연출자로 소문난 김한영 프로듀서가 서울방송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연속극이라는 걸만 보아도 이 드라마의 앞날이 어느정도 보이는 듯하다. 그만큼 김한영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방송드라마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품질보증 표시나 다름없이 명사화해버린 느낌을 준다.

“이 드라마의 두 축을 이루는 주제는 ‘가족’과 ‘사랑’입니다. 개성이 강한 한가족을 중심으로 그 구성원들이 펼치는 다양한 애정의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과 그 사랑을 확인해가는 과정을 밝고 아름답게 한번 그려볼랍니다.”

자신에게 향하는 드라마팬의 벽찬

기대를 아는지 모르는지, 언제 봐도 조용하고 무뎀뎀한 얼굴로 김한영 프로듀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골격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늘正道(正道)를 잃지 않는 그의 연출기법을 짐작해 볼때 「사랑하는 당신」 역시 위락적이고 조작된 감동 따위는 철저히 배격하는 드라마가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더욱이 이 드라마가 코믹 터치로 만들어진다는 점까지 생각해 보면 ‘김한영이 최초로 만드는 코믹 홈드라마’라는 것이 호기심을 가증시킨다. 그러나 모든 유머는 그속에 또 다른 모습의 진지함을 담고 있는 법이다. 그가 이 경쾌한 홈드라마에 어떤 방식으로 삶을 보는 그의 진지한 시선을 섞어놓을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새 수목드라마 「사랑하는 당신」의 최대 강점은 결코 무거움을 강요

따뜻한 가정의 모습은 별 애기 없이도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그것은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가족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눈으로 보는 드라마'보다는 가슴으로 느끼는 드라마가 되겠다는 SBS의 새 연속극 「사랑하는 당신」은 '가족'과 '사랑'이라는, 삶의 가장 큰 덕목들을 주제로 펼쳐지는 드라마이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더듬고 확인하는 것이며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만 아름답게 꽃필 수 있는 소중한 가치이다. 「사랑하는 당신」은 개성이 강한 가족이 각각의 사랑을 찾기 위해 벌이는 다양한 예정의 형태를 아름답고 유머러스하게 포장해 보여준다.

하거나 어떤 한사람을 특별히 부각시키지 않는다는데 있을 것 같다. 거개의 홈드라마들이 대부분 그렇다고는 하나 특히 「사랑하는 당신」은 모든 출연자가 주역이며 조연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각자 살고 있는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창한 논리를 펼치지 않더라도 등장인물 모두에게 그 만큼의 몫을 해낼것을 요구하고 그만큼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극히 민주적인(?) 작품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각자가 주인공이며 또한 훌륭한 조연배우라는 의식을 갖고 동분서주하게 되는 셈이다. 「사랑하는 당신」을 만들어나갈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는 동안 눈썰미 있는 시청자라면 연출자 김한영과 작가 이주의 그런 포석을 능히 짐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전개방향까지

지 감지할 수 있을 듯싶다.

먼저 아빠인 이상태(김세윤 분)를 보자면 그는 '자상한 남편, 멋진 아빠, 효자아들'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다. 건강식품회사인 감칠식품 주식회사의 전무인 그는 매너 좋고 화통한 성격의 바람둥이로 이 시대의 마지막 휴머니스트로 자처하며 모든 사람, 특히 여자들에게 친절하고 세심해서 여자들이 많이 따를 뿐 아니라 자식들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그의 아내 김영자(서승현 분)는 평범하고 약간 고지식한 성격으로 가족들의 모든 일을 자신이 알고 간섭해야 직성이 풀리는 형으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현모양처의 전형이다. 남편의 증거없는 바람기로 혼자 속을 앓지만 한편으로는 맛있는 남편과 살고 있음을 은근히



자랑스러워 한다. 사랑스럽고, 은근하고, 끈기있는 우리의 어머니, 그 자체인 여자이다.

이상태의 아버지인 이봉팔 노인(김길호 분)은 5년전에 홀아비가 되었는데 아들 이상태와 비슷한 전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건강을 제일로 여기며 자신이 젊어보인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는 멋쟁이로 한복집 주인인 정여사를 사모해 상사병을 앓는 '젊은 오빠'이다.

이상태와 김영자 부부 사이의 큰 딸인 하영(홍리나 분)은 이 드라마의 젊은 주인공이다. 대학졸업 후 회사홍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활달하고 마는 직선적인 성격으로 독신주의자를 자처하며 쿿대높은 안하무인형 아가씨이다. 남자 꿀탕먹이는데는 선수급이며 치근대는 남자 한둘 정도는 합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쟁쟁한 실력과, 하지만 인철과 경우의 저돌적인 구애작전에 휘말려 갈피를 못잡는 연약한(?) 여자이기도 하다.

하영의 남동생인 재표(공형진 분)는 짹짹하고 애교있는 실속과, 엄마의 하소연을 잘 참고 들어주는 유

맑고 고운 눈매, 청순한 웃음이 인상적인 홍리나가 지금까지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역할인 똑똑하고 주권 뚜렷한 현대여성으로 등장한다. 안해본 역할이라 처음엔 난감한 생각도 들었다지만 요즘 그의 하루 일과는 이 역할에서 자신의 또다른 가능성을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인해 온통 눈부시다.

일한 대화상대자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집안 분위기를 조절하려고 몹시 애쓰는, 정 많고 순수한 '괜찮은 젊은 이'이다.

고등학교 2학년인 막내딸 은영(송나영 분)은 새침대송형의 문학소녀로 부모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다.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로 시와 음악에 빠져있으며 예쁜 막내딸로서 귀염을 받지만, 학교제도의 모순과 대입의 불필요성을 주장해 엄마 속을 썩인다. 오빠의 친구를 우연히 만나고 난 후 사랑의 열병을



않기도 하는 '귀여운 소녀'이다.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어두운 그림자를 지닌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은 이상태의 누이동생이며 하영의 고모인 미숙(양미경 분)이다. 첫사랑의 실패를 가슴에 안고 전통찻집을 경영하며 혼자 사는 노처녀인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첫사랑 공영진을 잊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의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 애잔한 분위기를 가져 따르는 남자들이 많은데 도무지 그들에겐 관심이 없다.

하영의 이모인 영미(박정수 분)는 팔팔한 성격의 자기 주장형 인물로 언니 김영자와는 달리 생활력이 있고 직선적인 성격을 가졌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콤플렉스와 남편에 대한 죄책감에 젖어있는데 남편에게 마구 대하는 걸모습과는 달리 남편을 깊이 사랑한다. 언니 집안일에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하는 감초같은 여자.

또한 허풍이 있고 다소 심약한 인물로 여러번의 사업실패를 경험한 뒤 아내의 분식집 일을 도우며 놀고 먹다시피하는 이모부(임현식 분)는 이 드라마의 뼈통을 수 없는 양념 노



드라마의 소재가 평범한 우리 주변의 생활이야기라는 점. 안정된 극본에 든든한 배역진,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를 화면에 그대로 옮겨놓는 연출자로 소문난 김한영 프로듀서가 연출을 맡았다는 점까지 기세해 「사랑하는 당신」은 여러모로 짜임새가 풍부한 작품이 될듯하다.

릇을 톡톡히 해내게 된다. 아내에게 꿈쩍 못하고 귀어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녀를 감싸주고 일부러 저주기도 하며 비위를 맞추는데 경마에 미쳐 아내 몰래 경마장을 드나들며, 기분이 나면 바이올린도 곧잘 켤다. 윗동서인 이상태와 긴밀한 공조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하영을 사이에 두고 필사의(?) 대결을 벌이는 두 남자, 인철과 경우의 면모를 보자. 하영과 같은 그룹의 본사 기획실에 근무하는 백인철(이동진 분)은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사원이다. 남자답게 똑심있고 가식없이 솔직한 형으로 특히 여사원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유독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도도한 말괄량이 하영에게 저돌적인 공격을 감행, 사랑싸움을 벌인다.

한편 하영의 친구인 경숙의 사촌 오빠로 부유한 집안출신인 성경우(정호근 분)는 반듯하고 예의바르고 씩씩한 남자이다. 하영에게 끈질긴 구애작전을 펼치면서 백인철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경쟁하는 라이벌 관계가 된다.





대학교수이며 미술의 첫사랑인 공영진(임채무 분)은 유학 중 만난 부잣집 딸과 결혼했으나 아직도 식지않은 미술의 사랑을 알고는 괴로워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사랑하는 당신」에는 이외에도 없어서는 안될 인물들이 요소요소 진

을 치고 드라마를 맛깔나게 이끌어준다. 대충 눈치는 켜겠지만 「사랑하는 당신」이 종전의 드라마에서 흔히 보이던 애정일변도의 이야기라거나 통속적인 애정관계를 그린 것이라거나 또는 호화주택이 등장하는 상류사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평범한 우리 주변의 생활을 재미나게 그림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복잡다단한 일상의 고리에서 잠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소박하고 맛있는' 저녁밥상같은 작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떠오르는 건 이 드라마속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즉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S**

글/유미혜 · 자유기고가

사진/서형석

이 드라마의 최대 강점은 어떤 한사람을 특별히 부각시키지 않는 데 있다. 즉 모든 연기자가 주역이며 동시에 비중있는 조연인 것이다. 그러나 한가정의 중추는 어디까지나 부부이니 만큼 김세윤과 서승현은 늘 앞장서서 드라마의 고산고살을 두루 살피며 다독거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SBS 소설극장 제7화 「모닥불에 바친다」 어둔 땅에서 핀 그 사랑의 불씨

• 원작/박기동
• 극본/신재훈
• 연출/박진수
• 방송/11월 2일부터 매주 월, 화요일
저녁 8시50분~9시45분



장미는 아름답다. 가난한 시인의 시 속에서도 장미는 여전히 아름답다. 때맞춰 가위질을 해 주고 물을 주는 그런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는 화려한 정원의 장미는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형형색색의 꽃들에 둘러싸인 장미는 어쩌면 그 아름다운 자태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의 눈길을 끌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쓰레기를 마구 버린 공터에 장미 한송이가 피어 있다면 어떨까. 가위질 한번 못받아가지는 아무렇게나 비틀리고 적당한 수분과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꽃의 빛깔도 일정하지 않은, 어쩌면 흉한 모습이기 십상일 것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정작 가식없는, 꽃주인 따위의 눈치를 볼 필요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탄성을 자아내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피워낸 장미가 아닐까. 좀 진부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사랑에 빗대면 어떨까. 부모들의 축복을 받는 양가집 자식들의 사랑과 온갖 고난 속에 꽃피워낸 사랑. 차이는 바로 정원의 장미와 쓰레기 더미 속의 장미의 차이와 비슷한 것이다.

SBS 소설극장 제7화 「모닥불에 바친다」는 쓰레기 더미에서 피워낸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청춘 남녀가 도시의 온갖 유흥과 욕망에 시달리면서도 끝내는 지순한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의 이 드라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쯤 아무런 가책 없이 짓밟아버릴 수도 있을 만큼 각박한 요즘 세상에 어쩌면 구닥다리

사랑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마음 속으로는 어렵게 이룬 그들의 사랑에 감동받고 갈채를 보낼 것이 틀림없다.

유희과 욕망을 이기고 마침내 숭고한 사랑을 꽃피우는 두 남녀, 김동석과 강수희 역에는 정유석과 전미선이 캐스팅됐는데 두사람 모두 데뷔한 지 5년이 채 안되는, 신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연기자들이다.

영화 「혼자 도는 바람개비」로 데뷔한 정유석은 그후 「야망의 세월」에서 유인촌의 아들로, 「일출」에서는 임동진의 아들로 나왔으며, 「춘사나운규」에서는 젊은 나운규 역을 맡아 차근차근 연기력을 닦아왔다.

“주인공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연기자로서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생각에 밤이면 잠이 안옵니다.”

명청하리만큼 순박하고 고지식하며 여자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하는 순수한 심성의 가수 지망생 김동석,



처음 주연을 맡은 정유석은 김동석처럼 때묻지 않은 겸손한 연기자이다. 감정이 풍부한 눈매를 가진 깨끗한 얼굴에 깊이를 더한다면 우리 시대의 메마른 사랑에 훈훈한 입김을 불어넣어 주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역시 영화 「접시꽃 당신」을 통해 데뷔한 전미선은 「토지」의 봉순 역으로 시청자들에게 이미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연기자로서 이번 드라마에서는 배우 강수현을 닮았다는 말을 듣는 영화배우 지망생으로 분하는데 실제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전미선은 화려한 꿈을 좇아 정든 고향을 떠나와 험난한 도시에서 당당하고 거리낌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속은 한없이 여리기만 한 여자를 연기하게 된다.

「모닥불에 바친다」는 젊은 남녀가 온갖 유희과 욕망을 이겨내고 순수한 사랑을 이루고야 마는 사랑의 이야기이다. 연기자라면 누구나 욕심을 낼만한 이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으로 신인인 전미선과 정유석이 발탁되어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자칫 케케묵은
구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사랑의 이야기.
그러나 우리 중의 그
누구도 그것을 쉽게
받아할 수 없다.
사랑은 오래 되어
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빠져보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스타일이 두 주인공에게 결코 쉽지
만은 않을 것이다. 충격적인 영상을
추구하는 감각파라기보다는 정통파
라고 할 수 있는 박진수는 무거운 느
낌을 줄 정도로 깊이를 중시한다. 그
가 연기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면 뱃속에서 끌어올린 깊이있는 내면
연기이다. 그래서 그의 드라마를 보
면 소위 인기를 의식한 캐스팅은 엇
볼 수 없다. 그런 이유인지 연극배우
들이 눈에 잘 띈다. 또 시간이 두배
세배로 걸리지만 화면의 절감을 위해
서 스튜디오 카메라를 사양하고 조명
과 소품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수
있는 ENG 카메라를 고집한다.

박진수 프로듀서의 개국특집극
「미늘」에서 바람난 남편을 다그치는
아내로 나왔던 양금석이 「모닥불에
바친다」에서는 극장식 레스토랑의
여사장으로 나오는데 원래 연극배우
인 그 역시 소설극장 「분례기」에서
미친 여자 명화역을 맡아 탁월한 연



연기자에게 까다롭거나 특별한 주
분을 하지 않고 그들의 감정을 꾸밈
없이 이끌어내는 연출자 박진수의 스
타일로 미루어 두 신인에게 매몰지
않은 진솔한 연기를 기대해도 될 듯
하다.

그러나 박진수 프로듀서의 이런



스타가 되고 싶다는
공통의 소망을 지닌 두
남녀가 의상실의 인간
마네킹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설정은 그
세계의 물인간성과
비정함을 대변해주는
상황과도 같이 일종의
비감을 불러일으킨다.

기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의 주점
반딧불의 주인 역에 이종남, 정감독
에 정운용, 황사장역에 황범식, 음악
학원장에 강태기, 그리고 모델학원
장에 현역 모델인 도신우가 출연한다.

당찬 여자 강수희와 순박한 남자
김동석은 욕망과 환락이 넘실거리는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의상실 ‘스
마일’의 소원도우에서 인간 마네킹
으로 일하고 있다. 30분마다 새 의상
을 갈아입고 진열대에 서서 눈알을
굴려도 안되고 숨도 크게 쉬어서는
안되며 서로 돌아보아서도 안된다.
둘의 실제 생활은 극단적일만큼 대조
적이면서도 겉으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한쌍의 마네킹이다. 둘이 인
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은 화장
품 냄새와 땀냄새로 찌들은 비좁은
탈의실이 고작이다.

동석은 아직 마네킹 생활이 몸에
배지 않아 힘겨워하면서도 수희의 모
습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강
마르고 몸매가 작은 수희는 첫 인상
은 볼품 없었지만 진열대에서 그녀는
완벽한 예술품으로 변한다. 이런 변
신만큼이나 그녀는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다. 극단적이고 즉흥적이며 역
설적이다가도 솔직한 면도 있다.

의상실 스마일이 있는 거리는 술
냄새가 가실 날 없는 유흥가이다. 살
롱의 호객꾼 강철은 동석에게 유일한
음악팬이고 수희는 강철의 유일한 권
투팬이다. 구두담이 출신 강철은 거
리에 떠도는 온갖 소문을 전해주는
메신저이다.

동석은 그 거리에 중국집이 없다
는 것을 알면서도 짜장면을 사주겠다
는 말로 수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



는데 수희는 스마일에서 잃었던 말을 되찾겠다는 듯이 천방지축이다. 수희는 동석의 주머니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점 반딧불로 동석을 데리고 간다. 반딧불 여주인은 스트립걸 출신으로 수희와는 만나기만 하면 서로 헐뜯는 권위지간이지만 외로운 사람끼리 통하는 진한 감정의 끈으로 묶아매어져 있다.

동석과 수희는 첫 데이트 때 강과와의 싸움으로 여관에 들어가 길고 지루한 밤을 지내지만 동석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수희는 이미 방을 떠난 후다.

그런 동석을 그 거리의 여왕인 동시에 지배자인 극장식 레스토랑의 여사장 조은희가 유혹한다. 동석은 조은희가 부담스럽지만 수희는 출세를 위해서라면 조은희의 발바닥이라도 밟아주라고 한다. 결국 조은희는 자기 극장에 무대를 마련해주며 동석이 거역할 수 없게 만들고, 조용히 혼자서만 동석의 노래를 듣고 싶다면 밀

이미 알려진 연기자보다는 숨겨져있는 진주같은 신인을 발굴해 적재적소에 갖다 얹히는 흥행술로 이름이 나있는 이가 연출자 박진수이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감독답게 깊이와 예술성이 풍부한 그의 작품세계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실로 유혹한다. 그날 동석의 자취방에서는 수희가 케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동석의 생일날이었다. 조은희에게 찾아가라고 한 것은 자신이면서도 수희는 동석을 기다린다. 다음 날 새벽 동석은 덩그러니 케익만 남아 있는 방을 보고 수희를 찾아해낸다.

언젠가 수희와 같이 갔었던 호숫가에서 수희를 발견한 동석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지만 수희는 사랑하는 그를 편안히 보내주지 못하는 자신이 증오스럽다며 오히려 용서를 빈다. 동석은 모닥불을 지피 수희의 언 몸을 녹여주고 둘은 곤한 잠에 빠진다. 그리고 모닥불의 재만 남은 아침, 수희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서울로 돌아온 동석에게 조은희는 극장에 무대를 마련해주고 레코드 취입을 도와주는 등 화려한 스타의 길을 열어준다. 그러나 그토록 원하던 것이었으면서도 동석은 자꾸만 추춌거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던 어느날, 강철이 스마일의 쇼윈도우에 수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한다. 한걸음에 스마일로 달려간 동석. 동석은 뚫어지게 수희를 쳐다본다. 간절히 원하는 눈빛으로, 싸늘한 시선으로 동석을 바라보던 수희의 굳었던 몸이 서서히 풀리고 쇼윈도우를 뛰쳐나오는 수희. 그녀는 더 이상 마네킹이 아니었다. 5

글/이성아 · 소설가

사진/고도영



소주 한 잔의 행복

황효선·TV제작국 부국장대우 기획특집부장



황효선·1946년 춘천 생, 경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73년 MBC-TV 프로듀서로 입사했다. 쇼,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교양제작국으로 자리를 옮겨 「인간시대」 「행자의 무대」 등을 제작했고 야심 생방송 데스크로 근무하다 91년 3월부터 SBS TV제작국에서 일하고 있다.

○ ... '그것이 알고 싶다'
"오진이다."

"진찰기록이 누군가의 것과 바뀌었다."

5월 중순, 종합건강진단이란 걸 받은 후 우리 부원들이 나의 진찰결과를 놓고 확신에 차서 나눈 이야기들이다.

건강을 종합적이고도 심층적으로 진단받을 때 공포에 가까운 불안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나이에 줄담배와 연일 이어지는 술자리가 어찌 나의 뱃속을 자연 그대로 놔두었겠는가. 그러나 진단 결과는 '시계 양호, 쾌속 항진 중'이었다. "그런 리가 없다"고 항변(?)하는 나에게 의사는 오히려 불쾌해했다. 하안 걸 하얏다고 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는 것이었다.

제작국의 어떤 이는 내가 멀쩡하다는 사실에 분개하기까지 했다. 미국 영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에서처럼 진단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진단서를 잘못 가져간 그 사나이는 지금쯤 남은 인생을 포기하고 회사와 집의 모든 생활을 정리한 후 세계일주 여행길에 올랐을 것이 틀림 없다고 공언했다.

글쎄... 그렇다 해도 나는 그것이 별로 알고 싶지 않다.

○ ... '징검다리'

장애인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진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장애를 관찰하다 보니 뜻밖에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정상인의 장애가 더 명료하게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된다.

프로듀서들도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장애를 갖고 있다. 선천적인 것도 있고 잘못 길들여진 후천성도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장애는 '열정부족증'이 아닐까 싶다. 열정과 애정이 없이는 좋은 소재를 가지고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한다. 불타는 열정이 부족했기에 패잔

병이 되는 경우를 슬하에 목격하지 않았는가.

두번째는 '분수모름증'이다. 자신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면 프로그램도 바람에 뿔구는 낙엽 신세가 된다. 이 증세의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겸손과 노력인데 완치가 매우 어렵다.

세번째는 '핑계다변증'. 어떤 잘못된 결과에도 말이 많고 핑계가 준비하다. 그런 프로듀서일수록 어쩌다 갖게된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회회낙락하는 속성을 보인다.

「사랑의 징검다리」를 보면서 나보다 높은 분들이 나를 이 세가지 장애범주에 넣고 바로 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행복찾기」

나는 데스크에 앉아서 더이상 찾을 만한 행복이 걸로 보기엔 별로 없다. 장애 프로듀서도 우리 부서에는 없고 “민간방송에 다큐멘터리가 설 자리는 없다”고 하던 주변의 경고와 우려도 오히려 반전되지 않았는가.

‘행복’이란 물질명사가 아니어서 만질 수는 없으나 느낄 수는 있고 그 자체가 생명력이 뛰어나, 아무리 먼곳에서 자기를 찾더라도 찾는 사람 곁에는 늘 나타나는 고운 성질이 있다고 한다. (월간 「행복찾기」 10호에서 발췌)

나는 내 곁에 나타난 행복이 프로듀서들의 땀과 불면과 두통의 산물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참으로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내가 느끼는 행복의 그림자만큼 불만을 갖게 된다. 「행복찾기」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찬사와 격려가 쏟아지면 질수록 욕심이 가중되고, 욕심이 적당한 선에서 절제되어야 행복이 잘 보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과욕을 부린다. 더 싼뜻하고, 분명하고, 깊이 있는...

프로듀서들은 말할 것이다.



정재석 그림

“당신이 만들어 보시오.”

그러면 나는 분명히 말해 줄 것이다.

“오늘 저녁 소주 한잔 어때.”

○...「특집」

어떤 데스크나 프로듀서에 게도 모든 프로그램이 ‘특집’이어야 하므로 특집에 대해서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나는 꿈꾼다. 고비사막을 횡단하고, 우주로켓에서 생방송을 쏘고 인체의 내부를 탐험하고 인간정신의 불가사의를 해명하고...

그런데 누가 “꿈꿔라”하기 전에 현실로 돌아오는 것은 아들 때문이다. 그 녀석이 아주 어렸을 때 아빠의 직업을 ‘출장’이라고 말해 주위 사람들은 신동해 했지만 나에게 그 말이 늘 상처 같았다.

이제 출장가는 일은 거의 없지만 아들 얼굴 보기 힘들기는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늦장가에 어린 아들...

“당신 인생의 특집은 내용이 좀 있는 거야?”

누군가 물으면 무어라 대답하나.

“오늘 저녁 소주나 한잔 마실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S



고교생 그룹 비오디오

제1회 SBS 신세대가요제 대상 차지

신선한얼굴, 감각있는
새 노래 탄생

가요계에 새바람을 일으킬 차세대 스타 탄생의 무대가 지난 10월 10일 오후 5시부터 두시간 동안 한강 고수부지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서울방송이 신인가수 발굴을 위해 마련한 「제1회 SBS 신세대 가요제」가 그것.

5000여 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권오규와 이상아가 진행한 「SBS 신세대 가요제」 그 첫번째 대상은 「지각」을 부른 순수 고교생그





를 비오디아가 차지했다. 또 금상은 「사랑은 향기로 내리고」를 부른 남성듀엣 불루노트가, 은상은 「사라지는 모습들」의 김정희가, 동상은 「평화문에서 너의 마음까지」의 양창원이 각각 차지했으며, 인기상은 화려한 율동과 함께 랩송 「착각」을 부른 남녀혼성 3인조 지그재그가 수상했다.

「제 1회 SBS 신세대가요제」는 참가자격을 열일곱살부터 스물두살까지로 확대, 신선한 감각의 가요들을 선보여 많은 감채를 받았으며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도 CF 방식을 도입하여 참가자들을 소개하는 등 영상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 가요제 실황은 SBS텔레비전과 라디오로 생방송됐다.

총 675개 팀 가운데 1, 2차 예심을 통과, 본선에 진출한 15개 팀은 지난 9월 26일부터 2박 3일간 양평 남한강 수련원에서 합숙을 하며 우정을 다지기도 했다. 그래서 이 가요제는 경연장이기 보다는 진한 우정이 담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었다.

신세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꿈과 희망이 존재하는,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실체가 기다리는 세대이다.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들의 주제를 부르는 모습에서 차세대 스타의 탄생을 예감한다.

“사람들은 모두들 말하지, 꿈과 희망을 찾고 싶다고, 나도 길을 잃고 헤매었지, 어디로 떠나면 무지개 잠을 수 있나....” S

사진/서창식



창단 일곱달 만에 '92코리아리그 2차대회 준우승 갈수록 놀라움 더해주는 '농구계의 다윗'



SBS 농구단이 창단 7개월만에 '92코리아리그 2차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11월 1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던 결승전에서 신생 SBS 농구단은 삼성전자의 노련미에 맞서 패기있는 경기를 펼쳤으나 71대 58로 분패,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준우승의 견인차 노릇을 한 정재근 선수와 표필상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단연 돋보였는데 지난 봄의 무릎부상을 딛고 출전한 정재근 선수와 표필상 선수의 더블 포스트는 경기를 더함에 따라 더욱 위력을 과시하며 골밑을 장악하였다. 정재근 선수는 리바운드 89개로 리바운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새롭게 주전으로 뛴 박성수 선수도 악착같은 수비와 빠른 패스, 정확한 중거리 슛을 보이며 큰 몫을 해냈다.

지난달 24일부터 열린 이번 대회에서 SBS 농구단은 조별리그 A조에 속해, 첫 경기인 산





업은행과의 경기에서 1골 차이인 75대 77로 분패한 후 국내 최정상인 기아자동차를 70대 68로 물리쳐 파란을 예고하였고, 강팀킬리로 불리며 이번 대회 최고의 변수로 등장한 상무도 63대 60으로 제압, 2승 1패를 기록하며 조수위를 차지했다.

또한 28일부터 열린 순위리그에서는 1그룹에 편성, 조별리그 전적 1승을 안고 28일에 강호 삼성전자와 격돌했으나 57대 59로 분패했다. 그러나 29일에 있던 한국은행전에서는 65대 52로 여유있게 승리, 2승 1패로 삼성전자, 기아자동차와 동률을 이룬 끝에 골 득실차에서 앞서 삼성에 이어 2위로 4강에 진출했다. 3일의 준결승전에서는 패기의 상무와 격돌, 73대 53으로 승리함으로써 현대전자를 물리친 삼성전자와 결승전을 치렀다.

지난 3월 11일 창단과 함께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했던 SBS 농구단은 불과 7개월만에



준우승이라는 커다란 영광을 안았다. 이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SBS 농구단의 계속될 선전을 기대해 본다. **5**

사진/서형식



서울방송 창사2주년 기념 방송 담당기자 초청 세미나 성공출발, 전국방송의 그날도 멀지않았다

창사2년만에 서울방송은 편성의 차별화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끊임없는 개발로 시청취자의 채널선택권을 넓혀주며 드라마, 다큐멘터리, 코미디는 물론 쇼와 뉴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수용자의 호응과 격려를 받는 방송사가 되었다. 지난 10월 16일, 방송학자와 신문의 방송담당 기자들이 모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서울방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시청자가 원하는 곳에 먼저 가있는 방송'으로 인정받고 있는 SBS를 보는 전문가의 소리를 다시한번 들어본다.

① 한국방송계에서의 SBS의 위상과 기대

**‘일단 성공’, 그러나 진짜 출발은
지금부터이다**

발표/서정우·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몇가지 전제

제도나 기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방송은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라는 방송지표를 걸고 1990년 11월 14일 정식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서울방송 텔레비전이 개국한 지는 1년이 채 못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울방송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이루어짐이 바람직스럽다.

2. 서울방송의 위상

SBS텔레비전은 개국한 지 1년이 채 안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방송계에 신선함과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방송계에 있어서 서울방송의 위상에 대한 학계, 비평계, 그리고 방송계의 반응은 조심스럽지만 놀라움으로 가득 차있는 것 같다. 이러한 반응들의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서울방송은 우리 방송계에 있어서 민영 상업방송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있다.

우리 나라 방송사(史)에 있어서 민영방송의 시작은 1954년에 개국된 중앙기독교방송(HLKY)으로 소급된다. 그러나 이 방송은 라디오 방송일 뿐만 아니라 특수 종교방송이라든가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진다.

우리 나라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은 1956년에 개국된 한국RCA연합회사(KORCAD)이다. 이 방송사는 RCA(Radio Corporation of America) 한국지사와 RCA가 제휴해서 설립했다. 이 방송사는 우리 방송사(史)에 있어서 최초의 민영 상업 텔레비전임에는 틀림없지만 외국회사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국일보사는 1957년에 KORCAD를 인수해서 대한방송주식회사(DBC-TV)를 새로이 설립하지만 이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KORCAD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1966년에 중앙텔레비전(TBC-TV)이 개국되어서 민영 상업방송의 시대를 열지만 불행히도 1980년의 언론통폐합 조치에 의해서 KBS에 흡수 통합되었다. 그리고 1969년에 MBC-TV가 순수 민간 상업방송으로서 다시 개국되었으나 1980년의 언론통폐합 조치에 의해 공익법인화 내지는 공영방송화되어 버렸다.

따라서 우리 방송사(史)에 있어서 민영 상업방송의 역사는 그런대로 있지만 모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던 중 SBS-TV가 새로이 순수 민영 상업방송의 기치를 들고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SBS는 우리 방송의 역사에 있어서 민영 상업방송을 정착시키는 역사적 책임을 안고 탄생된 방송으로 평가된다.

둘째, 서울방송은 우리 방송사(史)에 있어서 기업 공동 소유 형태를 새로이 도입했다. 서울방송은 단순한 민영 상업방송에 머물지 않고

그 소유 구조를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새로운 소유권제도를 도입한 방송으로서 평가된다는 뜻이다.

1956년에 설립된 KORCAD는 미국 회사인 RCA가 소유했고, 1957년에 설립된 DBC-TV는 한국일보사에 소유권이 있었으며 1966년에 설립된 TBC-TV는 삼성기업에 의해서 소유되었다. 또 1969년에 설립된 MBC-TV는 백화당의 소유주인 김상용이 소유한 방송사였다.

그러나 SBS는 대표주주인 태영을 위시해서 다수의 기업들에 의해서 공동소유되고 공동 운영되는 방송사라 말할 수 있다. SBS는 단순히 대기업 공동 소유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기업들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도 아니고 한국일보사와 같은 매체 기업도 아닌 비연관 중소기업들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오늘날의 세계적 추세는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대기업과의 다각 경영 형태나 매체횡단적 소유형태(Cross-Media Ownership)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방송법도 그러한 세계적 추세를 대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셋째, 서울방송은 텔레비전의 3원 경쟁체제를 새로이 복원했다. 한때 우리나라의 방송계는 KBS, MBC, 그리고 TBC의 3원 경쟁시대를 구가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텔레비전의 경쟁시대는 1980년의 언론통폐합 조치 때문에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다. SBS의 등장은 과거 우리 방송계에 존재했던 3원 경쟁체제를 새로이 도입하고 구축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넷째, 서울방송은 과거 우리 방송사에 없었던 과감한 편성 차별화 정책을 시도했다. SBS가 시도한 편성 차별화 정책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시청률 조사 결과는 일단 성공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 같

다. SBS가 시도한 편성 차별화 정책의 기본 골격은 8시에 뉴스를, 9시에 드라마를, 그리고 11시에 스포츠를 방송하는 포맷이다. 이 중에서도 8시에 종합뉴스를 편성한 용기는 그 편성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우리 방송사(史)에서 높게 평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서울방송은 시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화하는 개혁성(innovativeness)과 적응성(adaptability)을 보였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방송은 매너리즘에 빠져 변화를 완강히 거부해 왔다. 방송은 고도의 창조적 작업이기 때문에 변화를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나라의 방송은 시청자 위에 군림했을 뿐, 시청자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는 철저히 거부했다.

방송이 있으니까 시청자가 있는게 아니고, 시청자가 존재하니까 방송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방송은 개국 처음부터 변화하는 방송상의 정립과 시청자 요구에 충실한 방송상의 구현을 제창하고 나섰다. 이러한 위치 설정은 그런대로 적중했다고 평가된다.

그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했는데 방송만큼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방송은 사회체계의 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체계의 변화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청자 주권의 정립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SBS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 시청자 요구의 변화, 그리고 방송시장의 변화 등을 프로그램에 기민하게 반영한 것이다. 그러한 개혁성과 적응성은 성공 여부를 떠나 “시청자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변화해나간다”는 태도를 보인 점에서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변화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3. 서울방송에 거는 기대

서울시민만이 서울방송을 시청한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건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국민의 시청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서울방송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전국적인 방송으로 확장됨이 바람직스럽다. 현재의 전국방송인 MBC도 1959년에 개국된 부산 MBC로부터 확장된 방송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데 서울시민 따로 부산이나 광주시민 따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방송이 개국한 지 1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일단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방송역사상 놀라운 충격임에 틀림없다. 서울방송의 ‘일단 성공’이 우연적인 발생이 아니고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이란 사실 역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 발전의 긴 역사성에 비추어보면 ‘일단 성공’은 너무 일찍 발생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 후에 서서히 나타나는 게 더욱 바람직스럽다. 실제적으로 서울방송의 ‘일단 성공’은 너무 일찍 도래했다는 비평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서울방송은 ‘일단 성공’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방송은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까지 쏟은 피와 땀과 눈물보다도 더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한다. 교만과 자기도취는 발전의 가장 암적인 존재임을 유념해야 한다.

서울방송이 변화에 민감하고 시청자의 요구를 의식하는 태도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화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외국의 프로그램을 쉽게 모방한다든가 선진국 수준이나 문화에만 어울릴만한 프로그램의 대량 수용은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한다. 시청자의 요구나 시청률에 너무 민감한 나

머지 대중 취향의 공통분모에만 영향하는 프로그램의 대량 방송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감안해서 자제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은 1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년의 기간을 두고 계속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시작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것인 지도 모른다. 서울방송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청자의 사랑과 존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새로이 시작하는 자세를 유지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사회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중심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사회적 공익으로서의 방송은 우리 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의 일단을 공유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방송 환경이 건강해야 사회 환경이 건강하다”는 서울방송의 방송지표를 우리 모두는 한번쯤 깊이 음미해야 하겠다.

2 SBS 편성 및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특징

높은 시청률로 드러난 새로운 모험의 결과

발표/이덕주 · SBS 시청자 위원장

1. 두개 공영방송의 일일시대

우리 나라의 방송은 제도적으로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처음 KBS가 국영방송으로 출범했고 이어 MBC가 공영방송의 형식으로, 그리고 TBC가 민영방송으



로 출범한 후 3방송국 체제를 이루어 70년대를 이어왔다. 흑백 TV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었던 KBS를 제외하고 MBC와 TBC가 채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보인 시대이기도 하다.

물론 이때에는 각 방송사가 광고를 직접 수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률과 광고 수입이 직결되어 수도권과 부산지방이라는 지역적 약점을 가진 TBC로서는 MBC와의 경쟁이 사활을 건 싸움이기도 했다. 그 결과 세 방송사가 9시 뉴스대를 중심으로 프라임 타임 진입 시간대인 6시대부터 드라마 시간대인 10시대에 이르기까지 중복편성과 대응편성으로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진투구식의 치열한 경쟁을 한 것이다. 현재도 같은 패턴이지만 낮시간대의 방송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욱 가열해 갔다.

80년대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던 5공화국 정권은 이러한 체제로는 매스컴을 쉽게 장악할 수 없다고 판단, 언론 통제 합이란 비상수단에 의해 TBC를 KBS에 흡수 통합시키고 KBS와 MBC의 두 공영방송 체제를 확립했다. 정부는 각 방송사가 광고를 직접 수탁하는 데에서 시청률 경쟁이 지나치게 가열되는 점을 감안,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설립하여 광고수주를 대행케 하는 등 시청률과

당경쟁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방송사의 체질상 제한된 상황하에서도 치열한 경쟁은 재연되었고 사회의 지탄과 시청자들의 불평을 외면한 채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후 6공화국이 들어서고 TV 채널이 확보되면서 민영방송이 하나쯤 생겨도 좋지 않은가 하는 사회적 욕구와 시청자들의 다양한 채널 선택 수요가 성숙되어 새로이 민·공영방송 시대가 전개된 것이다.

2. 서울방송의 출범

10년 만에 재현되는 민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운영 주체를 맡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쟁은 치열했다. 정부는 당초부터 재벌과 기존 신문사의 방송경영을 배제했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서울방송이 90년대 민



지난 90년 11월 14일 많은 이들의 우려와 박수 속에 서울방송은 태어났고, 어느덧 두살배기 튼튼한 방송이 되어 장년의 역사를 가진 다른 방송사의 아성을 위협하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영방송으로 첫발을 댈게 되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방송'을 방송이념으로 내걸고 있었고 MBC 역시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좋은 방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데 비해 서울방송은 •정의로운 사람에게 용기를, •온가정에 화목과 행복을, •직분을 다하는 사람에게 보람을,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존경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긍지를, •하나되어 세계 속에 자존을, 등의 여섯가지 덕목을 기초로 한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를 방송지표로 내세웠다.

서울방송은 90년 11월 14일 창립되었고 90년 12월 29일 정부로부터 TV 방송 가허가를 취득한 후 1년도 채 못된 91년 12월 9일 첫 방송을 송신해야 할만큼 시간에 쫓기면서도 돌관공사를 해내듯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고, 그동안 인적 구성, 장비 도입, 스튜디오 설치 등을 완료하면서 방송의 이미지, 방향 설정, 편성, 프로그램 제작, 송신 등을 해낸 것이다. 이는 세계 방송사상 최단시일 내에 이런 기록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서울방송 개국 초기의 편성의 차별화 노력

우리 나라 방송계 여건상 새로운 방송사가 탄생했다고 해서 자유로운 입장의 방송관계 인적 자원이 있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자연히 KBS나 MBC, 기타 방송사에 종사했던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입장이었다. 기존 방송사에 몸담아 일해왔던 초창기 창립 멤버들은 평소 2대 방송의 고질적 행태인 대우편성, 중보편성만은 탈피하여 서울방송의 새로운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몹시 고심하였다. 이러한 고심의 흔적은 편성표에서 역력히 볼 수 있었다.

서울방송에서 스테이션 이미지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뉴스의 강화였다고 본다. 이미 3월

에 개국한 라디오 편성에서 방송사상 첫 시도였던 '퀵터 뉴스'를 도입한 것이나 또 개국 초기 TV 편성에서 종래 각 방송에서 유지해 오던 9시대 뉴스를 8시대로 과감히 차별화한 것, 그리고 뉴스 아이টে을 심층 보도하려는 10시대 「SBS 뉴스쇼」 등은 파격적인 편성이 아니었나 싶다. 서울방송으로서는 수도권 및 중부권 일부에 제한된 가시청권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상층, 즉 오피니언 리더 등의 지식층과 청소년 및 중산층의 주부들을 집중 겨냥하여 스테이션 이미지를 강력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개국 초기 로우밴드 안테나의 준비 미비 등으로 인한 난시청 가구가 의외로 많았고 또 「SBS 뉴스쇼」가 앵커 세명의 역할 분담 미숙, 그리고 여자 앵커의 부적절한 인선, 뉴스 아이টে에 대한 철저한 분석 미비 등으로 당초 의도했던 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봄철 개편 때 대폭 축소, 방향 수정한 것으로 보아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미국에서 3대 무선 네트워크의 벽을 뉴스로 극복했던 케이블 TV인 CNN의 성공을 참고로 하여 뉴스 편성의 강화로 출발하려던 서울방송이 궤도를 수정한 것은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미처하지 못한 채 의욕을 앞세웠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그러나 서울방송이 8시대 뉴스를 확대하여 과감하게 밀고 나감으로써 편성의 차별화를 이룬 것은 9시대 뉴스의 고정관념을 깨버린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방송의 편성 차별화 정책에 대해 KBS-1TV는 8시 30분에 3분 뉴스를, MBC는 8시에 「여기는 보도국」(5분)을 황급하게 대응 편성하였다. 이러한 대응편성은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당경쟁의 인상을 주었다. 더욱이 KBS-2TV는 아침 영상 소설 「그리고 흔들리는 배」를 저녁

8시대로 옮겨왔는데 이는 「SBS 8 뉴스」를 너무 의식한 편성같이 보였다.

그리고 서울방송이 기존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과 확실한 차별화를 이룬 것이 「SBS 스포츠 스포츠」이다. 평일 11시대에 '화요 파노라마' '수요 불링' '목요 불링' '금요 골프'를 고정 편성한 「SBS 스포츠 스포츠」는 미디어 서비스 코리아(MSK) 조사에서 점유율 55퍼센트를 나타내는 등 성공을 거둔 편성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100만 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청률에 상관없이 편성한 「사랑의 정검다리」는 민영 방송으로는 과감한 시도였고 청소년 대상 휴먼 다큐멘터리 「푸른일기」는 92년 방송대상에서 청소년 부문 작품상을 받은 수준높은 프로그램이었다.

물론 KBS와 MBC의 프로그램 중 우수작이 없는 것은 아니다. KBS 제1텔레비전의 집중기획 5부작 「한국의 10대」, 6부작 「자본주의 100년 한국의 선택」(92년 방송대상 대상 수상 작품), 6. 25 특집 3부작 「내가 겪은 공화국」 등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MBC의 신설 프로그램 「세계의 시민」은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현실을 재검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스위스 미국 영국 등 10개 선진국 시민들의 건강한 시민의식과 삶의 가치관을 소개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력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4. 봄철개편 이후의 판도 변화

SBS의 봄철 프로그램 개편(3월 23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설 프로그램은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제 사건, 자연의 신비한 현상, 불가사의한 일 등을 다큐멘터리 추리기법으로 제작하

여 "사건을 드라마 형식으로 재현하기도 하고 컴퓨터나 VTR 등을 동원해 사진의 단서와 의문점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에 접근해 가는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건 추적에 치우쳐 문제 발생의 근원과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일부의 지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탄탄한 구성, 발로 뛰는 현장감, 참신한 기획, 논리와 흥미가 조화된 프로그램'이란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미디어 서비스 코리아 MSK 시청률 조사에서 34퍼센트의 시청률을 보여 인기프로그램 순위 10위권에 빠지지 않고 있음은 이러한 반응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KBS와 MBC의 9시 뉴스가 SBS와 KBS·2TV의 드라마에 시청률을 잠식당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45일간 미디어 서비스 코리아(MSK)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저녁 9시대의 시청률을 조사한 결과 SBS와 KBS·2TV의 평균 시청률은 37퍼센트(점유율 54퍼센트)였고 KBS·1TV와 MBC 종합뉴스의 시청률은 30퍼센트(점유율 45퍼센트)로 나타나 드라마가 뉴스보다 7퍼센트나 앞섰다고 집계가 나왔다.(조선일보 8월7일자) 이런 상황은 9월 들어 더 심각해져 그 차이가 16퍼센트나 되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SBS 8 뉴스」가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시청자들에게 정착 되어가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우리나라 TV 시청자의 대다수가 드라마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TV 시청률의 판가름은 드라마의 성패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과거 KBS의 「서울독배기」 MBC의 「사랑이 뭐길래」 「여명의 눈동자」가 장안의 화제를 모은 인기 드라마로서 채널을 고정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

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봄철 프로그램 개편 이후 SBS의 「겨울새」는 MSK 시청률 조사에서 시청률 35~44퍼센트, 점유율 70~80퍼센트를 유지하면서 한 달 중 16일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인기를 보였고, 이어 「두려움 없는 사랑」이 33퍼센트, 「궁합이 맞습니다」가 35퍼센트를 차지해 인기 프로그램 순위 10위 안에 4개의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강세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렇듯 서울방송이 불과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초기의 부진을 씻고 2개 기존 방송과 견주어 우세를 확보해 나간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면서 서울방송으로는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5. 다수 채널시대의 비람직한 편성 방향.

우리 나라의 방송매체는 공민영 방송을 막론하고 광고방송에서 얻어지는 광고 수입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사실상 광고 수입은 시청률에 정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때, 지나친 시청률 경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료를 결정하고 있고 더욱이 광고 시간에 비해 광고 물량이 넘치는 여건 속에서 시청률에 대해 그리 민감할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시청률 경쟁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프로그램의 창조성, 기획력, 질적 향상, 새로운 시도를 통해 프로그램 차별화를 이루면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비슷한 프로그램의 중복·대용편성, 모방 제작 등의 방법으로 이전투구식 경쟁을 하는 것은 앞으로 다수 채널 시대에는 지양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과거 정부는 방송 매체를 소수화하여 공영 방송 독점체제로 만들면 지나친 경쟁은 완화되지 않겠는가 하며 시도를 해보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것은 역효과를 초래한 결과를 낳았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여 모험을 시도하여 신선한 자극을 추구한다.” 이 말속에는 서울방송의 의지가 온전하게 녹아있다. 방송의 질적 향상, 차별화, 새로운 아이디어, 이러한 점은 항상 잊지 않되 늘 시청자의 편에서 생각하는 방송, 그것이 서울방송의 미래상이다.

앞으로 TV 채널은 더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방송이 UHF로 전환되면 하나의 채널이 생기고 위성방송 시대가 오면 다수 채널이 확보될 것이며 더욱이 CATV가 현실화 되면 수없이 많은 채널이 생겨나 사실상 TV 매체에는 사활을 건 경쟁의 시대가 올 것이라 예측된다.

2. 3개의 채널이 있을 때에는 모방과 대응, 중복 편성이 가능했지만 다수 채널시대에 이르면 단순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방송환경이 되면 방송사간의 경쟁관계는 자율경쟁과 시장원리에 맡겨져야 한다. 지나친 시청률 경쟁은 방송 전체의 가치 추락이나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일부 우려도 일면 긍정이 가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 결국 다수 채널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질적 향상, 차별화, 새로운 아이디어 등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각 방송사의 편성 담당자들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새로운 시도를 과감히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영국의 방송연구소(Broadcasting Research Unit)가 제시한 방송의 질에 대한 내용에서도 “방송의 주제를 다양화하여 수용자의 선택에 대한 범위를 넓히고 편성정책의 수립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채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모험을 시도하여 신선한 자극을 추구한다” 등을 내걸고 있음을 깊이있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

전 미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에게 듣는다 “공산주의 붕괴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시작일 뿐입니다”

• 방송/10월 26일 밤 10시 55분~11시 50분

인터뷰어/리처드 알렌(전 미대통령 안보보좌관)

도영실(미국문제 연구소장)

알렌 오늘 초대손님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씨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국가 안보담당 보좌관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워싱턴에 있는 전략연구소 상담소장 겸 존스 홉킨스 대학의 분교인 워싱턴의 폴 니체 국제관계연구소의 미국 외교정책 담당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박사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소련과 공산주의 붕괴를 가장 먼저 예측한 사람 중 한 분이십니다. 특히 공산주의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우선 그런 문제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더욱 더 작은 단위로 현재도 분열하고 있는데,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우리 우방국들이 보기에 이런 구 소련의 분열이 앞으로 종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리라고 보십니까?

브레진스키 동서의 균형을 위해서는 구 소련 해체가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미 그 곤경이 과부로 느껴집니다. 구 소련 해체 후 미래에는 더 폭력적이며 위험한 상황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는 단지 소련이 분해된 사실뿐 아니라 구 러시아 제정의 붕괴를 뜻합니다.

다. 러시아 왕국은 세계에 서 최근까지 남아있던 가장 큰 독재국가였으며 가장 강력했고 공격적이었던 정권으로서, 유럽과 극동지역의 안보에 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러시아 왕국이 여러개의 작은 국가로 분열한 변화와 변신은, 여러가지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일입니다.



알렌 민족주의, 국수주의적 이기심, 전통과 인종, 그리고 종족의 이기적인 압력, 종교, 그 외 여러 가치가 모여서 한 민족이 구성되는데, 이러한 각종 요소들이 소련 붕괴에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브레진스키 저는 오래 전부터 소련이 인공적인 제정국가이며 민족주의가 도래할 때 반드시 해체되리라는 마지막 분석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견해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인기가 없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격렬한 소요가 되따르든가 동요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오히려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민족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 이 시기에 그러한 독재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고 믿는 환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선 러시아가 제정의 틀을 쉽게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동안의 동요 후에는 다시금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알렌 정말 이제는 구 소련과 구 동유럽에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겨센 물살이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셨고 폴란드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으로서, 폴란드가 존재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며 폴란드가 소련 제정이 붕괴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브레진스키 알렌씨의 질문 중 우선 한 단어, 민주화라는 말은 일단 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 소련 영향권 내에서 아직도 민주화가 진정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에서 민주화가 가능했던 첫번째 이유는 뒤에 대체세력으로 등장한 연대노조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권에 끌 없이 항거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폴란드에는 대중이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교회 권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화를 위해서 개개인은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도덕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폴란드에는 대규모의 자영농이 있어 미미한 수준이나마 경제활동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거주하는 폴란드인들의 충성심입니다. 다섯명에 한명 정도는 해외에 사는데 그들은 음으로 양으로 기여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폴란드가 민주화에 성공하게 된 이유라고 봅니다. 이와 반면에 폴란드의 경우를 구 소련에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살펴봐라고 충고합니다.

동양의 예를 볼 때에 적절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본주의 체계를 건설해 왔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옐친을 돕고 싶기 때문이고, 옐친이 러시아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옐친에게 폴란드의 예를 따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지 알아 염려됩니다. 그럴 경우 옐친은 정치적 파국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그곳은 혼동과 동요 그 자체 속에 있으니까요.

도영심 우선 저는 레이건 행정부가 공산주의에 맞서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 그 확고한 결단력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박사께서도 레이건 대통령 정부의 정책을 후원했었는데, 그럼 레이건 대통령이 이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그 노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브레진스키 지난 15년 동안의 경과를 볼 때 미국의 전략은 두갈래로 갈렸으나 다행히도 조화를

이워 소련을 수세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그 두가지 중 하나가 레이건 대통령의 결단력으로, 러시아가 미국과 전략적 무기경쟁을 원하면 미국은 러시아의 상대가 되어줄 뿐 아니라 러시아가 파산할 때까지 끝까지 물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카터 대통령의 인권 정책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거부하면서 세계의 시선을 인권문제에 집중시켜 소련이 단지 전체 국일 뿐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인권문제는 이처럼 국내의 반대의견을 침묵케 하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카터의 대 소련 전략과 레이건의 전략이 양면성을 갖고 혼합돼 이것이 오히려 소련을 이념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방어태세를 취하도록 내몰았고 결과적으로 소련이 1980년대에 붕괴된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기이한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

도영심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의 민주화 혁명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합니다. 박 사님도 아시다시피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된 국가로 남아있고 아직까지는 아무도 한반도의 통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통일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이뤄진다면 독일 통일과 비슷한 방법인지 아닌지, 한국 통일에 관해서 관측하신 바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브레진스키 우선 한국의 분단은 냉전시대의 마지막이자 가장 불공평한, 부당한 분단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 분단 외에도 독일의 분단, 소련의 동유럽 점령 등도 냉전시대의 잔재이지요. 한국 반도의 분단은 부자연스럽고 불공평한 처사이기 때문에 곧 결말이 날 것으로 봅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10년 안에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김일성 사망 후에 일어날 정치적인 역학 관계의 변화가 통일을 앞당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김일성과 같이 확고부동한 후계자는 현재까지 나

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왕조를 구축하려 하나 성공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죽고나면 북한의 정치적 혼란은 가중되어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은 물론 경제적인 실패에 봉착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우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것이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자세 변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북한은 정권유지를 위해 남북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나 안으로는 더 많은 변화 욕구와 구 소련으로부터의 고립으로 동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중국의 후원이 중단되면 한순간의 급박한 숨막힘, 마지막 몸부림이 있을 뒤 간단히 붕괴될 것입니다.

알렌 지난 5년 간 한국은 특히 활발한 외교정책을 펼쳤습니다. 소련과 관계를 정상화했고 동유럽 여러 나라와 수교를 맺은 것은 아주 특기할 만한 진전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한국 대통령이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환영을 받는, 믿을 수 없는 대장관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한중 수교, 특히 중국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까?

브레진스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속도는 놀랍습니다. 외교 방향보다도 속도가 말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한국이 주도한 결과, 더 쉽게 말하면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성공이 그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나 북경에서는 한국을 가능성이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한 모델로 보고, 국교 정상화를 통해 얻을 이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경이나 모스크바의 지도자들이 국제적 박애주의자가 아닌 이상, 수교는 우선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두 경우 다 수교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봅니다.

도영심 최근 미국이 F-16기를 대만에 판매했는데 그 결과 이 지역의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브레진스키 저는 이지역 균형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최신에 전투기를 구입하기로 해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 지역의 균형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 외에도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지난 12년 간 극적인 변화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했다고 대만 정부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경제가 주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국내 정치는 더 안정됐고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엄청난 번영을 구가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경제에 최대 투자국 중의 하나입니다. 북경의 지도자들이나 광둥을 비롯한 남부 중국의 지도자들조차도 대만과의 경제적 관계가 상호이익에 이로우며 특히 중국의 현대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식겠지만 이번 전투기 판매로 양국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거나 이 지역의 균형이 깨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렌 카터 대통령이 1977년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로 하자 국내외적으로 아주 민감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두려움으로 동의했고 그당시 카터정부 입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음을 문서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미군 철수 결정이 현명한 것이었다고 보십니까?

브레진스키 아니요.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극동지역이 안정된 상태였으니까 미군철수 제안은 포드 대통령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차별화된 정책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먼저 제안해 선수를 치자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카터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일단 제안을 받아들이자 나치런 외교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에게 적신호를 보냈고 너무 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출생했고 맥길대학교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와 콜럼비아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으며 1981년에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다. 세계의 지성인 중에서 공산주의 몰락을 가장 먼저 경고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나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카터가 대통령이 된 후 전면 철수 아이디어가 부분 철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철수가 있었으나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알렌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까. 빌 클린턴 후보의 외교정책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의 캠페인은 주로 국내문제, 즉 경제, 직장, 의료보험, 교육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에게 외교정책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집니까?

브레진스키 방금 말한 바가 클린턴의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지요. 그들은 외교정책에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반면에 클린턴의 강점은 오늘날 미국의 외교정책과의 근본적인 의견차이를 찾아 볼 수 없고 국제문제에서도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이슈가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도영심 저나 우리 한국민은 백악관의 주인이 민

주당에서 나올지 공화당에서 나올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양국관계에서 무역, 안보, 인권 등 세가지를 현안으로 꼽습니다. 우리는 민주당 친영은 안보보다 인권에 더 중점을 둔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안보보다 무역에 더 중점을 두는 듯한데, 이 문제에 대해 박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브래진스키 세 가지 이슈는 역사적 배경과 순서에서 돌이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문제는 50년대와 60년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중요성이 감소했지만 미국은 안보의 책임을 끝까지 지며 현재도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인권문제는 현재 한국내 상황 변화로 더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민들 사이에서 더욱더 날카로운 논쟁거리로 대두됐습니다. 인권문제에서도 한국은 엄청난 진전을 보였으며 이제 진정한 안정과 민주주의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평화롭게 이뤄질 것입니다. 무역문제가 점차 더 큰 현안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대통령이 백악관에 거주한다고 대두되는 이슈가 아니라 단지 한국이 이제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수입은 점차 줄고 있으니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알렌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 미의회에 초선의원이 상당수 등장할 듯한데, 하원이든 상원이든 새로 당선된 의원들은 주로 직장, 무역 등 미국내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원에서도 외교정책 등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낙선했듯이 그 중요성이 점차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미국의 우방국,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브래진스키 아주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말씀하신 바가 사실입니다. 새로 당선된 의원들이 국

내문제, 내국민의 요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파르는 위험이라고 봅니다. 만약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 사이에 어떤 긴장 상태가 발생한다면 금방 외국 혐오반응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점입니다.

도영식 다음 미 대통령이 당면할 외교정책 중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90년대 말까지 미국이 성취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외교정책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브래진스키 우선 전략무기 감축, 환경, 생태학 등이 주요과제입니다. 새로운 이슈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종전에 크게 대두되었던 모든 현안들이 완전히 해결되거나 타결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령 종전의 문제로는 극동지역에 어떠한 안보구조를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보다 더 강력한 일본, 그리고 점차 야심을 보이는 중국,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이 되는 것을 가정해 어떤 안보구조를 가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에 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통합을 지지해야 하는지 반대해야 하는지 정말로 애매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선 공산주의 붕괴 후의 여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패망한 나라 어느 곳에서도 지금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성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계속되는 중동위기가 페르시아만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고 아랍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추진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간에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알렌 다음 정부는 분명히 박사님의 조언에 귀기울일 것입니다. 오늘밤 초대손님으로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S



기적인가, 사술(邪術)인가?

— 필리핀 심령술사 준 라보 —

그의 손엔 아무 것도 들려 있지 않았다. 환부를 드러낼 메스나 암세포 절단에 사용될 가위도 잡고 있지 않았다. 단지 그의 손목엔 흔히 볼 수 있는 시계만 달랑 끼여져 있을 뿐이었다. 수술시 자주 씻는 습관 때문에 도톰한 손은 물에 약간 부풀어 있었고, 재주 많아 보이는 둥글둥글한 손톱은 짧게 깎여져 있었다. 손뿐 아니라 그의 주변 어디에도 수술에 필요한 조명이나 기구는 보이지 않았다. 환자 한명이 누우면 목 앞맛을 간이 침대와 수술 후 흐르는 피를 담아낼 하얀 천과 수건, 그리고 손을 씻어낼 물이 담긴 대야 두동이뿐이었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 그는 수술실 벽에 걸려 있는 기묘한 형태의 금속판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손바닥을 활짝 펼친다. 가톨릭 신자인 그가 그날의 심령치료를 위해 절대자에게 힘을 얻고자 기도하며 기(氣)를 모아들이는 동작이다.

수술에 필요한 힘이 충분히 충전되었다고 느꼈는지 그는 환자를 부른다. 속옷만 간단히 걸친 환자가 침상에 눕자 그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하얀 천을 가슴까지 끌어올려 그 천을 통해 환자를 바라본다. 그의 눈이 흰 천을 가로질러 환자의 병을 투시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병의 상태를 감지한 그는 천을 내리고 곧바로 수술에 들어간다. 그의 손이 닿는 환자의 몸에선 금세 피가 줄줄 흘러내린다. 시뻘건 피와 함께 종양이나 암세포 덩어리가 환부를 비집고 올라온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환자의 몸 속에 웅크리고 있는 종양 덩어리가 그의 손에 의해 순식간에 끄집어내지는 것이다. 종양과 피를 빼낸 환부는 작은 수건으로 간단히 씻겨진다. 깨끗하다. 아무런 수술 흔적도 없다. 환자는 말끔히 담긴 환부를 어루만지며 다음 환자를 위해 침대를 내준다.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는 수술시간은 환자 당 15초 내지 1분 정도.

필리핀 심령치료술사 준 라보. 사람의 육체에 땀손을 집어넣어 암 덩어리를 파낸다는 그는 이미 1985년 모 여가수의 암수술 소문과

김기우 · 소설가

• 방송/10월 4일 밤
10시 55분~11시 50분



맨손으로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는 암덩어리를
꺼낸다는 필리핀의 심령술사
준 라보. 현지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는 그가 유독 한국에서
이처럼 만병통치의 신기를
가진 신비스런 인물로
격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기댈 곳 없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불안한
사회현실에서 비롯되는 일은
아닐까?

함께 들먹여졌던 이름이다. 당시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가수의
암완치 풍문은 의혹의 꼬리가 물려
결국 '속임수'로 판명났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를 찾는 한국인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
각종 여성지엔 그의 이름과 함께
시술장면이 특종으로 실려 세인의
이목을 끌었다.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계속되고 있는 그의 시술을 직접

확인하고 카메라로 담아 의혹의 실체를 벗겨내기 위해 취재팀은 준
라보가 살고 있는 필리핀 바기오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의 시술은 거짓이 아닙니다. 절대로 쇼가 아니라구요.”

“여기 보세요. 오른쪽 뼈 아래 볼록한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암
덩어리입니다. 그가 매일처럼 주먹만한 암덩어리를 빼내죠. 이런
식으로 계속 꺼내면 살아나는 거죠.”

바기오에서도 자동차로 아홉 시간 정도 산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는 '나고야인'이라는 시술소. 그곳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불치의 병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기숙하고 있었다. 꽤
많은 수의 한국인 환자들도 보호자와 함께 치료를 받고 있었다.
취재팀이 인사를 하자 그들은 웬지 반가와 하기는커녕 먼저 준
라보의 치료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보이려고 애썼다. 어떤
한국인은 치료 광경을 방송에 내보내게 되면 '나고야인'은 금세
한국인들로 가득 들어찰 것이라고 우려하기조차 했다.

그러나 그들이 취재를 꺼리는 이유는 그것보다 이제까지 언론에
보도되었던 준 라보에 대한 의혹의 시각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다시 언론에 의해 부정적인 풍문이 돌게 될 경우,
라보의 신통력에 문제가 생겨 결국 자신들의 치료에 효험이 없게
된다는 이유였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이같은 환자들의 거부반응은
라보 측에서 환자들에게 누차 강조해온 내용으로 자신의
심령치료를 언론이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질시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이었다.

한국인 환자들의 강한 반발로 자칫 헛걸음으로 돌아갈 뻔했던
현지 취재는 그러나 준 라보 측의 돌연한 승낙으로 취재
이틀째에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한국인 환자의 급증으로

인한 홍보차원에서인지 그는 시술장면을 취재토록 승낙했다. 취재팀이 직접 확인했던 준 라보의 시술장면은 국내 여성지 기사에서 묘사했던 대로 아연해질 수밖에 없는 진풍경이었다. 아무런 수술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환자의 몸에서 부지불식간에 불순물을 끄집어내는 그 모습은 그대로 신기(神技)였다.

그런데, 반복되는 그의 시술 장면에서 취재팀은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토록 많은 환자가 시술 도중 피를 쏟아내는데도 피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았고, 환자에게는 아무런 통증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 나중에 환자에게 물어보니 피가 몸 밖으로 나왔을 때도 피가 응고되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준 라보는 취재팀에게 시술 장면 촬영을 허락했음에도 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카메라를 옆으로 비키게 하라는 등 왜 이쪽에 카메라를 들이미니는 등, 카메라의 위치를 자주 바꾸게 했다. 카메라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눈치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의 시술과정은 무척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취재팀은 비록 정면이 아닌 각도이지만 카메라에 잡힌 시술광경을 느린 속도로 재구성해 보았다.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그는 환자의 증세를 무시한다는 흰 천을 가슴 위로 한번 끌어올리고 환자를 내려다본다. 흰 천이 내려감과 동시에 오른손은 환부를 문지르고 왼손은 잠시 침대 밑에 머물러 있다가 환부로 올라온다. 그와 함께 환부에선 피가 쏟아지고 그의 오른손과 왼손은 계속 주물럭거리며 불순물을 토해낸다. 그리고는 대야에 손을 씻고 다시 흰 천을 움켜쥐어 환부에 묻은 피를 닦아낸다.

느린 동작으로 보는 그의 시술광경은 마치 서커스에서 마술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흰 천이며 그의 손동작이 웬지 석연치 않았다. 그러나 그 석연찮음으로는 '나고야인' 안에 있는 환자와 그 보호자들의 라보에 대한 종교와 같은 믿음을 꺾을 수 없었다. 해서 취재는 바기오 주변의 여러 인물들과 함께 행해져야 했다.

"라보의 치료는 속임수에 불과하오. 약간의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게 전부이지 수술은 눈속임이오. 마치 이런 마술 도구처럼 말이오."

올해로 105세가 되었다는 아퀴노(Amado J. A. Aquino)란 심령치료술사는 그렇게 말하며 책상에서 원통막대를 꺼내 뚜껑을 열고는 종이를 집어넣었다. 그가 던져준 원통막대를 집어들어 뚜껑을 열어보니 종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준 라보가 유명해지기 전엔 스승인 토니아 그파워라는 사람이



사람의 눈은 속임수 있을지 모르나 카메라 만큼은 속임수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카메라는 '심증은 가되 확증이 없었던' 준 라보의 미심쩍은 속임수의 정체를 잡아내고야 말았다. 놀상 의심스러웠던 그의 왼손, 열쇠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준 라보의 손은 결코 신의 손이 아니라는 게 화면에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있었죠. 그는 심령치료술의 대가였는데 몸이 나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만일 그가 진짜 심령치료술의 대가였다면 왜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였던 라보는 어째서 스승을 구하지 못했겠습니까?"

바기오에 거주하는 목회자의 모임에서 들려준 얘기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준 라보를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환자를 치료할 때 그는 많은 속임수를 씁니다. 그는 이렇게 숨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수술합니다. 피가 묻은 솜을 주물럭거리면 진짜 피를 내듯이 줄줄 피가 새어나오게 되죠. 제가 직접 라보의 조수에게 들은 얘깁니다. 조수들이 아침 일찍 도축장에 나가 동물의 피와 내장을 사간답니다.”

목회자 중의 한 사람은 손에 솜을 얹고 열변하며 꽤나 실질적인 정보를 주었다. 취재팀은 그의 속임수를 발휘 수 있는 확증의 발견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취재 나흘째. 그날도 준 라보는 아침 열 시에 '나고야인'에 출근하여 수술을 시작했다. 여느 때보다 그의 손은 빨랐고, 조수들은 환부에서 나온 분비물을 치우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호주에서 온 환자가 내려가고 일본인 환자가 침상에 올라갔다. 라보는 예의 흰 천으로 그를 내려다보곤 그에게 담석이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흰 천을 쥐고 있던 왼손이 일본 환자의 아랫배 위에서 오른손과 합쳐짐과 동시에 피가 흐르며 이내 담석이 꺼내졌다. 취재팀은 도움이 될 듯싶어 일본환자로부터 양해를 구해 담석을 건네받았다. 다시 다른 환자가 누웠다. 그 환자는 서울에서 이미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진찰받은 취재팀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준 라보는 그에게 심장과 기관지가 나쁘다는 진단을 내렸다. 엉뚱한 진단이었다.

그날 시술에서 취재팀은 결국 라보의 시술 의혹을 벗겨낼 수 있었다. 취재팀의 카메라가 라보의 눈속임을 잡아낸 것이었다.



카메라 방향에 대한 그의 과민반응, 항상 침대에 걸려 있는 흰 천, 오른손의 빠른 움직임, 왼손이 잡고 있는 듯한 왼손의 뭉툼함... 의문은 그날 촬영된 필름이 풀어 주었다. 필름을 느린 동작으로 보니, 가장 의심스러웠던 라보의 왼손엔 역시 흰 물체가 담겨 있었던 것이었다. 침대 머리맡, 흰 천에 살며시 가려져 있던 왼손이 환부로 옮겨질 때, 그 흰 물체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온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었다. 그것을 꺾듯 움직일 때마다 피가 새어나왔다. 항상 흰 천을 잡고 있거나 침대 밑에 두고 있던 왼손에 뭔가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다.

“라보는 제가 열번만 시술받으면 나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가 마지막 열번째 치료였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청력에 이상이 생겨 바깥까지 왔다는 독일 청년은 라보의 치료에 회의하고 있었다.

“아랫배에서 매일같이 피를 빼내고 암 덩어리를 끄집어내는데 도무지... 그렇게 많이 빼냈으면 배가 훌쩍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 불러오기만 하고...”

한국인 할머니도 매일 치료를 받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슬며시 라보의 시술을 의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환자들도 호전되지 않는 증세에 얼마간 초조해 하고 있었지만 내색을 하진 않는 눈치였다. 병원에서 죽음을 선고받고 온 그들에게 이곳이 마지막 보루였으며 한 올의 지푸라기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증세가 나아진 사람도 있는 모양이었지만 그것은 준 라보의 손장난 같은 시술 때문이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 안정, 즉 나도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최면 효과로 잠시 호조된 경우라고 의학계에선 말한다. 서울로 돌아온 즉시 관정을 의뢰한 현지에서의 담석과 수건에 묻은 혈흔은 가짜로 판명됐다. 준 라보의 손은 불치의 병을 낮게 하는 기적의 손이 아니라, 형겅으로 눈속임하는 한낱 마술사의 손에 불과했던 것이었다. **S**

90년대 영화의 이단아, 코엔형제의「바톤 핑크」

상식을 허용하지 않는 사운드의 풍경화

정성일 · 영화비평가



90년대 영화의 작가주의 명단을 열거해보자. 누벨 이마주 세대의 레오스 까락스, 흑인들의 분노와 저항의식으로 무장한 스파이크 리, 중국인의 노스탤지어와 역사 그 어딘가에 서 있는 후시아오시엔, 호모 섹슈얼한 공간과 섹체의 유머를 무기로 구사하는 독설가 페드로 알모도바르, 아웃사이더들의 대변자 구스 반 산트, 여성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제인 캠피온.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름들을 훑어본다. 그렇다. 여기에 조엘 코엔과 에단 코엔 형제의 이름이 빠졌다. 그걸 메꿔 놓으니 이제서야 그 명단은 가득 차 보인다.

코엔 형제는 90년대 영화의 최전선을 가늠하는 시네아스트이다. 그들은 지금 여기의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영화를 위해서 작업한다. 코엔 형제는 언제나 한걸음 앞서 나아가고 미처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한걸음 나아간다. 코엔 형제에게 91년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과 감독상, 남우주연상(존 튜트로)을 안겨준 「바톤 핑크」는 그들의 네번째 영화이다.

이 '형제' 감독이라는 기괴한 호칭만큼이나 이들의 영화는 야만스럽고 이교도적이다. 84년 「블러드 심플」(Blood Simple)로 데뷔하여 이들은 단숨에 비평가들과 영화광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한편의 영화 속에서 함께 있을 수 없는 모순된 어법으로 이들은 영화를 만들었다. 진부한 이야기와 경이적인 카메라, 삼류 영화 스타일과 빛나는 아이디어, 그리고 장르 영화이면서 작가주의 영화인 이 데뷔작은 그 어떤 비평적 개입도 금지시켰다.

코엔 형제는 두번째 영화 「아리조나 유괴사건」(87년)에서 마치 영화의 테크놀로지와 카메라의 율동에 매혹된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거의 광기에 가까운 스피드를 보여주었다. 그러

나 이어서 「밀리스 크로싱」(90년)에서는 “언제 우리가 그랬지?”라고 반문하며 금방 모든 것을 정지시킨 채 침묵과 대화 속에서 스튜디오 영화를 완성시켰다. 도대체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그리고 언제나처럼 한걸음 앞서서 「바톤 핑크」는 공공연하게 도전해온다.

1941년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극작가 바톤 핑크에게 할리우드로부터 시나리오를 의뢰하는 제안이 온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리지만 바톤 핑크는 할리우드로 향한다. 영화 제작자가 요구하는 시나리오는 레슬링 영화. 그러나 바톤 핑크는 태어나서 한 번도 레슬링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타이프라이터 앞에 앉지만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영화 「바톤 핑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무심결에 이 곤경에 빠진 극작가와 함께 호텔의 작은 방, 타이프라이터 앞에 앉은 그 순간, 나가는 길은 사라지고 퍼즐처럼 이리저리 복잡한 미로만이 뻗어가는 낯선 공간이 열린다. 그 낯선 공간은 바로 ‘소리’이다.

코옌 형제는 영화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그들의 관심을 돌린다. 이제부터 영화는 사운드의 풍경화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다. 영화에서 시선의 역사는 르네상스 회화에서 1895년 카메라의 발명에 이르는 근대적 사고의 산물이다. 그래서 영화에서 ‘본다’(영상)는 ‘듣는다’(소리)에 대해 당연한 것처럼 우선권을 행사해왔었다.

그러나 여기서 펼쳐지는 사운드의 풍경화는 전적으로 새로운 원근법을 제안한다. 영화에서의 공간을 ‘깊이/거리’와 ‘안/밖’으로 나누는 대신 ‘현상-사운드’와 ‘상상-사운드’로 재배치한다. 여기서 카메라는 이제 사운드를 따라 영화에서 타자(他者)가 된다.

코옌 형제는 실내와 야외를 반대의 방법으로 찍는다. 야외에서는 사운드의 거리가 동일한 반면 실내에서는 공간의 원근에 의존한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사운드를 설계한다. 그래서 바톤 핑크는 야외에서 사람을 만날 때 사교력이 혼란에 빠지고, 실내에서는 그 공간밖에 있는 사운드에 시달리며 소외 상태가 된다.

코옌 형제는 이 퍼즐을 풀 수 있는 수많은 힌트를 남겨 놓는다. 바톤 핑크가 머무는 호텔 이름은 ‘Earle’(철자 ‘le’를 제거하면 ‘귀’가 된다)이며, 바톤 핑크의 앞방에 투숙하고 있는 세일즈맨(동시에 살인마이기도 한) 찰리는 중이염을 앓고 있다.

또한 바톤 핑크가 호텔의 작은 방에 들어서서 보는 유일한 책은 성경이다.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로 시작하는데 물론 말씀은 ‘들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바톤 핑크를 고용한 영화사 사장의 이름은 ‘Lipnick’(철자 ‘nick’를 지우면 ‘입술’이다)이며, 영화 속에 한 번도 안나오고 이름만 거론되는 영화 속의 영화 주연은 ‘Wallace’(철자 ‘ace’를 지우면 ‘벽’)이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힌트이다. 모든 것이 악몽으로 끝나고 바톤 핑크는 허탈하게 해변을 걷는다. 그 해변에 바다를 배경으로 소녀가 앉아있다. 그건 어디서 많이 본 것이다. 바로 바톤 핑크가 투숙했던 방에 걸린 그림 속의 소녀인 것이다.

코옌 형제는 사운드의 풍경화를 끝내면서 보는 것이란 그저 관습이고, 거짓이며, 복제이며,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영화를 향해 빈정거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사운드가 영상을 대신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톤 핑크」는 미래영화의 UFO 같은 존재이다. 5

망위로 올랐던 언더그라운드 가수들

겨울이 길었던 만큼 봄은 더욱 따뜻할 것

김상일·라디오국 제작1부 차장대우



국내 가요계에 일고 있는 변화 중에 최근 눈여겨 볼만한 사실이 있다. TV쇼나 큰 무대에서 열렬한 박수와 함성은 고사하고, 이에 대중적 인기의 뒷안길을 걸어왔던 음악인들, 통칭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짝퉁한 재미(?)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의 업그라운드화'라는 표현을 써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가을의 막바지인 11월, 예전 같으면 인기도 없고 얼굴도 없는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은 단지 '지갑이 춥다' (?)는 이유만으로 움츠러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 한낱 옛말이 되고 말았다. "왜 그때 그리도 추웠을까"라고 돌이켜볼 겨를도 없이 오늘의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은 이렇듯 완전한 가요계의 봄기운에 어깨를 쫓아내고, 날개 달린 용처럼 기세를 높인다.

언더그라운드라는 단어를 머리 속으로 곰곰 떠올려 보자. 우리가 두발을 딛고 서있는 이 땅, 그 밑-이곳을 편의상 언더그라운드라고 하자-은 웬지 음침하며 어둡고 춥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 그럼 반대로 땅 위-여기를 업그라운드라고 하자-는 햇빛이 있어 밝고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나라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의 위치 변화, 다시 말해 업그라운드화는 가요계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통칭 언더웨어라 하는 것이 가려진 속옷의 차원을 벗어나 겉옷 뽐치는 패션화 경향과 높은 구매력을 보이는 요즘의 흐름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모퉁이가 아닌 가요계 전반을 장식해 오는 언더그라운드, 이렇듯 최근 가요계에 자주 언급되는 언더그라운드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음악적 성숙도를 갖추었다는 인정을 받고는 있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아직 얻지 못한 일부 젊은 아티스트들을

부를 때 사용되는 명칭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언더그라운드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60~70년대 영국 록계에서 '언더그라운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분위기의 음악을 연주했던 소수 록그룹에게 붙여졌던 명칭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지금 90년대의 우리 나라에선 이런 의미를 떠난 언더그라운드의 돌풍이 가요계에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나라 언더그라운드의 태풍을 꼽는다면 지금은 고인이 된 가수 김현식을 비롯하여 현재도 활동중인 한영애, 박학기, 오석준, 장필순, 김광석, 김현철, 임지훈, 빛과 소금,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김종진, 전태환)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또 들국화를 필두로 한 백두산, 시나위 등의 메탈그룹도 한우타리에 몰아넣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언더그라운드의 신세대로 첨단적이고 실험적인 색깔이 짙은 015B나 넥스트(NEXT) 같은 그룹, 최근 가요차트의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포크가수 이운수를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언더그라운드는 기실 콩과 팥처럼 혹은 쌀과 보리처럼 그 색깔과 생김새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분류에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우리 나라 식의 언더그라운드를 가늠해 볼 때 가요를 나누는 장르로는 발라드, 트로트, 댄스라는 세개의 큰 기둥이 있다. 이들 세부분은 현재 가요 인기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노래라면 모두 이중 어느 한 곳에는 분명히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러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다른 곡들은 모두 언더그라운드라는 음악장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음악이 록이든 헤비메탈이든 테크노팝이든 간에 외국의 경우, 주로 미국이나 영국같은 세계 팝 뮤직의 주요 생산국들을 보면 현재 언더그라운드로 불리워지는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

들은 단 한사람도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언더그라운드란 여러 음악 장르 중에서도 록의 일부그룹에게 국한되어졌던 것으로 자기들만의 독특한 색깔을 갖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통칭했던 단어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가요계에서의 언더그라운드란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자신의 음악 세계가 뚜렷하고 음악적 자질을 고루 갖추고 있는, 범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는 않으나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을 일컬어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면 좋겠다. 따라서 언더그라운드 음악은 언젠가 업그라운드화할 수 있고, 또한 앞서 열거한 여러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이미 업그라운드화할 것만 봐도 우리는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밀어줘야 한다.

언더그라운드의 세찬 소용돌이 속에서 최근 태풍의 눈으로 불리워도 좋을 그룹으로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다. 서태지는 그룹 시나위의 베이시스트였고, 더불어 「대답없는 너」의 김종서도 같은 시나위 멤버로서 언더그라운드 출신이다. 또한 이덕진, 신성우같은 신세대 가수들도 메탈그룹에서 음악을 시작한 소위 언더그라운드 출신 가수들이다. 불황 속의 호황을 누리는 이들의 앨범 판매량이나 무대공연 회수, 그리고 이들에게 열광하는 팬의 수를 볼 때 언더그라운드는 이제 말뿐인 언더그라운드일 뿐 완전히 업그라운드화한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되짚어보건대 언더그라운드의 업그라운드화로 트인 가요계의 새물꼬는 진정한 가요계의 발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언더그라운드 지향성(?) 가수들이 계속해서 속출하리라는, 성급하지만 즐거운 기대를 갖게 한다. 5

서울 연극제, LUV, 그리고 미스터 맘마

권위와 재미는 끝내 만날 수 없는 강일까

이영미 · 연극비평가



생각 하나.
이번 서울연극제는 참으로 재미 없었다. 나는 직업상 연극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재미 따지고 연극 볼 처지는 못되고, 또 누구나 자신의 직업에 관한 한 지겨운 부분이 있듯이 나에겐 연극 보는 것이 때로는 고문 같을 때가 있다. 특히 이번 서울연극제는 좀 심했다. 두 시간도 채 못되는 공연 시간에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며 몸을 뒤척이며 보아야 하는 작품이 태반이었으니 말이다. 심지어 나같은 사람조차 그러하니 일반 관객들은 오죽 재미가 없었겠는가.

서울연극제가 무엇인가. 우리 나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연극제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이름은 '대한민국연극제'였다. 아무리 연극 문화의 역량의 대부분이 서울로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서울 이외 지역의 연극 경연대회 명칭이 '지방연극제'이고 서울의 연극제가 '대한민국연극제'인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이름을 '서울연극제', '전국연극제'로 바꾸었지만, 역시 '서울연극제'가 우리 나라 연극제를 대표하며 연극계의 그 해의 성과가 총결산되는 자리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그 권위 있는 서울연극제가 썰렁하고, 평자들은 "수준 미달 작품이 태반이었고, 무언가 획기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수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평면적이고 진부하며 그나마 전반적인 균형감각조차 상실하고 있었다.

복잡한 설명이나 평가를 다 떠나서 소박하게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이들 작품은 관객을 당기는 어떠한 것도 없다. 무대 위에 올려지는 것들은 자신의 관심사나 욕구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오락적인 템포감이나 스릴 있는 장면, 폭력적이거나 화끈하게 빛나는 장면 같은 말초적인 흥미거리와는 애초부터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이러한 연극을 '문화인의 교양'이므로 참고 앉아서 보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그런 관객은 거의 없다. 그것이 60, 70년대와의 차이이다. 고상한 인간 본성이나 철학적인 문제를 걸고 느린 호흡으로 음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 흥내라도 내보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없어지고 있다. 재미 없고 부담스러운 것은 보지 않는다. 확실한 오락적 재미를 주거나, 아니면 나 자신의 삶과 확실하게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그 골치 아픈 것을 왜 비싼 돈을 내가면서 하겠는가.

대중의 실질적 변화를 서울연극계의 작품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평자들은 희곡심사에서 몇 안되는 유명 희곡작가들의 작품이 나뉘먹기식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는 비단 서울연극계 출품작만의 문제가 아니다. 80년대를 끝으로 사회적 관심을 가진 작품들이 급속히 줄어든 다음부터 신작 창작극에 새로 떠오르는 경향이 없다. 이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경향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진부할 수밖에. 창작극 열세의 분위기가 그나마 조금 나아지려나 했던 기대는 다시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지금 연극계에서는 번역물이 주류를 이루는 잘 팔리는 대중연극들이 인기 스타 배우를 앞세우고 흥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생각들.

서울연극계 진행 중에 막이 오른 환 퍼포먼스 기획의 「LUV」는 10월 연장공연에 돌입했다. 거기에는 분명 포스터의 료이 상당했으리라 짐작된다. 역시 환 퍼포먼스가 기획했던 「당신의 침묵」이기가 막힌 포스터 플레이로 성공했던 것처럼, 「당신의 침묵」은 여러 종류의 포스터를 찍었다. 처음 것은 작품 이름도 설명

도 없이 '박동과, 김지숙'이라는 배우 이름만 쓰여진 포스터. 그 다음은 '로젤 김지숙, 품바 박동과', 두 남녀 배우가 '당신의 침묵'이라는 작품이름에 걸맞게 쓸쓸하게 외면하고 서 있는 모습. 다음에는 둘이 깔깔거리며 마주 보고 웃는 사진. 그리고 나서야 공연 일자와 장소가 써 있는 상식적인 포스터가 나왔다. 그리고 이들 포스터는 모두 흑백사진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동일한 인상을 남겼다.

그런데 이번 「LUV」의 포스터는 단 한 가지였다. 봄에 터뜨리는 작품이 아니니 겨울부터 준비하고 뜰들이는 식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눈에는 확실히 띈다. 울칼라에 역시 배우 사진이 중심이다. 에로티시즘 영화 단골 여주인공인 강리나가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입고 가운데에 배치되고, 30대 남자 연극배우로서는 가장 지명도와 인기가 높은, 그리고 사진만 잘 찍어 놓으면 서양사람인 걸로 착각할 정도로 서구적 외모를 지닌 김학철과 이호성이 양 옆에서 강리나의 볼에 키스를 하는 사진이다. 포스터의 첫 인상으로는 외국 영화의 포스터 같은 느낌을 주는 데 다시 한번 보면 배우(미국적으로) 세련되었다는 느낌을 주는 연극포스터임이 분명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물론 이러한 흥행의 성공과 포스터의 성공에는 김지숙이나 강리나 같은 유명 여배우의 캐스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으로 볼 때 「LUV」는 가벼운 코믹멜로물이다. 60년대 미국이라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다른 의미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92년에 서울에서 공연되는 「LUV」는 영화 「결혼이야기」나 「미스터 맘마」 같은 코믹멜로물 그 이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미스터 맘마」가 관객을 끄는 것처럼, 「LUV」 역시 연장공연에 들어갈 정도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5

체코 아나체크 필하모닉과 국립 오페라단 공연

겉과 속이 한결같았던 알찬 무대

이장직·음악비평가



그 동안 수많은 동구권 오케스트라들이 내 한 공연을 다녀갔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교향악단들이 많이 남아 있다. 낙후된 경제성장률에 비해 동구권 국가들의 음악문화는 수준급에 도달해 있으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10월 22일과 23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체코 아나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24일과 25일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체코 국립 오페라단의 「라보엠」 공연이 각각 있었다.

22일에는 스메타나의 「몰다우강」과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협연 황수지), 드보르작의 교향시와 조곡이 연주되었으며, 23일에는 아나체크의 교향시 「블라니크의 노래」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협연 김혜정), 모차르트 레퀴엠(협연 체코 국립 오페라단 합창단)이 연주되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은 「신세계」를 비롯하여 여러 작품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교향시와 조곡을 감상할 기회는 별로 없던 차에 새로운 작품을 접하게 되어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23일에 연주된 아나체크의 교향시도 마찬가지이다. 이 교향악단이 레오스 아나체크(1854~1928)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54년에 창단된 것을 보아도, 아나체크의 연주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지휘를 맡은 데니스 버크는 몇해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라 트라비아타」 공연을 지휘했던 사람으로 우리와는 인연이 깊다.

「라보엠」 공연은 다리오 미첼리의 연출로 알베르토 레오네가 지휘하는 아나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맡았으며, 체코 국립 오페라단 합창단과 난파 소년소녀 합창단이 연주에 참여했다. 체코 국립 오페라단은 아나체

크의 오페라를 비롯한 체코 작곡가의 오페라 발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유럽의 정통 오페라단답게 이태리 오페라의 유산을 손색없이 선보이는 데에도 전혀 나무랄 데 없는 기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휘와 연출자는 물론이거니와 주요 배역이 모두 이태리 출신인 사실만 보아도 그렇다. 연출자 다리오 미첼리는 「라보엠」만 40회 이상 연출한 경력과 오페라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영화를 감독한 경험을 살려 더욱 입체감 있는 무대를 살려냈다.

「라보엠」은 파리의 대학가 다락방에서 무일푼으로 기숙하고 있는 철학자, 화가, 시인, 음악가 네 사람이 견디기 힘든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낭만주의 시절에 예술가들이 겪었던 현실적 고통과도 일치되는 것이며, 현실에 굴종하지 않는 예술가 특유의 자존심과 방랑벽이 잘 나타나 있다.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윤리적으로는 타락한 집주인 베노아와 참의원 알친도르는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기근과 타락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세 사람의 예술가는 비록 가난하지만 예술과 철학의 고상함을 버리지 않고, 숭고한 정신적인 사랑의 가치를 존중한다. 젊은 시절에 고생하던 푸치니 자신의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 오페라는 보헤미안의 원조격인 체코슬로바키아인의 정서와도 통하는 데가 있어서 이번 공연 작품으로 채택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비록 돈은 없지만 예술적 자존심으로 충만해 있는 세 사람의 보헤미안들처럼, 오늘도 체코 사람들은 당장 먹을 빵이 없더라도 저녁 오페라 공연은 가뵈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지만 문화예술에 투자되는 예산이나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를 감



안할 때, 체코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리가 누리는 삶의 질이 과연 높은 것인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보엠」공연은 우리에게 이런 점을 작품을 통해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이번 교향악단과 오페라단의 내한 공연은 서울을 비롯하여 울산, 대구, 마산, 여수, 광주, 부산, 대전, 전주, 수원 등지에서 11월 19일까지 약 1개월에 걸친 순회공연을 가질 예정이어서 서울에 집중된 문화적 혜택을 끌고루 받지 못해왔던 지방의 음악팬들에게는 본격적인 음악무대를 접할 수 있는, 오랜 가뭄 끝의 단비같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방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방송이 마련한 이번 내한공연은 그 규모로 보나 예술적 완성도로 보나 손색이 없는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명성이나 비싼 개런티에 비해 실속이 없는 단체를 초청하지 말고, 이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더라도 알찬 실력과 수준을 가진 악단을 소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5



자신을 갖고 다시 뛰십시오.



우리네 신바람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한자락을 선창하면 온 들녘엔 농부가가 퍼지고,
당달아 신명난 일손은 해저무는 줄을 모르던 민족...
우리에게는 '신바람'의 맛과 저력이 있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자'는 신바람이 한강의 기적을 낳았고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던 것도 '잘해보자'는
온 국민의 신바람 덕분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타뜨렸던 삼배인의 어깨를 덮고 다시 뛰어야 할 때—
잠안동안 쉬었던 우리네 신바람을 다시 일으켜 봅시다.
우리가 마음먹고 서로의 힘을 모으기만 하면
한철 농사일도 한나절 일이 아니었습니까?

자,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고 다시 한번 뛰어봅시다.



공익광고협의회

「공익광고협의회」는 광고를 통해 보다 밝고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해 자체 전문인사들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기구입니다.
공익광고에 관해 좋은 의견이 계신 분은 771-0437~8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과 성실의 20년-태영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종합건설회사 태영은 더욱 다양한 부문에서
하나하나 새로운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기술로 이루어낸 수많은 종합플랜트 건설에서
대형 건축공사의 성공과 수행에 이르기까지—

태영은 지난 19년간 신뢰의 씨앗을 뿌려 왔습니다.
새로운 생활문화와 풍요로운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실과 정직으로 일관해 온 태영의 굳은 의지!

이제 값진 결실을 하나둘 거두고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주택·플랜트·탱크터미널·싸이로
·화학·레저·방송 그리고 기초과학산업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참다운 실력을 갖춘 내실있는 기업,

태영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더 큰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를
방송이념으로 민영방송의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는
SBS 서울방송은 세계화, 다
양화, 고급화된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건강한 정서함양과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G코드만 누르면 예약녹화O·K!



예약녹화가 단 2단계로 끝나니까
아렇게 간편할 수가 있어요!

다들 물어봐요
이렇게 간단하냐?

프로그램

숫자는 G코드
문의처 (02) 763-7777

MBC

EBS

1817185 00 뉴스와이드(국내 뉴)
67498253 스윗 해오 뉴스, 생활과
42959938 밀착된 정보들, 문화에
6329104 서, 첨단과학까지 생생
송)으로 2시간동안 보
00 생방송! 전국은지금 30272
6329104

00 부부보 4152920
20 생방송 아침의 창 64889949
00 의요리 <서양요리>
6059982
63253

오후 4.30 다행일 루치 5334369
원-모양짜기 10
4.50 국1 탐구생활-이 30
불 본본히 하려니 56331920
5.05 국3 탐구생활-이 76038524
장 구경 미술교실 55
5.20 어린이 국경의 단 55
-지정토로 국경의 단 55
5.40 국5 탐구생활-공 20
장 견학 19372388
6.00 하하하 4038901
6.05 중1 영어141
6.05 중1 과학

센터로딩방



G코드가 바로 프로그램번호-

TV프로그램의 채널, 날짜, 시간 등을 2~8자리 숫자로 만든 특수코드로서 G코드를 이용하면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예약녹화할 수 있습니다.

- 분야, 프로그램, 스포츠조선, TV자정에 G코드 게재/
- TV제와나 실미도 녹화에 더욱 편리합니다. 지출, 휴가를 방송도 간편하게 예약녹화 하세요/

'92
신제품
GHV-425
₩599,000
GHV-910 ₩898,000
GHV-425 ₩549,500
GHV-330 ₩468,000



G코드 예약녹화

G코드를 이용한 누르다음
G코드를 눌러서 예약하게
예약녹화를 할수있습니다.



접신

영아를아름 영아지킴으로
화하여 나다나아으로,
영아지킴을 더욱 호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피지고화질

화면크기, 방향도, 영상음 등
화상상태를 스스로 판단하여
가장 깨끗한 화상으로 조정해
줍니다.

본사제출

4 GHV-600 ₩668,000



가운 VTR로
*G코드를
G코드를 예약녹화
G코드를 예약녹화하기

₩VIP-38
₩54,000
*본사제출하여 1주일 후
접수
*P지킴이 사용 가능

가장 간편한 예약녹화방식-

금성캡션 G코드 VTR